

신한금융그룹  
2021 ESG 하이라이트



DO THE RIGHT THING

The word "DO" is in white with a green leafy texture. The word "THE" is in gold. The word "RIGHT" is in gold. The word "THING" is in blue.



# for a Wonderful World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망설일 때  
신한은 옳은 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빨간 불이 켜지더라도  
신한은 바르게 나아가야 할 길에 집중합니다.

대한민국 금융의 이정표를 세운 40년이  
바른 결정과 빠른 실행, 그리고 남다른 전략으로 채워졌듯,  
오늘의 시간도 신한이 열어가는 새로운 길 위에 있습니다.  
지구와 인류를 구할 저탄소 경제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0 CARBON**  
혁신의 꿈을 꾸는 스타트업을 대한민국의 유니콘으로 키워내며, **10 UNICORNS**  
모든 이해관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불어 성장하는 것, **100% SATISFACTION**  
신한이 걸어가는 바른 길이고, 행해야 할 옳은 일이며,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금융은 환경과 사회, 이해관계자를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옳은 일로 가득한 멋진 세상, 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  
신한이 금융의 힘으로 만들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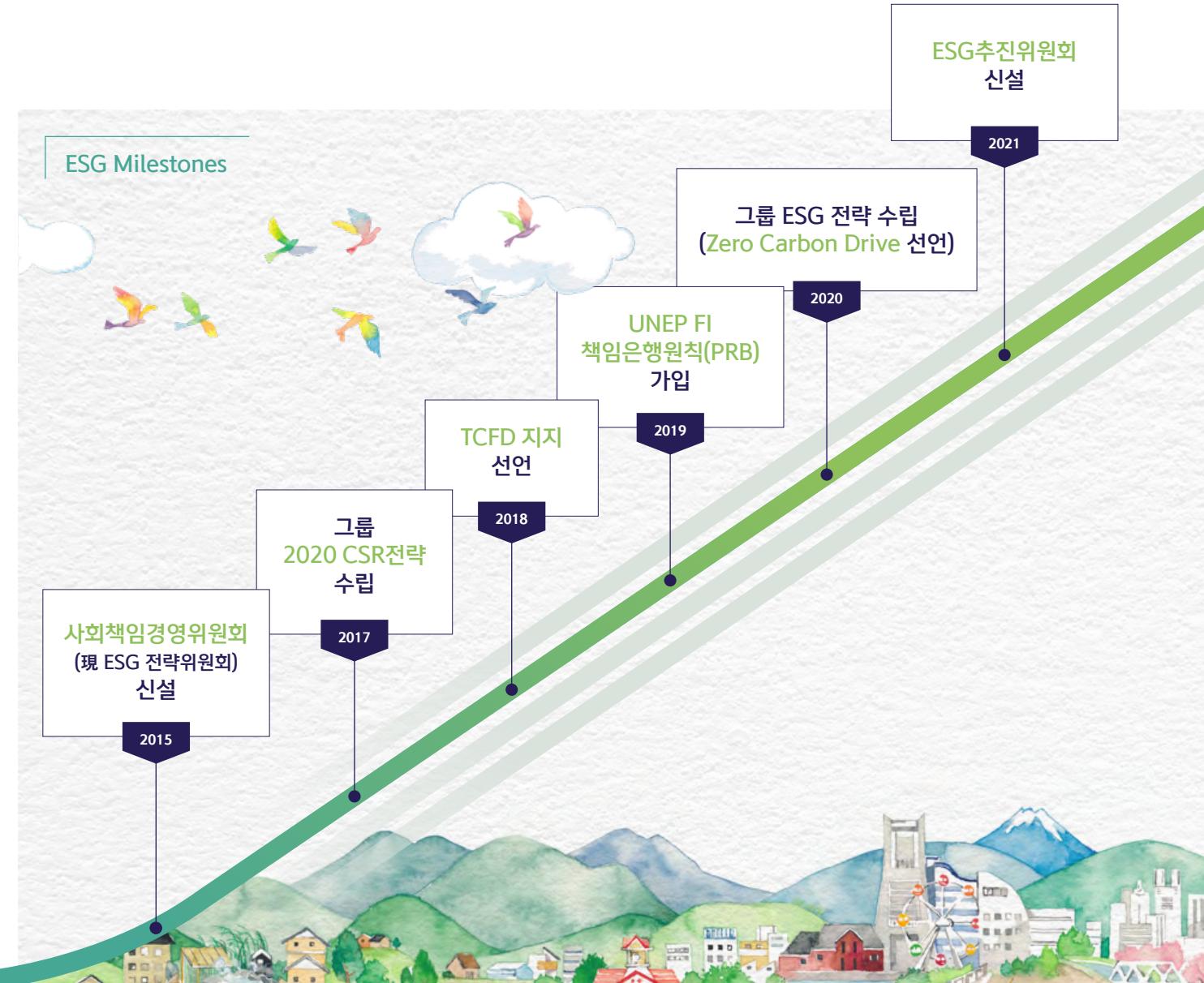
# ESG의 새로운 길을 그리다

## ESG Way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하나뿐인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3가지 요소인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ESG 경영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에게 있어서 ESG는 하루 아침에 생겨난 개념이 아닙니다. 1982년 소중한 창업의 첫 발걸음을 내디딘 후, 업의 관행에 도전하며 혁신의 이정표를 세웠고, 변화와 실천으로 멀고 크게만 보였던 목표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창업의 기틀이 됐던 '금융보국'의 바람은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미션으로 진화하였고, 오늘날 ESG의 가치와 방향을 같이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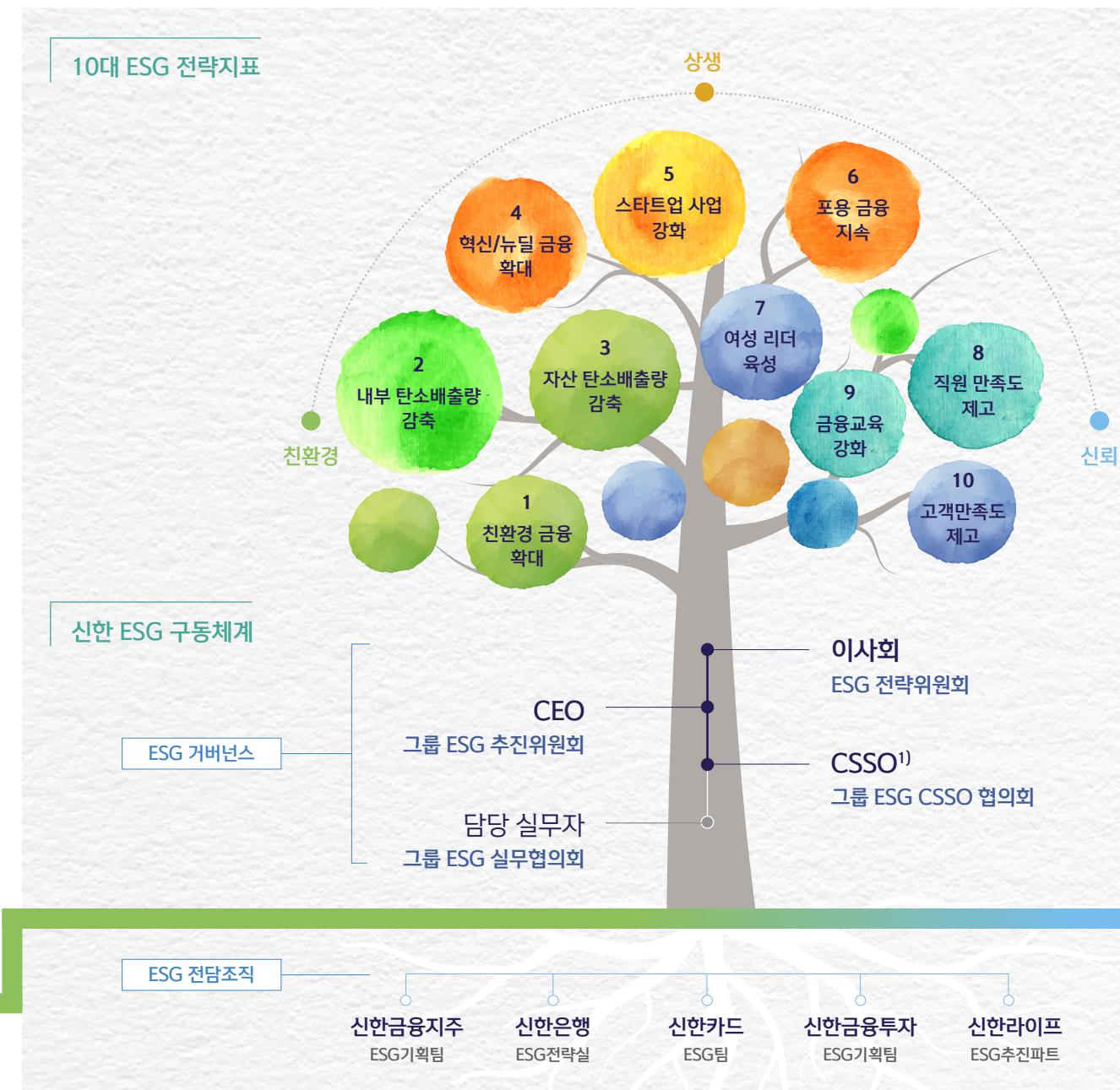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하는 신한의  
걸음은 ESG Way로 이어집니다.**



신한금융그룹은 바르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남보다 빠르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주목하였으며,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신한이 걸어온 길에는 유독 '최초'가 많습니다.

2005년 신한은행이 국내 은행 최초로 사회책임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그룹 차원에서 그리고 각 그룹사별로 연간 보고서를 발행하며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2015년, 사회책임경영위원회(현 ESG 전략위원회)를 만들어 이사회 차원에서 사회책임 경영을 쟁기기 시작했으며, 이 또한 국내 금융그룹 최초의 기록입니다. 2020년 ESG 전략 Framework를 새롭게 수립하면서 같은 해 11월 동아시아 금융그룹 최초로 'Zero Carbon Drive'를 선언하고, 2050년 Net Zero 달성이라는 미지의 길에 새로운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2021년에는 ESG 전략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그룹사의 CEO가 참여하는 ESG 추진위원회를 신설하여 의사결정 전반에 걸친 거버넌스를 완성하였고, 이후 신한금융지주회사를 비롯하여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라이프 등 주요 그룹사에 ESG 전담조직을 갖추며

**ESG Way를 함께 할 구동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 CONTENTS

## DO THE GREEN THING

06



## DO THE BRAVE THING

16



## DO THE FAIR THING

24



## ESG PROMISE

31

- 2022 Plan 32
- Wonderful 2030 33
- ESG Invitation 36

## SPECIAL REPORT

38

- ESG Statement 39
- ESG(지속가능경영) 전략 Framework 41
- ESG(지속가능경영) 발자취 43
- ESG 이니셔티브 46
- 이중 중대성 평가 48
- ESG 테이블 52
- TCFD 보고서 55
- 다양성 보고서 84
- 인권 보고서 94



본 보고서는 보고서 내 관련 페이지로의 이동과 연관 웹페이지 바로가기, 동영상 시청하기 등의 기능이 포함된 인터랙티브 PDF로 발간되었습니다.



책갈피



목차



참조  
페이지



관련  
사이트



동영상



# DO THE GREEN THING

지구가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지구 온난화에 맞서  
신한의 발걸음도 빨라집니다.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선택하는 일상의 작은 다짐에서부터  
친환경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과감한 움직임까지,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당신의 노력에  
신한이 함께 합니다.





## 저탄소 녹색성장의 싹을 틔우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담요로 감싼 낙타가 설원 위를 걷고 있습니다. 중국 정저우시를 강타한 폭풍으로 하루에 거의 1년 치에 해당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기존의 상식을 깨는 기상이변 현상들을 목도하면서 전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맞서 국제사회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첫 번째 COP<sup>1)</sup>가 1995년 개최되었고, 1997년 3차 COP에서 주요 선진국 37개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기에, 2015년 21차 COP에서 모든 당사국들이 다같이 노력하기로 합의했고, 이것이 그 유명한 ‘파리협약(Paris Agreement)’입니다.

이후 2021년 영국에서 개최된 26차 COP에서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sup>2)</sup> 대비 1.5°C 아래로 막기위한 범지구적 기후행동 강화를 약속하는 ‘글拉斯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가 채택되었습니다.

<sup>1)</sup> COP(Conference of Parties, 당사국총회): UN이 매해 개최하는 기후변화를 주제로 논의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소속된 국가들의 모임

<sup>2)</sup> 산업화 이전: 1850~1900년



UN SDGs

#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녹색금융에 길을 묻다



탄소중립은 경제·사회적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금융은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저탄소 배출 산업을 성장시키고 기업들의 친환경 전환을 도우며,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자금 지원을 통해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 11월 동아시아 금융사 최초로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2050년까지 그룹 내부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과 금융자산 탄소 배출량을 Net-Zero로 할 것을 목표로 하는 'Zero Carbon Drive'를 공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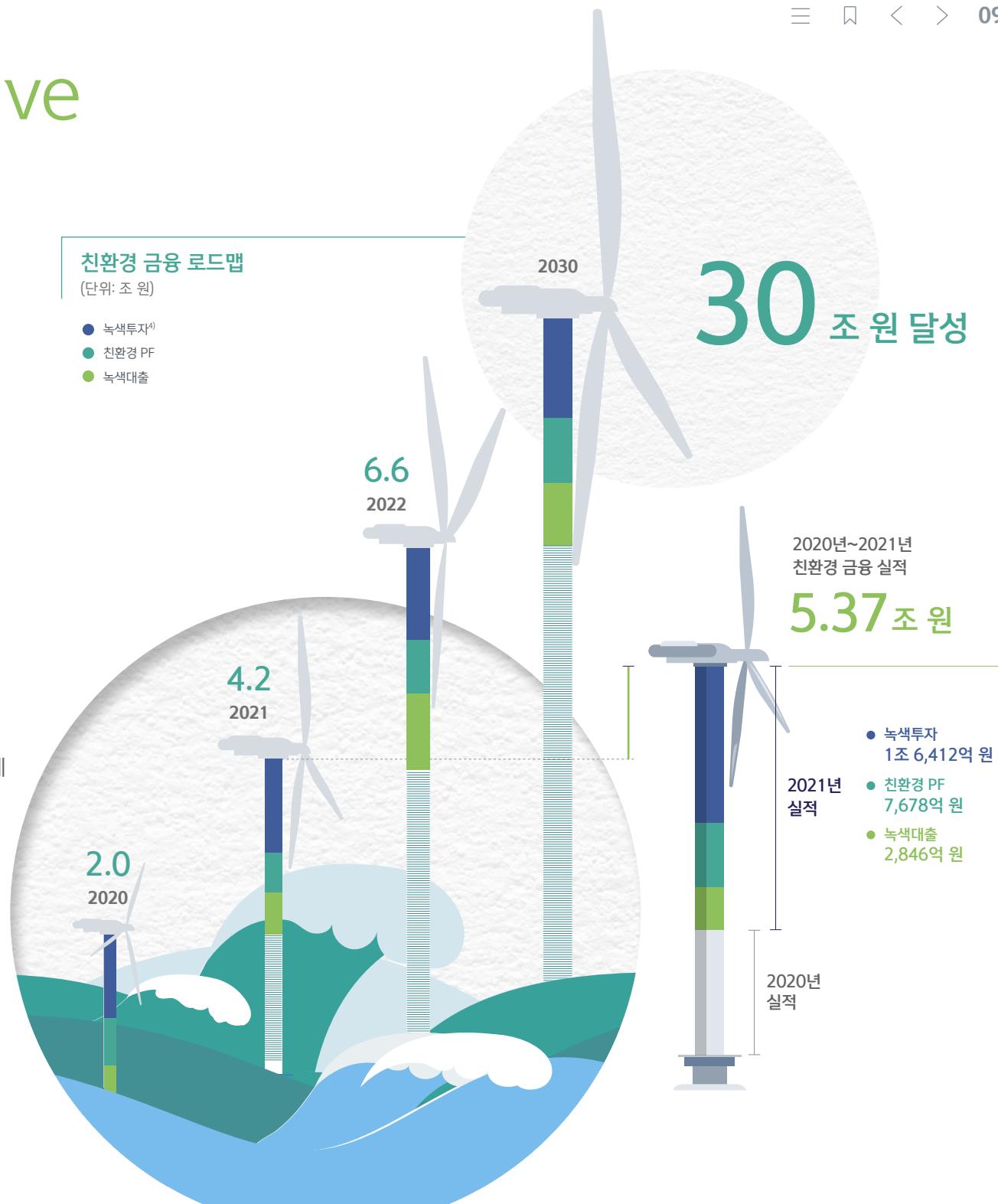
**Zero Carbon Drive는 친환경 성장 전략이자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동력입니다.** 신한은 금융으로 친환경 전환의 물꼬를 트고, 그 물길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 #Zero Carbon Dr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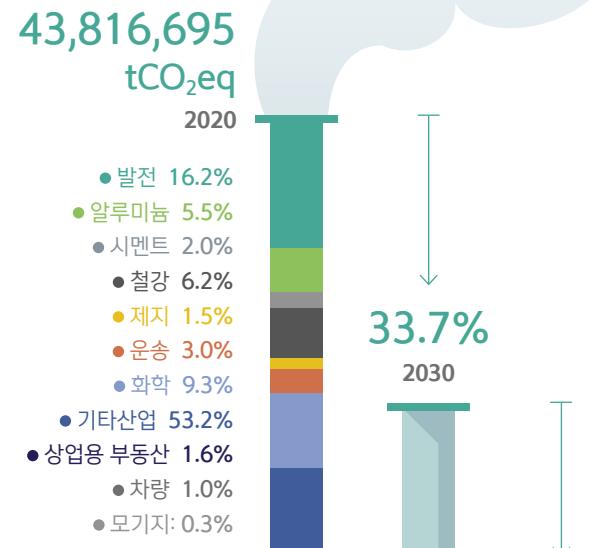
## 우리 경제의 친환경 전환에 속도를 높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은 2021년 친환경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SBTi<sup>1)</sup> 방법론을 활용해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세우며 자산 단소배출 관리체계 고도화에 힘썼습니다. 친환경 금융의 경우, 2.69조 원의 실적을 기록하며 2030년 친환경 금융 30조 원 달성을 향해 계획보다 빠른 속도로 나아갔으며, 2022년 2월 신한은행이 GGC<sup>2)</sup>와 협약을 맺고 그린 파이낸싱을 확대함에 따라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Zero Carbon Drive는 탄소중립을 위해 특정 기업 및 산업을 배제하기 보다는 고탄소 섹터가 저탄소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0년 10월, 신한자산운용은 국내 최초로 총 242개 투자대상 기업에게 TCFD<sup>3)</sup> 권고안 준수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338개 기업에게 발송하였고 146개사가 응답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신한의 노력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올해 'ESG 컨설팅 Cell'을 신설하여 중소·중견 기업에게 ESG노하우를 전파할 예정이며, 이러한 노력은 투자기업의 ESG 참여와 기업고객의 친환경 전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 금융배출량 관리



신한금융그룹은 보다 체계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배출 관리를 위해 PCAF<sup>1)</sup>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탄소배출량(금융배출량)을 측정하였으며, 측정업체의 범위를 기존 1,042개에서 86,300개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측정된 금융배출량을 각 그룹사가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도록 '금융배출량 산출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대출 및 투자 잔액에 대한 금융배출량 산출하여 모니터링함은 물론, 신규 대출 및 투자 시 기업의 금융배출량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는 시스템 개발을 통해 Zero Carbon Drive 달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탄소중립은 실행의 첫 바퀴를 돌릴 때에는  
큰 힘이 들지만, 여렷의 힘이 합해진다면  
빠른 시일 내에 달성을 수 있습니다.**

신한은 Zero Carbon Drive를 끊김없이  
추진하며 우리 경제의 저탄소 경제 가속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Net Zero 달성**

<sup>1)</sup>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탄소회계 금융협회)

## 기업의 지속가능한 ESG 가치에 투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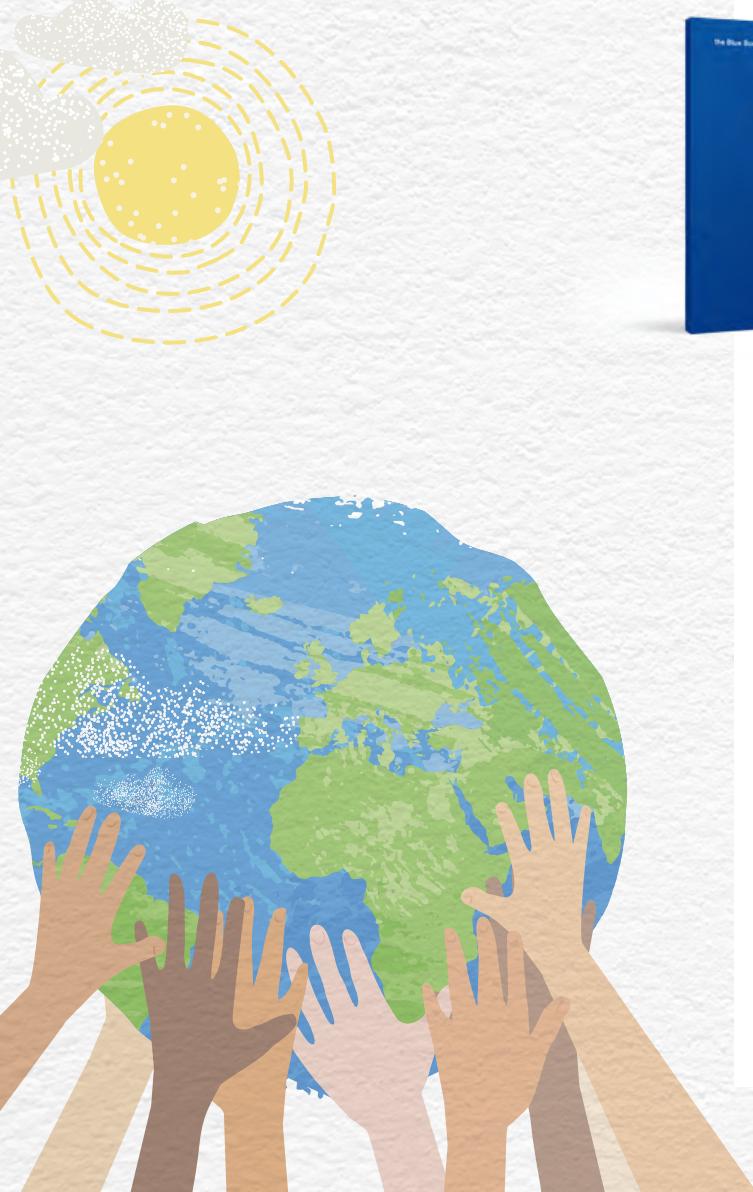
기업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ESG 요소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투자기관과 투자자들 또한 ESG 경영을 기업 평가의 핵심 지표로 삼고 있는데, ESG를 활용한 투자전략은 크게 스크리닝(Screening), 테마(Thematic), 통합(Integration) 전략으로 구분됩니다.

신한금융그룹은 ESG 평가체계 고도화를 위해 2021년, 그룹 차원의 '그룹 ESG 통합 리스크관리체계 구축 프로젝트'를 론칭하였습니다. 기존의 기업 신용등급과 별도로 기업의 ESG 수준을 평가하는 '신한 ESG등급'을 개발하였고, 우량 등급의 기업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Positive Screening' 심사전략부터 활용하기 시작하여, 심사전략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기업의 ESG 평가모형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신한 고유의 차별화된 기업평가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ESG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ESG라는 큰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합니다.  
변화의 중심에서 신한은 금융의 바른 길을  
제시하고 바른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 #Engagement



## 기업고객의 ESG 경영 지원

그룹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적극적 '관여'와 함께 기업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한의 각 그룹사들은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활용하여 기업들이 걸어갈 ESG Way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길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2021년 4월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고객 및 그 협력사를 대상으로 일반대출 대비 연 0.2%~0.3%의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ESG 우수 상생지원대출'을 출시했습니다. 같은 달, 신한금융투자는 MSCI, S&P 등 8개 평가기관의 데이터를 취합해 국내 기업에 대한 ESG 컨센서스를 산출하여 '뉴 패러다임 ESG'를 발간하고, 60개 기업에 대한 ESG 분석자료를 제공했습니다.

## 개인고객의 친환경 금융생활 독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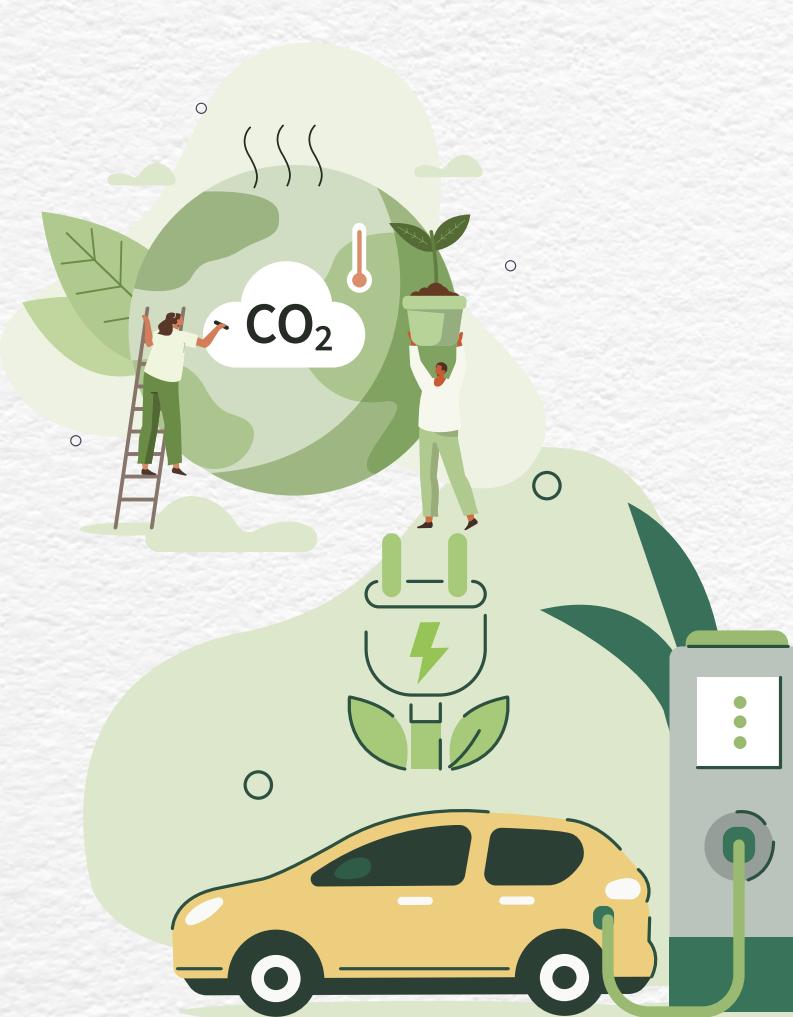
그 누구도 기후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류 공동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 신한금융그룹은 금융 소비자들이 생활 속에서 ESG를 실천하며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통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도'<sup>1)</sup> 자금관리 전담은행으로 선정된 신한은행은 2021년 12월, 고객이 상품에 가입하면 환경단체에 특정 금액이 기부되는 '아름다운 용기 예·적금' 상품을 선보였으며, 신한카드는 국내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친환경 소재 플레이트를 도입해 고객의 친환경 금융생활을 지원했습니다. 신한자산운용은 2005년 업계 최초로 SRI(사회책임투자) 상품인 '아름다운SRI그린뉴딜펀드'를 출시한 이후, 2021년 말 기준 ESG 전용 펀드 62개, 약 3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며 ESG 투자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sup>1)</sup>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사용하는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서 202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



# #Zero



열심히 응원하며 함께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모두 지구력 키우기  
핫팅!!

일상에서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제로 카본  
방법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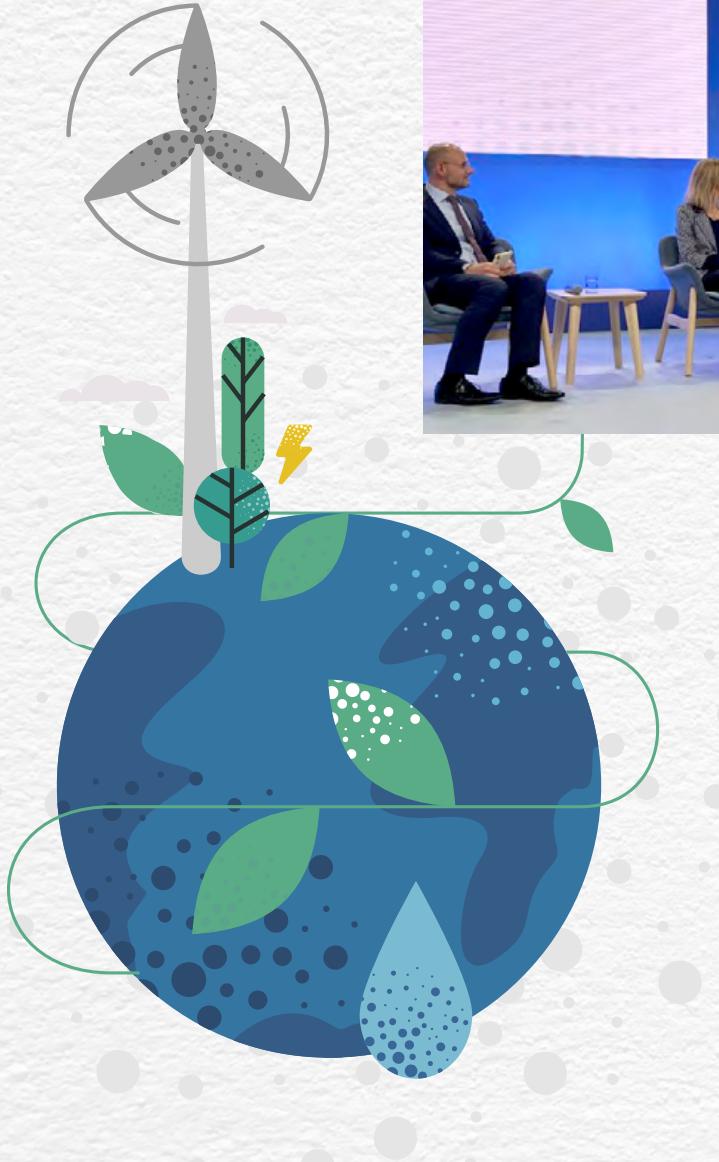
##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과 흡수량을 높이려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한은 그룹 차원에서 추진 중인 Zero Carbon Drive 전략에 따라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량을 높이는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그룹의 업무용 차량 총 62,843대 모두를 2030년까지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선언하였고, 지구의 날 51주년을 맞아 전국 소동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한편 종이통장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신한은행 '나무통장' 캠페인 등 고객과 함께하는 친환경 활동을 통해 'Zero Paper'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 시민들에게 아직까지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ESG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그룹 브랜드 채널 '기발한 프로덕션'<sup>1)</sup>을 '제로 웨이스트, 제로 카본, 제로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등 4가지 친환경 테마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지구를 위한 힘, 즉 '지구력'을 함께 키워보자는 콘셉트로 운영하였습니다. 임직원들 또한 지구력 키우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신한금융그룹은 평화의숲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남산 일원에 '지구력 키우기 숲'을 조성할 것을 약속했고, 숲은 신한 임직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푸르게 지어질 것입니다.

<sup>1)</sup> 기발한 프로덕션: '대한민국의 기회를 발견하는 프로덕션'을 줄여 이름 붙인 신한금융그룹의 디지털 광고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그룹의 ESG 활동을 보다 친근하고 재미있게 전달함은 물론 모든 세대와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중심으로 운영 중

# #Global



## COP26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

2021년 11월, 신한금융그룹은 아시아 민간금융사 대표로 영국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2021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에 초청받아 Zero Carbon Drive를 소개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역할에 대해 피력하고, 글로벌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COP26 이후 12월 UNEP FI는 글로벌 금융사들이 환경 이슈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리더십위원회’를 신설했으며, 신한 조용병 회장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멤버로 선출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UNEP FI 글로벌운영위원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로, 2021년에는 리더십위원회 멤버로 선정되며 신한 ESG 경영의 눈높이가 글로벌에 맞춰져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신한은 전략 수립에서부터 목표 설정, 추진과 점검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Plan-Do-See<sup>1)</sup> 접근으로 관리하며 ESG 경영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한금융그룹 기후변화 대응 ‘Plan-Do-See’ Framework



<sup>1)</sup> Plan-Do-See: 사업의 계획(Plan)을 세우고, 실행(Do)하며, 점검하는(See) 일련 과정

보다 자세한 내용은 Special Report의  
'ESG 이니셔티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O THE GREEN THING  
WITH  
SHINHAN

멋진 세상을 위한  
글로벌 협력,  
신한이 함께 합니다

고석현 상무  
신한금융그룹 CSSO  
UNEP FI 글로벌운영위원회  
아시아태평양 뱅킹 부문 대표



**Q** 탄소중립(Net-Zero)을 위한 글로벌 노력에 신한은 어떻게 동참하고 있습니까?

**A** 다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가입하면서 구체적인 협력사례를 국제사회에서 꾸준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COP26을 위해 2021년 UNEP FI<sup>1)</sup> 주도하에 설립된 탄소중립 은행 연합(NZBA: Net-Zero Banking Alliance)에 신한은 창립 서명기관으로 참여하였고, 탄소중립 보험 연합(NZIA: Net-Zero Insurance Alliance)과 탄소중립 자산운용 이니셔티브(NZAMI: Net-Zero Asset Management Initiative)에 국내 최초로 가입하면서 탄소중립 체계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Q** 탄소중립(Net-Zero)을 위한 신한의 현재와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A**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해 ESG 경영에 대한 기준은 아직 글로벌 스탠다드를 정립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선진국뿐 아니라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Zero Carbon Drive입니다. 동아시아 금융사 최초로 탄소중립을 선언한 신한의 Zero Carbon Drive는 탄소중립은행연합(NZBA)의 가이드라인과 거의 동일해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신한은 또한, UNEP FI 글로벌운영위원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이며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리더십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UNEP FI가 추진하는 금융사 간의 탄소중립(Net-Zero) 연합의 중심에서, 신한의 주요 글로벌 진출 지역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여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up>1)</sup> UNEP FI(UN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유엔 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 UNEP와 금융 부문 간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2022년 3월 기준 전 세계 약 470여개 금융기관들이 ESG 강화를 목표로 자발적으로 참여. 글로벌운영위원회(Global Steering Committee) UNEP FI 전략, 사업계획 등 의사결정하는 기구이며, 리더십위원회(Leadership Committee)는 UN과의 공식 최고위 협의회



# DO THE BRAVE THING

용감한 한 걸음이 혁신의 씨앗을 틔웁니다.  
세상에 없던 아이디어가 미래 산업의 생태계를 만듭니다.  
금융은 세상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 이들의 성장에  
토양과 양분을 제공합니다.  
도전하는 이들이 혁신성장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유니콘의 글로벌 도전에  
신한이 함께 합니다.





용감한 도전으로  
힘차게 날아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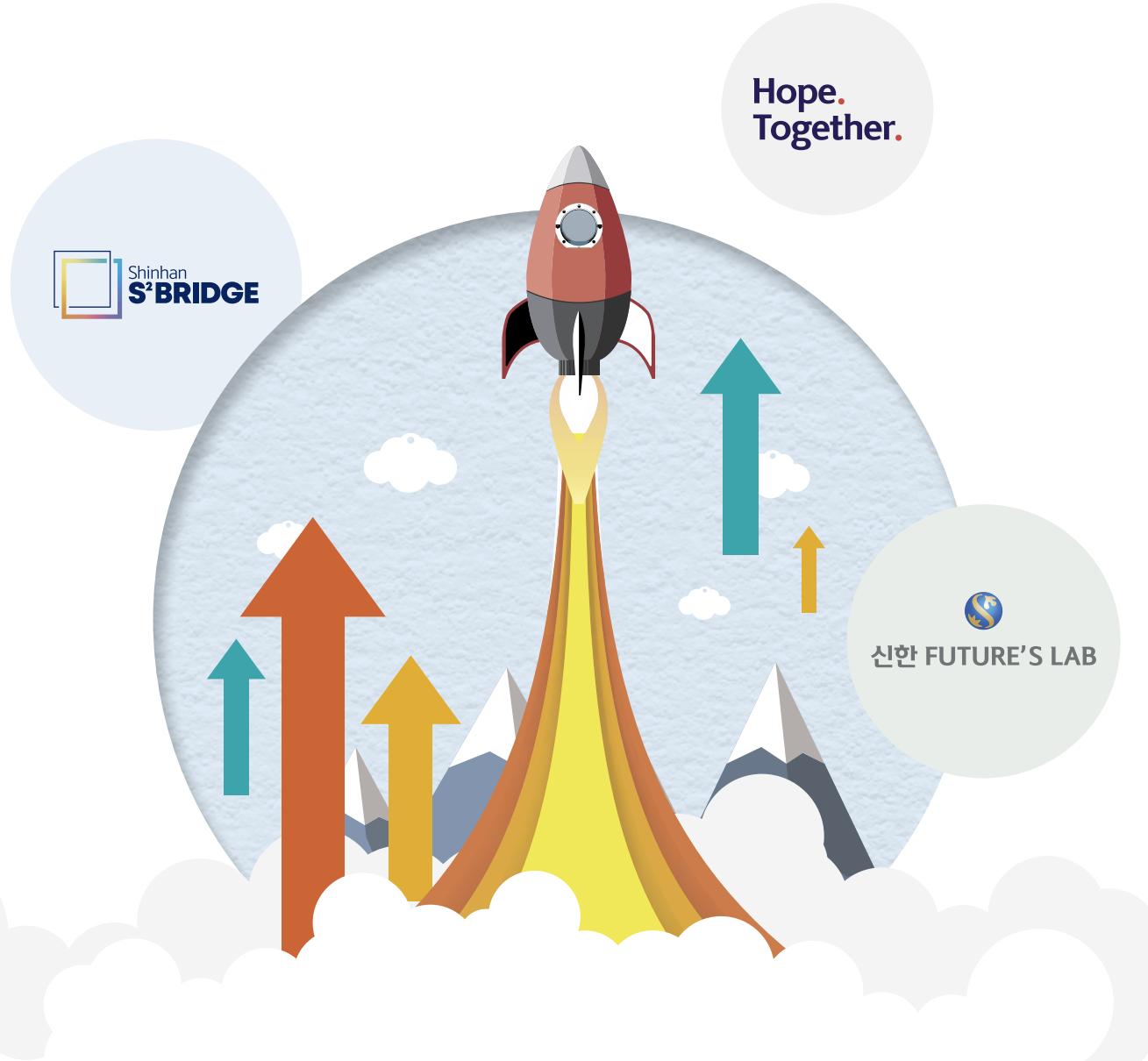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디지털 기술이 선형적인 발전에 의지해 온 아날로그 산업을 추월하는 '디지털 골든 크로스'가 많은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확산은 그 속도를 더욱 빨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전통적인 산업의 지형이 완전히 바뀌는 상황에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익숙함에 도전하며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스타트업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2021년 말 기준, 세계 시가총액 3대 기업 모두가 디지털 기반의 '테크 자이언트'이며, 그들의 출발은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스타트업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신한도 항상 혁신하고 도전합니다. 금융에 ESG를 더해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이끌 혁신기업의 용감한 도전이 멈추지 않도록, 꿈 있는 스타트업이 꿈 같은 유니콘으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며 그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겠습니다.



UN SDGs

# 혁신기업의 시작과 도약, 그 도전에 함께 하다



신한금융그룹은 우리 사회의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서, 아울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따뜻한 금융의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신한은 금융 부문의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그룹의 중장기 사업인 'Triple-K Project'를 통해 혁신성장의 판을 키우고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Korea Cross-Country Plan', 'Korea to Global Plan', 'K-Unicorn Project'를 3개의 축으로 하는 Triple-K Project는 전국에 걸쳐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스타트업을 육성하며, 대한민국 스타트업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1년 말 기준, 국내외 282개 신한 퓨처스랩 동문기업과 서울·인천·제주 지역의 328개 신한 스퀘어브릿지 멤버사가 미래 혁신 성장을 이끌 유니콘 기업을 꿈꾸며 신한과 함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장의 룰을 깨는 과감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제안하며 시장에 뛰어든 스타트업의 첫 출발부터, 한계와 장벽을 헰고 국내 정상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그리고 글로벌을 무대로 도약하는 과정까지, 이들이 그리는 성장 곡선의 배경에는 신한금융그룹과의 유기적인 협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 #Triple-K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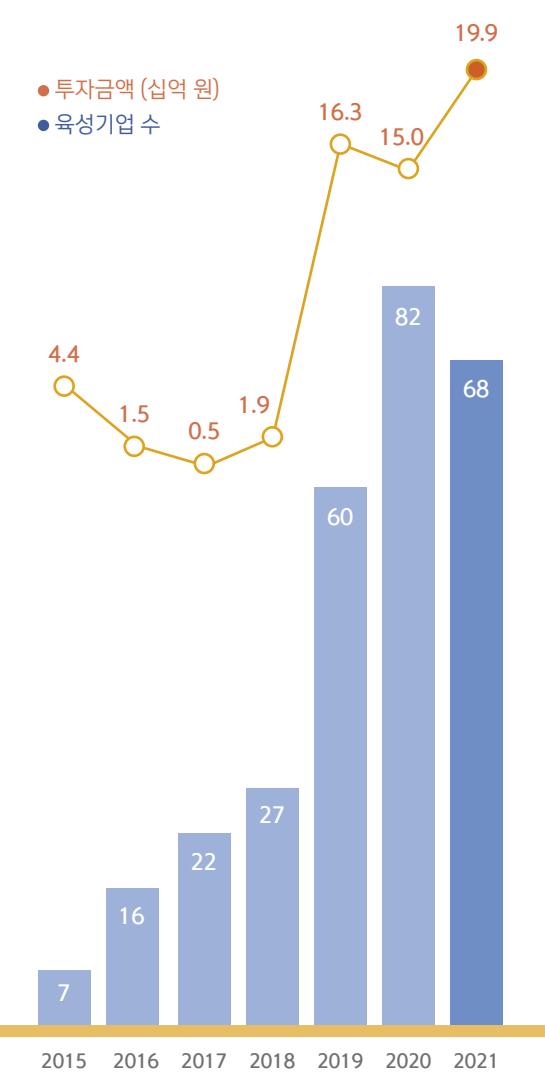
## 혁신기업과 함께 상생 생태계를 확장합니다

신한은 국내 금융권 최초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신한 퓨처스랩'을 통해 스타트업과의 상생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신한 퓨처스랩은 2015년 1기 출범 이후, 2021년 7기까지, 총 282개 기업을 선발해 육성했고 선발기업을 대상으로 595억 원의 투자를 집행했습니다. 신한 퓨처스랩 동문기업의 가치가 2,000억 원이 넘어서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아기유니콘 200 프로젝트'에 신한 퓨처스랩이 육성한 스타트업 10개사가 선발되는 기록을 세우며, 신한 퓨처스랩은 국내 스타트업 대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1년 신한 퓨처스랩과 함께 한 68개의 스타트업은 핀테크, 콘텐츠, 빅데이터 뿐만 아니라 신한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ESG, 메타버스,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앞선 기술력을 지닌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한은 이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보다 새롭고 편리한 금융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여, 기술과 금융이 함께 만들어가는 상생의 모델을 완성하겠습니다.

2021년 신한은 국내 금융사 최초로 3,000억 규모의 전략적 투자(SI) 펀드를 조성해 디지털 신기술 기업에 투자하며 생태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SI 펀드를 조성한 첫 해인 2021년에는 자율주행기술 기업, 스타일 e커머스, 메타버스 IP(지식재산권) 기업 등 총 11개 기업에 1,73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22년 신한은 2차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며, 이를 기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혁신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신한 퓨처스랩 육성기업 및 투자 현황



2021 신한 퓨처스랩 7기 데모데이  
'Sustainable & Make It Better'



## 혁신성장 플랫폼으로 혁신기업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신한은 전국 단위 혁신성장 플랫폼인 '신한 스퀘어브릿지(S<sup>2</sup> Bridge)'를 통해 혁신금융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1기 출범 이후 '신한 스퀘어브릿지 : 인천'은 총 104개의 디지털·헬스케어·스마트시티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시작과 스케일업, 그리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였고, 그에 힘입어 선발기업의 50%에 달하는 51개사가 총 705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으며, 선발 시점 대비 기업가치는 평균 66%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1년 4월,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sup>1)</sup>와 스마트시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공동 운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혁신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글로벌 무대로 진출하는 데 있어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신한 스퀘어브릿지 : 제주'는 제주지역의 환경·자원·농업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2021년 6월 첫 출발을 알렸으며, 1기로 최종 선발된 5개사를 중심으로 ESG 관련 사업을 운영하며 제주지역 경제를 위한 고부가 가치, 나아가 모두를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 주요 거점에 신한 스퀘어브릿지를 조성하여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아울러, 2021년 신한은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한 스퀘어브릿지 유스' 사업을 론칭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신한 커리어온 (Career On)'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5월 우수한 인재를 찾는 스타트업 70개사와 실무경험을 원하는 특성화고 학생 300여 명을 신한 커리어온 1기로 선발하고, 스타트업에게는 인재 매칭 솔루션을, 학생들에게는 취업역량 교육과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스타트업의 구인난과 청년 취업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일조하였습니다.

### 신한 스퀘어브릿지 현황

- 중점 영역
- 육성 성과

**인천**

-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 스타트업 **104개사** 육성  
(2개사 아기유니콘 선정)

**YOUTH**

- 스타트업 인재 육성
- 신한 커리어온 참여학생 **300명**

**광주<sup>2)</sup>**

- 환경, 신재생

**베트남**

- 글로벌 진출 지원
- 소셜 스타트업 **6개사**, **220명** 교육/취업 연계



<sup>1)</sup>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2011년 구글이 만든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125개 국가에서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하며 전 세계에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공동 업무 공간을 50개 이상 운영 중

<sup>2)</sup> 2022년 오픈 예정  
추진계획 중인 지역

# #Hope

## 희망으로 꿈에 도전하는 신한 Do Dream

자영업자를 포함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는 688만 8,435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며, 종사자는 전체의 82.7%에 달합니다.<sup>1)</sup> 포용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의 경영 개선과 경쟁력 제고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신한은행은 '성공 두드림 (Do Dream)'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영업자(SOHO)의 창업과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금융 지원은 물론 다양한 컨설팅 제공을 통해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에도 이러한 노력은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20-30대 자영업자의 창업 후 3년 이내 폐업 비중이 타 연령대 대비 높은 것을<sup>2)</sup> 감안하여 청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한 SOHO사관학교'를 진행하여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였으며, 맞춤형 강의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을 통해 경영에 있어서의 어려움 해결에 도움을 주고 청년 사장님들의 꿈을 응원하였습니다.

### 성공 두드림 프로그램

신한 SOHO 사관학교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	성공 두드림 세미나	신한 SOHO 성공지원센터
자영업자 소수정예 선발 후 8주간 심화 교육	법률, 세무, 상권분석 등 단과형식의 강의	금감원·지자체와 협업하여 지방고객 대상 찾아가는 특강	창업 자영업자 대상 맞춤형 지원 (컨설팅 및 멘토링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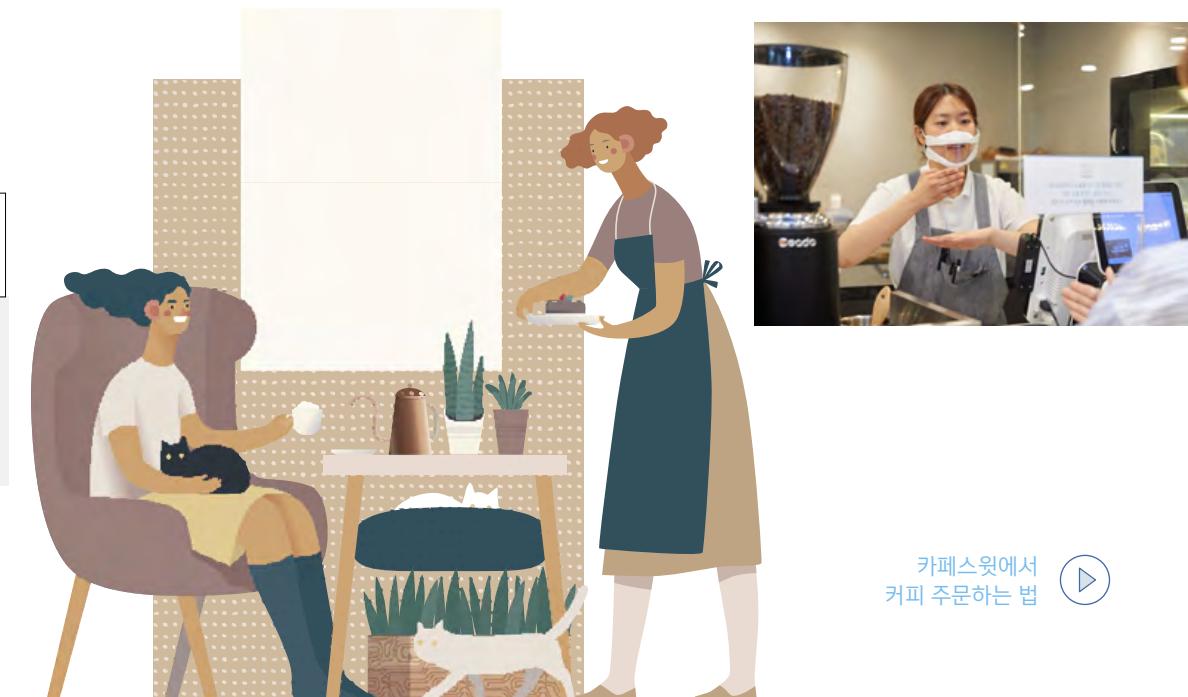
<sup>1)</sup>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

<sup>2)</sup>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sup>3)</sup> Start-up(기업 육성), Financial literacy(금융약자 지원), Group of community(지역사회 지원)

## 함께 나누며 모두가 잘 사는 희망사회 구축

신한은 'Hope Together SFG'<sup>3)</sup> 임팩트 과제 아래, 모든 그룹사가 참여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희망사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신한은 희망사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카페스윗(Café S with)' 2호점과 3호점을 오픈하며 장애에 관계없이 일하는 사회 만들기에 일조하였습니다. '신한(S)과 함께(with)'라는 의미의 '카페스윗'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카페입니다. 2020년 12월, 신한은행 본점에 1호점을 오픈하였고, 신한은 카페스윗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커피 원두를 지원해 왔으며, 임직원들의 착한 소비로 발생한 수익금은 청각장애인 바리스타 교육과 일자리 지원에 투자되어 청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2021년 카페스윗 2호점과 3호점 오픈으로 이제 일반 시민들도 착한 소비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꿈을 응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DO THE BRAVE THING  
WITH  
SHINHAN

멋진 미래를 위한  
반가운 변화,  
신한과 함께 힘을 모으다



해녀의 부엌 대표 김하원



2021년 '신한 스퀘어브릿지 : 인천'과 '신한 스퀘어브릿지 : 제주'에 이름을 올린 쉐코와 해녀의부엌의 목표는 같습니다. 하나뿐인 바다를 지키는 것! 방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풀어야 할 숙제도 다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신한 스퀘어브릿지에서 공공·민간 섹터가 그들과 함께 자원과 전문성을 모아 함께 답을 찾아갈 것이니까요.

**신한과 함께 더 푸른 미래를 향한 항해에  
속도를 높이는 두 혁신기업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 제주를 담은 공연과 이야기, 식사가 있는 '해녀의 부엌'

어머니로부터 제주 해녀가 길어 올린 해산물이 제 값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톳의 경우에는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 해녀들이 더 이상 톳을 채취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셨어요. 그런데 채취를 해줘야 거기서 다시 자라나는데 방치되면 생산량이 줄고, 그러면 바다는 더 이상 자연산 톳이 날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고 맙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나 해녀 이모들과 함께 자랐어요. 우리 가족의 터전인 제주 바다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해녀의 부엌'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신한 스퀘어브릿지 : 제주에 선정된 이후, 지난 6개월 간 협력 어촌계를 확장하여 해녀의 해산물 수매 규모를 키우고 생산 공정에 필요한 포장설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고, 제주의 이야기를 담은 톳상웨방 편딩을 진행해 한 달 만에 4,000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낼 수 있었어요. 앞으로 도외 파트너사와 협력하여 해녀의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식품을 출시하고자 합니다. 사업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후속 지원도 기대합니다.



쉐코 대표 권기성

### 친환경 라이프트렌드 세터를 지향하는 소셜벤처 '쉐코'

바다는 넓고, 늘 그 자리에 있어왔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게는 관리와 보호의 대상으로 잘 여겨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다의 소중함과 해양오염의 위급성을 알리고, 우리가 만든 기술로 미래세대와 청정바다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해양 기름유출 사고 현장의 완전한 자동화를 통해 환경과 사람 모두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러한 신념으로 2019년 쉐코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없었던 기술과 생소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만큼 사람들에게 기업과 제품의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알리는 일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한 스퀘어브릿지 : 인천 엑셀러레이팅 멤버십에 선발되며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쉐코의 기술력과 비전을 알릴 수 있게 되어 큰 고민거리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2021년 12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의 1차 실증 기회가 주어졌으며, 이를 통해 제품 개발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었고, 고도화된 로봇을 활용한 2차 실증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인천 해역을 시작으로, 세계 각지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데는 프로젝트의 지속성과 협업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한 퓨처스랩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육성은 물론, 스타트업의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그들이 그리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함께 실현해 내고 있습니다.

## 디지털 전환의 시대, 신한과 함께 금융산업의 지형도를 바꾸기 위해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는 두 혁신기업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자이냅스 대표 주동원

### 건강한 투자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NO.1 로보어드바이저 '파운트'

2015년에 설립된 파운트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로보어드바이저 스타트업입니다. 수많은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들이 등장하고 사라지는 가운데, 파운트는 인공지능(AI) 투자 관리자산 규모 국내 1위로 성장하였고, 이러한 성장 스토리는 신한금융그룹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파운트 대표 김영빈

사실 파운트는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에서 후발주자에 속합니다. 초기에는 자본금도 많이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 사업을 진행하며 막막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 신한 퓨처스랩에 선정되어, 같은 해 12월 신한카드와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하는 등 신한금융그룹 그룹사들과의 협업 기회가 생기며 갈증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신한금융투자와 손잡고 파운트 앱을 출시하면서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었습니다. 신한 퓨처스랩을 통해 맺은 신한금융그룹과의 지속적인 협력 기회는 파운트의 성장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파운트가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만들어가는 뉴노멀 시대의 금융이 벌써부터 금융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신한과 함께 혁신적인 미래를 펼쳐 나가길 기대합니다.

### 가치 있는 AI 서비스로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자이냅스'

막연하고 어려운 기술이 아닌, 일상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물론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희 자이냅스처럼 전문 분야에서 특화된 기술력을 지닌 기업들은 창업 초기에 잠재고객에게 아이템을 이해시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추진 예정이었던 협업 프로젝트나 투자가 무기한 연기 또는 취소됐으니까요. 그렇지만 위축되기보다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신한 퓨처스랩에 선정되는 경사가 찾아왔습니다.

신한과의 협업은 매우 빠르고 구체적입니다. 지난 9월 신한은행과 디지털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 바로 다음 달인 10월, 자이냅스의 AI 기반 음성합성 기술을 활용한 신개념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달 신한금융그룹으로부터 30억 원에 달하는 전략적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더 나은 금융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신한과 더욱 긴밀하게 협업하여 금융 라이프를 혁신하겠습니다.





# DO THE FAIR THING

공정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신한은 그 답을 내부에서부터 확인합니다.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일터에서 구성원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성과 포용의 신한 기업문화가  
모두를 위한 포용금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한이 내부에서부터 먼저 변화합니다.





모두의 목소리를  
더 크게 키우다

ESG 경영이 주목받음에 따라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연구를 통해 다양하고 포용적인 조직문화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동력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조직일수록 더 다양한 소비자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변화하는 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McKinsey Global Institute)에 의하면 인종적·성별 다양성이 높은 상위 25%의 기업들이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들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28% 높다고 합니다<sup>1)</sup>.

신한금융그룹은 성별, 또는 다른 무엇 때문에도 능력이 가려지거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구성원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신한의 조직문화는 모두를 위한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으로 발현됩니다. 다양한 생각이 공존하고 다름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신한이 금융에 ESG를 더합니다.

<sup>1)</sup> Diversity Wins (2020.05)



UN SDGs

#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문화를 만들다

신한금융그룹은 다양성을 그룹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리더 육성 프로그램인 '신한 쉬어로즈 (SHeroes)' 운영, 다양성과 포용 원칙 제정, 가족친화적 복지 제도 강화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신한 쉬어로즈는 2018년 신한이 국내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여성 리더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대상 지역 및 직급, 선발 규모를 확대하며 여성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잡았고, '신한의 여성 영웅들'이라는 의미를 이름에 담고 있는 만큼 신한의 바른 성장을 이끌며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신한금융그룹은 글로벌 금융정보기관 블룸버그가 선정하는 '2022 블룸버그 양성평등 지수(GEI: Gender Equality Index)'에 이름을 올리며 4년 연속 GEI에 편입되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GEI는 블룸버그가 시가총액 10억 달러 이상인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리더십과 인재육성, 동일 임금과 양성 임금 동등성, 포용적 문화, 성차별 정책, 여성 친화적 브랜드 등 5개 부문을 평가해 선정하는 글로벌 지수입니다.



# #SHero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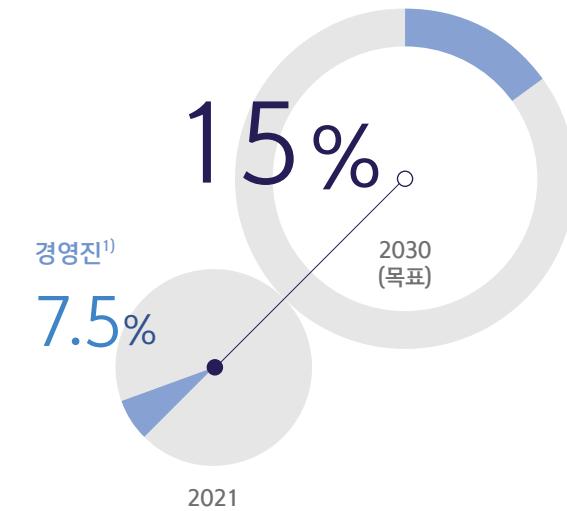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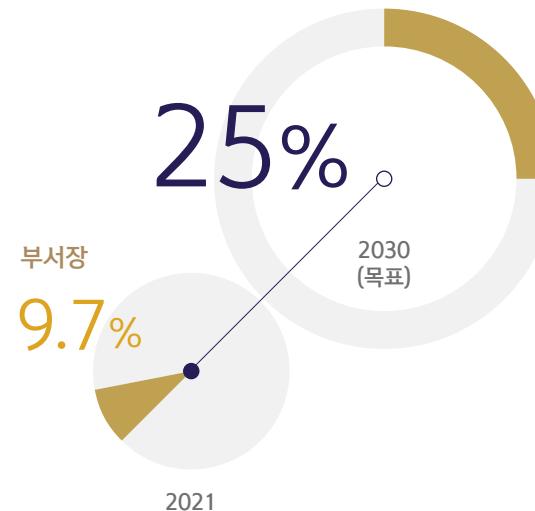
## 여성 리더와 함께 새로운 성장을 도모합니다

2021년 신한금융그룹은 '신한 쉬어로즈'를 통해 44명의 여성 리더를 추가로 선정하고, 여성 인재들이 보다 강하고 현명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펼치는 '그룹 멘토링', 개인별 강점을 진단하여 이를 기반으로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맞춤형 코칭' 등을 제공하였으며, '그룹 CEO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설해 조용병 회장과 신한 쉬어로즈 멤버들이 토론을 통해 집단지성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선발된 1기부터 2021년 4기까지, 신한 쉬어로즈를 통해 14개 그룹사에서 총 187명의 여성 리더를 육성하였으며 이들 중 20명의 경영진<sup>1)</sup>을 배출하였고, 2021년 신한 쉬어로즈 1기 멤버인 조경선 사장이 그룹 최초의 여성 대표이사로 발탁되며 그룹 내 여성임원 배출의 등용문 역할을 톡톡히 해 냈습니다. 아울러 2021년 8월 개최된 ESG 전략위원회에서 여성 리더 육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여성 인력의 질적·양적 성장을 그룹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 리더 비율 및 목표



\* 7개 그룹사(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기준

<sup>1)</sup> 임원 및 본부장

보다 자세한 내용은 Special Report의  
'다양성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Diversity

##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신한의 약속

2021년 8월 개최된 ESG 전략위원회에서 신한은 그룹 미션인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뒷받침하는 가치로 '다양성과 포용 – 신한금융그룹의 약속'을 제정하여 공표하였습니다. 신한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다양성의 영역은 '사내 차별이슈 해소, 다양성과 비즈니스의 연계, 사회적 책임' 3가지로 구분됩니다. 가장 먼저 신한인의 일터에서 성별로 인한 차별을 철저히 제거하기 위해 여성 리더 육성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문화 확산에 더욱 힘쓸 것이며, 다양성의 가치를 비즈니스에 투영하여 조직 구성원의 다양한 관점과 역량이 금융 솔루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포용금융을 확대하여 사회 소외계층을 더욱 세심하게 돌볼 것입니다.

## 모든 세대를 위한 기업문화 혁신

2021년 신한금융그룹은 보다 나은 방향으로의 신한문화를 재창조하기 위해 'RE:Boot(리부트) 신한' 프로젝트'를 론칭하였습니다. 재가동을 뜻하는 '리부트'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처럼 리부트 신한 프로젝트는 신한문화 중 낡은 것은 과감히 버리고(Delete), 전에 없던 속도의 변화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은 재적재(Reload)하는 혁신을 의미합니다.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서는 어느 한 세대가 아닌 조직 내 여러 세대의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한은 리부트 신한 프로젝트를 통해 자유롭고 혁신적인 조직으로 완전히 변화하기 위해, 그리고 이러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기존 금융의 틀을 넘어 새롭게 재가동할 수 있도록, 세대와 직급을 넘어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 젊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고무적입니다. 20~30대 직원들은 조직문화 자문단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기성세대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금 살펴봄으로써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 RE:BOOT!

 An illustration of a person in a light blue shirt and dark blue pants standing next to a large pencil-shaped notepad. The notepad has a white paper-like texture and a blue border. At the top right of the notepad is a yellow circle containing a black checkmark. The title "多样性과 포용 신한금융그룹의 약속" is written in blue at the top of the notepad. Below the title, there is a paragraph of text in Korean. To the right of the notepad, there is a vertical column of five numbered points, each starting with a small blue dot. The background features a large, light-colored circular graphic.
 

多样性과 포용  
신한금융그룹의 약속

신한금융그룹은 사람과 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직원과 고객, 사회구성원 모두를 소중히 여기고 포용합니다. 다양성과 포용은 우리의 미션인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뒷받침하는 핵심가치입니다.

우리는 모든 업무에서 젠더, 장애, 국적, 학연, 지역, 종교, 성적지향 등 개인적 특성, 배경, 정체성 또는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편견을 갖거나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 직원의 채용과 인사관리에 있어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합니다.
- 이사회와 경영진의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우선적으로 젠더 다양성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개성을 존중 받으며 일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포용적 문화를 조성합니다.
- 고객을 비롯한 모든 비즈니스 상대방의 개별적 정체성을 존중하고 동등하게 대우합니다.
-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여 공동체 일원으로 희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 #Trust

## 모두를 위한 금융교육

2022년 1월, 신한금융그룹 통합 금융교육 플랫폼 '신한이지(easy)'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라이프, 신한금융희망재단 등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금융교육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담아낸 신한이지는 장애인 등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금융 이해력을 높이고, 건강한 금융 소비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 만들어진 신개념 금융교육 플랫폼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부터 성년, 중장년, 실버세대 등 모든 세대를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AR·VR·모션게임 등 다양한 디지털 교육 콘텐츠도 개발해 모든 사람들이 더 쉽고 편안하게, 새로운 금융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신한 이지 



## 모두를 위한 금융안전

신한금융그룹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의 개인정보와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도로교통공단과 '보이스피싱 예방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화금융사기 근절 및 서민경제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청과 '전화금융사기 등 민생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등 범죄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와 피의자를 검거한 경찰관과 전화금융사기 범행 의심자를 신고한 시민 등을 '서민경제 수호 영웅'으로 선정해 포상하였습니다.

## 모두가 안심하는 경영시스템

2021년 12월, 신한금융지주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을 동시에 획득하며 신한 윤리·준법 경영이 글로벌 수준임을 입증하였습니다. ISO 37301은 조직의 준법정책 및 리스크 대응체계가 글로벌 수준에 부합함을 인증하는 제도이며, ISO 37001은 효과적으로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을 갖춘 조직에게 수여되는 국제표준 인증입니다. 두 가지 인증을 모두 획득함으로써 신한은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고객과의 신뢰관계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DO THE FAIR THING  
WITH  
SHINHAN

바른 성장을 위한  
존중과 포용,  
신한과 함께 기준을  
세워 봅시다

조경선 사장  
신한DS CEO  
신한 쉬어로즈(SHeroes) 1기



**Q** 다양성의 의미와 중요성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다양성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러 사람들 각자의 강점과 기여를 통해 더 나은 차이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기업에서는 구성원들이 서로의 차별적 존재를 인정하면서, 각자가 지닌 잠재력을 연결할 때 남다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잘할 수 있는 일과 남성이 잘할 수 있는 일을 나눠서 해야 한다는 기존의 원칙을 내려 놓고, 이제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씨실과 날실로 된 조직(組織)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을 조직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Q** 신한이 걸어온 양성평등의 길,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A** 저는 신한은행의 첫번째 신입사원인 1983년의 공채1기 출신입니다. 제가 CEO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신한의 양성평등 문화와 제도의 결과가 아닐까요? 사실 신한은 태생부터 다양성으로 이루어진 조직입니다. 1982년 신한은행 설립 당시 기존 시중은행에 다양한 조직에서 온 여러 직급의 사람들이 창립멤버로 합류한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순혈주의가 없고 각자 출신기업에서 쌓은 경험과 강점을 발휘하며 활발하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한을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조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각자가 잘하는 부분을 끌어내고 연결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성과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한의 다양성 문화라는 토양에서 잘 자라난 씨앗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초연계시대에서도 소통과 협업의 다양성 문화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시스템과 제도를 고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은 다양한 직무군에서 여성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육성하고 있어, 여성 인재들이 비즈니스에 대한 전략적·재무적 통찰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 ESG PROMISE

## ESG로 완성되는 세상을 그리다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달라질 수 없는 목표입니다.  
마음을 모으고 고민을 나누고 실천을 더해야 다다를 수 있는 미래입니다.

ESG로 완성되는 내일을 위해 신한금융그룹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금융이 제 역할을 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0 CARBON**  
용감하게 도전하는 유니콘기업 10개와 먼저 동행하며 혁신의 판을 키울 것이며, **10 UNICORNS**  
더 공정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겠습니다. **100% SATISFACTION**  
바르고 빠르고 다르게 추진하는 신한 ESG가 금융의 영역을 넘어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때, 옳은 일로 가득한 멋진 세상은 현실이 됩니다.

금융의 힘으로 세상을 바르게, ESG 가치로 미래를 이롭게!  
멋진 세상은 올바른 실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WONDERFUL.**  
**WORLD** 10



## 2022 Plan

# 신한 ESG 바르게. 빠르게. 다르게

빠른 속도로 ESG가 대세로 자리잡음에 따라 신한 또한 빠른 발걸음으로 2022년을 시작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실천이 바른 곳을 보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신한인 한 명 한 명의 재능을 살려 남다른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2022년 신한금융그룹은 ESG 핵심 프로젝트를 명확하게 분류하고,

ESG 실행을 ‘바르게, 빠르게, 다르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 2022 신한 ESG 전략방향

#### 2022 신한 ESG 바.빠.다



##### 1 ESG 구동체계 강화

신한은 그동안 전략과 기획 중심으로 추진되던 ESG 경영의 범위를 투자 및 영업으로 넓히고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신한 고유의 매트릭스 조직 아래 '그린IB추진 Lab', 'ESG 글로벌 데스크' 등과 같은 특화조직을 구성하였고, 새로운 ESG전략지표를 기반으로 전략과제에 정량적 목표관리를 시작합니다.

##### 2 탄소중립 실행력 확보

탄소중립은 미래세대를 위해 미룰 수 없는 ESG 이슈이자 경제적으로도 파급효과가 큰 전 세계적 과제로서, 이제는 계획 단계에서 벗어나 실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신한은 ESG 평가기반 여신/투자 심사체계 및 내부모형 고도화, K-Taxonomy<sup>1)</sup> 기반의 친환경 금융 확대, 고객 인게이지먼트 기반 상쇄 기준 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 3 ESG투자 확대 및 ESG우수기업 포상

ESG 투자 라운드테이블, ESG 우수 기업 및 직원 포상 등을 통해 ESG 실행을 촉진하겠습니다.

##### 4 ESG 신규의제 발굴

인적자본 다양성과 같이 신한이 차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ESG 신규의제를 발굴하여 국내 ESG 경영을 선두에서 이끌겠습니다.

<sup>1)</sup> K-Taxonomy: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민간기업 활동의 저탄소 전환 확대를 위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범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

## Wonderful 2030

# 멋진 세상을 그리는 사람들

지금 우리는 ESG가 주류가 되는 전환점에 있습니다.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신한은 바르게 중심을 잡고,  
 빠르게 실행에 옮기며, 다르게 나아감으로써 당당하게 앞서 나아가겠습니다.  
 신한이 바르게, 빠르게, 다르게 ESG를 실행에 옮김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ESG 특화조직 임직원을 만나 보았습니다.

## 옳은 일로 가득한 멋진 세상, 어떻게 그리고 계시나요?



### 신한 ESG 특화조직

#### 그린IB추진 Lab

신한 Zero Carbon Drive  
달성을 목표  
달성 목적 투자

기후변화 대응/적응  
과정에서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사업 등에 대한 투자

신한금융그룹

1

#### ESG 글로벌 데스크

기후금융 관련 글로벌 사업  
협업 및 신규사업 발굴 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리서치,  
정책 대응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

2

### ESG 컨설팅 Cell

중소·중견 기업 대상  
ESG 참여 제안

기초 컨설팅(진단/평가)과  
심화 컨설팅(전략/이행)  
제공

신한은행

3

### ESG 신사업솔루션

대기업/공사 ESG 교육  
및 컨설팅, 탄소중립 위한  
인계이지먼트

해외 녹색/전환 금융  
리서치 및 상품 개발

신한은행

4

### ESG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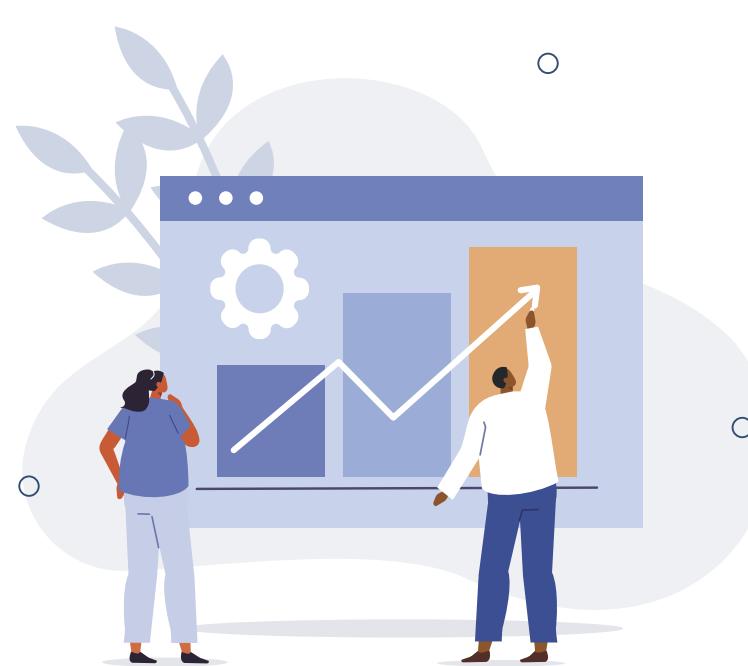
기업 및 운용사 대상  
ESG 데이터 및 동종업계  
우수사례 분석 기반  
컨설팅 및 가이드라인 제공

신한금융투자

5

**Q1. 속해 계신  
ESG특화조직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Q2.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  
그리고 신한 ESG가 가져올  
더 멋진 미래에 대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1

그린IB추진 Lab  
Lab장 박성흠



**A1.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그룹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및 온실가스배출권 확보가 가능한 사업 및 관련 기업,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과정에서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과 사업에 대한 투자를 담당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투자를 하기 위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리서치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A2. 올해는 신한금융그룹과 고객사의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투자를 본격적으로 실행할 계획입니다. '그린유니콘' 발굴을 통해 ESG 투자가 실질적인 수익으로 연결되는 투자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ESG 투자 자체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실현된다면, 신한 ESG는 지속가능한 미래, 지속가능한 신한금융그룹의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

ESG 글로벌 데스크  
부지점장 최지우



**A1. 영국 런던 ESG 글로벌 데스크에서 글로벌 투자·금융 기관들과 전략적 협업 기회를 모색하며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ESG 정보 및 동향 정보 리서치를 수행하며, 탄소배출권 투자, 전환 금융 등 다양한 기후금융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A2. ESG는 이제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넘어 산업과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큰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신한의 선도적인 ESG 드라이브가 신한의 주주, 임직원, 고객 모두에게 가슴 벅찬 도전이자 기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3**

ESG 컨설팅 Cell  
Cell장 이윤섭

**A1.** 중소·중견 기업 고객들이 ESG 경영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객사가 자발적으로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수립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월 신설되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업고객 인게이지먼트를 담당하는 것이 우리 조직의 주요 미션이라 할 수 있죠.

**A2.** 고객사 ESG 경영이 현재 어떤 수준인지에 대한 진단부터, 우리 기업에 특화된 ESG 경영목표 수립, 주요 관리지표와 추진과제 도출까지, 고객사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한 토탈케어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시중은행 최초로 시행하는 ESG컨설팅 서비스인 만큼 시장과 고객으로부터 “역시 신한이구나”라고 호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ESG 신사업솔루션  
수석 박은영

**A1.** 고탄소배출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에 속해 있는데, 신한은행 기업고객 중 이러한 고객사들이 중·저배출 기업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저는 좋은 ESG 금융상품을 보다 많이 공급하는 것, 이것이 지속가능금융을 추구하는 은행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A2.** 우리가 초행인 산에서도 가이드 리본을 보면 안심하게 되잖아요. 누군가 뒷사람을 생각하며 길목마다 묶어주던 정성을 떠올리며 쉬운 전환금융 매뉴얼과 프로세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언젠가는 제 뒤의 누군가가 더 좋은 길을 알려주는 리본을 계속 묶어 나가겠지요.

**5**

ESG 컨설팅  
수석연구원 이정빈

**A1.** 기관투자자 및 일반 기업에게 ESG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ESG에 대한 주요 이슈들을 업데이트하여 각 평가사들이 제공하는 컨센서스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월간보고서인 'ESG Navigator' 등 ESG 관련 정기 리포트를 발간하여 ESG와 관련된 분석 콘텐츠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A2.** 비재무지표인 ESG에 대하여 데이터 기반 구체적인 분석보고서 발간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신한금융투자가 2020년부터 발간해 온 'ESG 블루북'에 ESG와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을 심층적으로 반영하는 등 보다 계량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투자자와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 ESG INVITATION

## 신한의 모든 이해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그룹 회장 조용병입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화재, 가뭄, 홍수, 허리케인 등 기후 위기의 징조와  
자연재해의 심각성 또한 해를 거듭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향으로 전 세계 금융기관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국가에 이르기 까지  
ESG경영을 향한 의지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ESG에 대한 높은 관심은 지금보다 '더 멋진 세상'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열망이라 생각합니다.

2021년 신한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다짐하며  
'Do the Right Thing for a Wonderful World'라는  
(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  
그룹 ESG 슬로건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신한은 금융의 힘으로 환경,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 의지는 올 한 해 '올바른 실천'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모두 다 함께 만들어갈 ESG'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2년, 신한은 고객과 이해관계자의 더 많은 'ESG 경험'을 위해 실행 속도를 보다 높여 나갑니다.

**신한에게 있어 ESG는 하면 좋은 것(Good)이나,  
꼭 해야만 해서 하는 것(Must)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기업이라면 당연히 '하는 것(Mission)'입니다.**

신한의 모든 그룹사 주요 사업 추진 영역에 있어  
ESG의 원칙과 요소를 '**바르게**' 도입하고,  
친환경 전환 금융을 '**빠르게**' 추진하여,  
ESG에 있어 남들과는 '**다르게**' 비즈니스 성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저는 작년 10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UN기후변화 당사국총회 파이낸스 데이에 초청 받아  
신한의 탄소중립금융에 대해 소개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 금융 기관들과 직접 만나 기후변화를 비롯한  
ESG 산업 전반에 대해 논의하며,  
우리나라 기업도 ESG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금융의 역할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ESG '전환'과 '가속화'를 돋는데 있습니다.**

ESG로 향하는 길이 기업과 개인에게 있어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는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금융 지원과 투자뿐 아니라 컨설팅, 교육 등  
많은 부분에 있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한이 생각하는 '멋진 세상(Wonderful World)'에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행동하지 않는 것'의 선택지는 우리에게 없지만  
'함께 가야 한다'는 믿음은 더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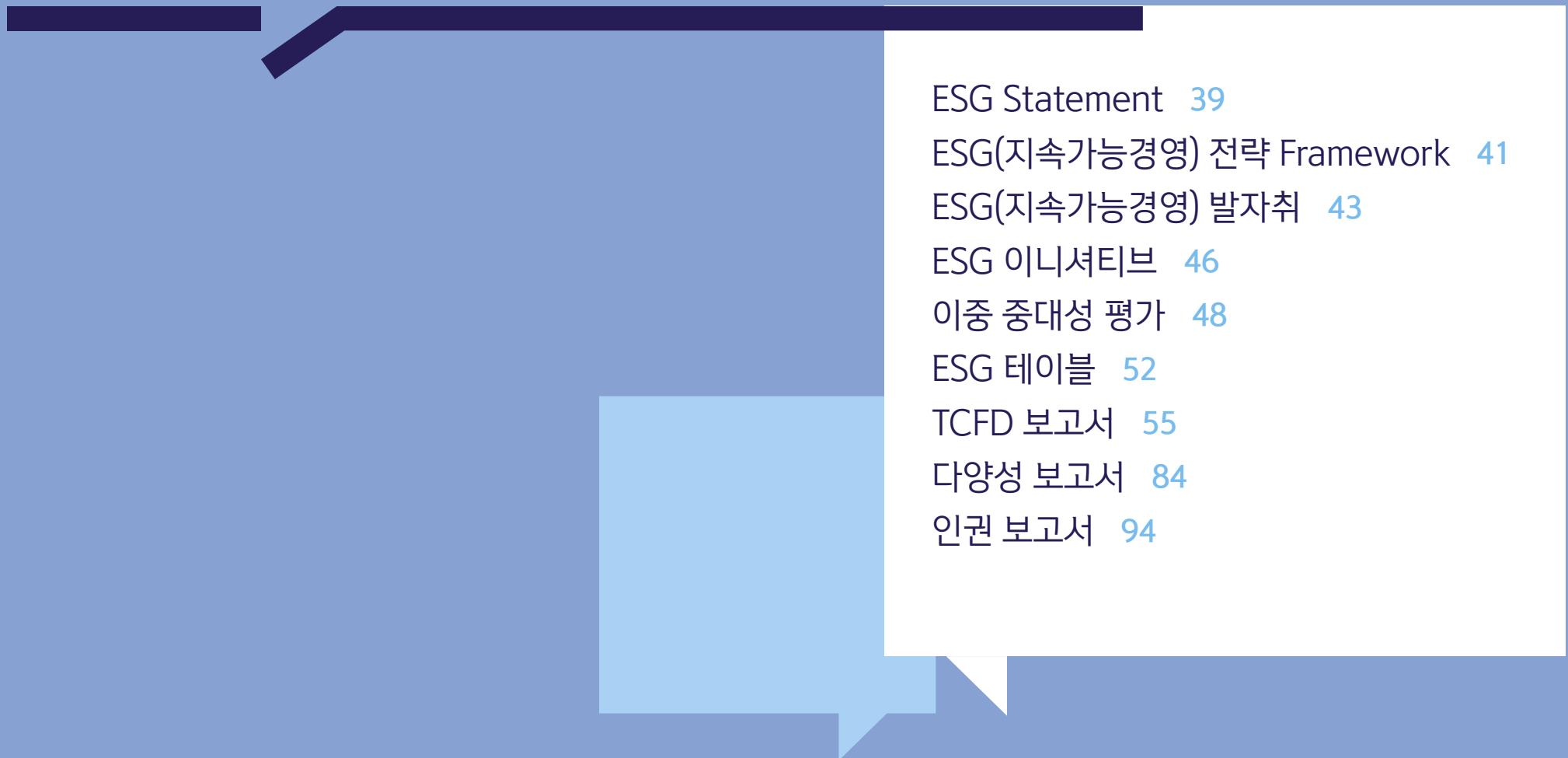
여기 이 지면을 빌어  
'모두 다 함께 만들어 갈 ESG'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같이 걷는다면 더 오래, 멀리 걸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기다리는 '멋진 세상'을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드림



# SPECIAL REPORT

- 
- ESG Statement 39
  - ESG(지속가능경영) 전략 Framework 41
  - ESG(지속가능경영) 발자취 43
  - ESG 이니셔티브 46
  - 이중 중대성 평가 48
  - ESG 테이블 52
  - TCFD 보고서 55
  - 다양성 보고서 84
  - 인권 보고서 94

# ESG STATEMENT

신한 ESG 경영의 현 좌표를 확인하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바른 길로  
신한의 ESG를 이끌어갑니다.

20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와 기후위기,  
둘 다를 극복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에 대한  
열띤 논의가 지속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신한 ESG전략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ESG의 긴 여정을 가기 위한 의견과 지혜를 모으고  
진정한 실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원장 곽수근



위원 이윤재



위원 윤재원



위원 최재봉

**탄소중립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  
글로벌 이니셔티브와의 협력을 통해  
선도적인 ESG경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신한은 2020년 본 위원회 결의를 통해 동아시아 금융기관 최초의 탄소중립 선언 'Zero Carbon Drive'를 공표한 바 있습니다. 2021년에는 본 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UN 산하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은행 연합체인 NZBA(Net-Zero Banking Alliance)의 창립 서명기관으로 참여하였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완비하기 위해 박차를 기했습니다.

PCAF와 SBTi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금융 배출량을 측정해 2020년 대비 2030년과 2050년의 감축목표를 설정하였고 관리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 가는 신한의 탄소중립 전략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공유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들은 신한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근간이 되는 '다양성과 포용 – 신한금융그룹의 약속'을 제정하고 공표하였습니다. 선언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직접 관리하고 독려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한이 아시아 금융회사 최초로 ESG 화폐가치 측정 글로벌 표준 모델을 개발하는 글로벌 기업 연합인 VBA(Value Balancing Alliance)에 참여할 것을 결의하며 능동적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이 'Do the Right Thing for a Wonderful World'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더욱 넓게, 보다 멀리 보며 ESG전략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실행으로 더욱 단단해질 신한의 ESG 경영에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한금융그룹 ESG전략위원회\***

위원장 곽수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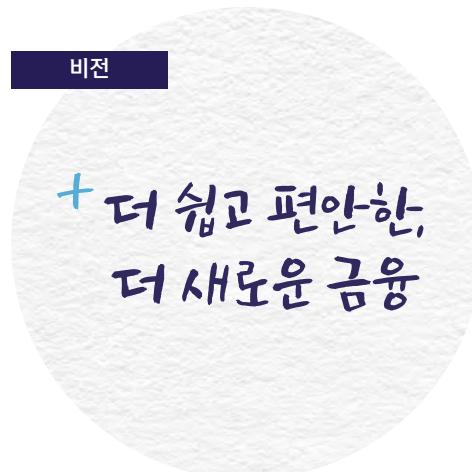
위원 이윤재

\* 신한금융그룹 ESG전략위원회 구성: 위원장 곽수근, 위원 이윤재, 위원 윤재원, 위원 최재봉, 위원 조용병(그룹 CEO)

위원 윤재원

위원 최재봉

# 신한금융그룹 ESG(지속가능경영) 전략 FRAMEWORK



전략방향

친환경

DO THE **GREEN** THING

for a Wonderful World

5대 Impact 과제

**Zero Carbon Drive**탄소배출량 감축과 상쇄를 통한  
탄소 배출 제로(Zero)화 추진

10대 ESG 전략지표

- 1 친환경 금융 확대
- 2 내부 탄소배출량 감축
- 3 자산 탄소배출량 감축

지향점

그룹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 배출량을 Zero로 만드는**0 Carbon**

상생

DO THE **BRAVE** THING

for a Wonderful World

**Triple-K Project**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연계한  
국내 혁신 성장 생태계 구축**Hope Together SFG**금융의 업의 본질 및 효과를 살린  
사회공헌사업 추진

- 4 혁신/뉴딜 금융 확대
- 5 스타트업 사업 강화
- 6 포용 금융 지속

혁신기업 발굴/육성을 통해  
10개의 유니콘 기업을 만드는**10 Unicorns**

신뢰

DO THE **FAIR** THING

for a Wonderful World

**사회 다양성 추구**여성 리더 육성 및 장애인, 다문화 사업 확대를 통한  
사회적 불평등 축소**고객보호 관리 강화**고객보호 관리 강화 및  
전 세대 금융 교육 확대를 통한 신뢰경영

- 7 여성 리더 육성
- 8 직원 민족도 제고
- 9 금융교육 강화
- 10 고객만족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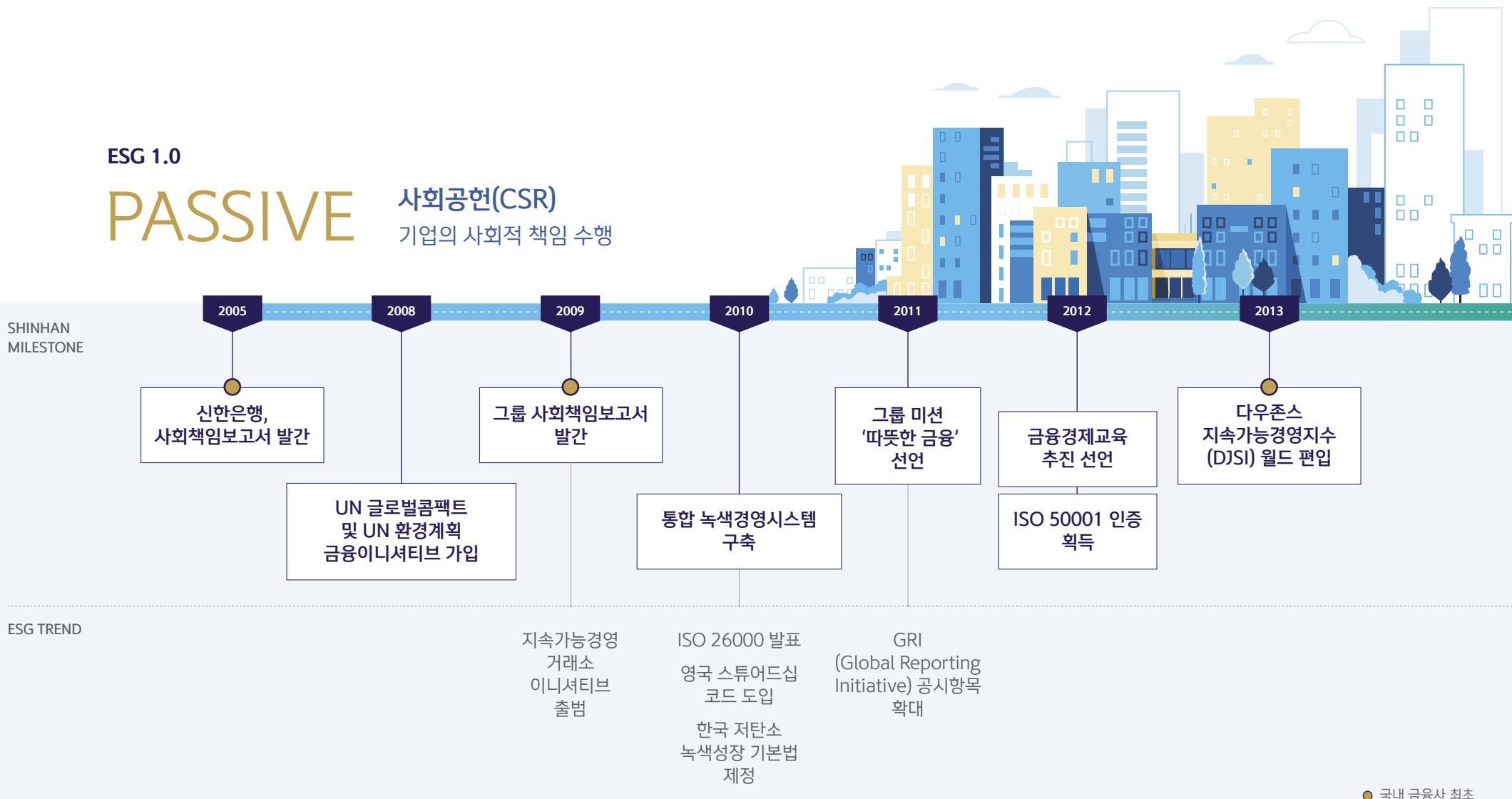
그룹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의  
만족도를 100%로 만드는**100% Satisfaction**

UN SDGs 연계



# ESG(지속가능경영) 발자취

신한금융그룹은 기업의 ESG,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영역에서의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 ESG 요소를 비즈니스 전략에 통합·관리함으로써 ESG 3.0 체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체계에 기반한 ESG Action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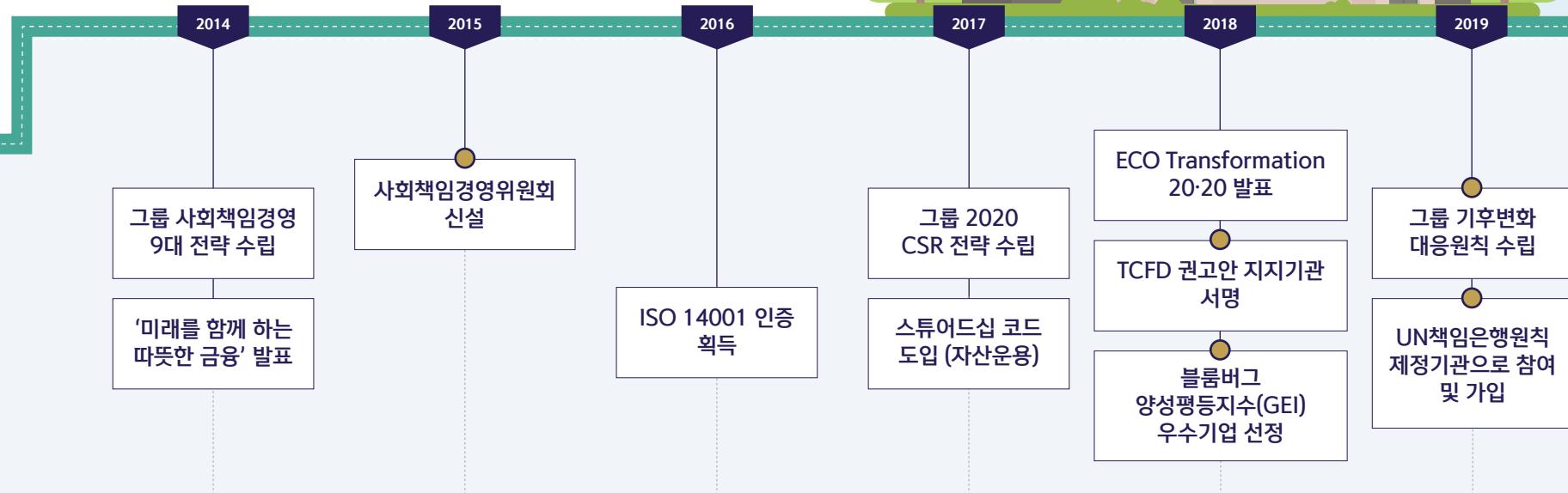


ESG 2.0

# ACTIVE

## 공유가치창출(CSV)

기업의 ESG 경영 인지 단계  
환경/사회에 대한 책임 증가

SHINHAN  
MILESTONE

ESG TREND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국민연금법 개정  
UN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발표  
파리기후변화  
협약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TCFD 권고안 발표

IPCC 1.5°C 보고서  
발간UN 책임은행 원칙  
제정



ESG 3.0

# PRO-ACTIVE

SHINHAN  
MILESTONE

ESG TREND

환경부,  
K-Taxonomy 도입 발표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공시

2021

GFANZ(글래스고 탄소중립금융연합)  
산하 이니셔티브 가입

UNEP FI 리더십위원회 멤버로 선출  
(아시아 유일)

아시아 민간 금융사 유일 COP26  
공식초청 및 탄소중립금융 발표

## 지속가능경영(ESG)

기업의 ESG 내재화 단계  
ESG의 전략 통합, 평가 반영  
차별화된 ESG 성과 창출

Net Zero Banking Alliance(창립멤버),  
Net Zero Asset Management Initiative,  
Net Zero Insurance Alliance

IFRS 재단,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공식 설립 발표

국내 금융사 최초

# ESG 이니셔티브

신한금융그룹은 다양한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우수 사례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ESG 글로벌 스탠다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신한금융그룹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진정성 있는 ESG Action을 추진하겠습니다.

## 세계로 나아가는 신한의 발걸음

### GLOBAL RECOGNITION

9년 연속 DJSI World 편입

(13년 연속 Asia Pacific 편입)

[국내 금융사 최초]



탄소경영 아너스클럽 8년 연속 선정

(2021년 탄소경영 플래티넘 등급 편입)

[국내 금융사 최초]



6년 연속 AA등급 획득



ISS Quality Score  
Grade: 1



2022년 GEI 4년 연속 편입

[국내 기업 최초]



7년 연속 ESG통합등급 A+ 획득

[국내 금융사 최초]



3년 연속 최고(AA)등급 획득  
[국내 기업 최초]



## GLOBAL INITIATIVES

2007년 3월 가입 2018년 명예의 전당 입성	2008년 1월 가입	2008년 5월 가입	2018년 9월 가입	2019년 9월 가입	2020년 2월 가입	2020년 9월 가입
 <b>CDP</b>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환경보고 및 위험 관리를 비즈니스 표준으로 만들고 지속가능한 경제에 대한 공개 및 행동을 유도	 <b>UNEP FI</b> UN 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 유엔 환경 계획과 금융부문 간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b>UN Global Compact</b>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역할을 관장하며, 기업들에게 동기 부여	 <b>TCFD</b> 기후변화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	 <b>UNEP FI PRB</b> UN 책임은행원칙 파리기후협약과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을 위해 은행권이 추구해야 하는 원칙	 <b>PSI</b> Principles for Sustainable Insurance	 <b>Equator Principles</b> 적도원칙 대형 개발사업이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 등 문제가 있을 경우 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협약
2020년 11월 가입	2020년 11월 가입	2021년 3월 가입	2021년 4월 가입	2021년 7월 가입	2021년 10월 가입	2022년 3월 가입
 <b>PCAF</b> 탄소회계금융협회 금융기관의 대출 및 투자와 관련한 온실가스 배출을 측정하고 공개하기 위한 회계표준 개발	 <b>SBTi</b>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과학에 기반한 탄소배출 감축 목표(1.5°C 및 2°C 시나리오)를 설정할 수 있는 Tool 공개	 <b>Value Balancing Alliance</b>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기업의 사회, 경제, 환경에 기여한 가치를 측정하고 비교하는 방법 개발	 <b>NZBA</b> 탄소중립 은행 연합 창립 서명기관으로 참여, 대출, 투자 등 보유 자산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탄소배출량을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으로 만들기로 합의	 <b>NZAMI</b> 탄소중립 자산운용 이니셔티브 2050년까지 운용자산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시기별로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천	 <b>NZIA</b> 탄소중립 보험 연합 보험사의 투자 및 보험 인수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탄소배출량을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 추진	 <b>TNFD</b>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이니셔티브 자연 및 생물다양성 보존에 대한 재무정보 공개

● 국내 업계 최초    ● 국내 최초

# 이중 중대성 평가

신한금융그룹은 체계적이고 시의성 있게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이슈를 식별 및 관리하고, 이를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하기 위해 매년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대성 평가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보고 가이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의 'Materiality' 원칙과 이중 중대성의 개념을 적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중대성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핵심 이슈를 그룹의 3대 전략방향인 친환경, 상생, 신뢰 영역으로 구분하고, 관련 활동과 성과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공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이중 중대성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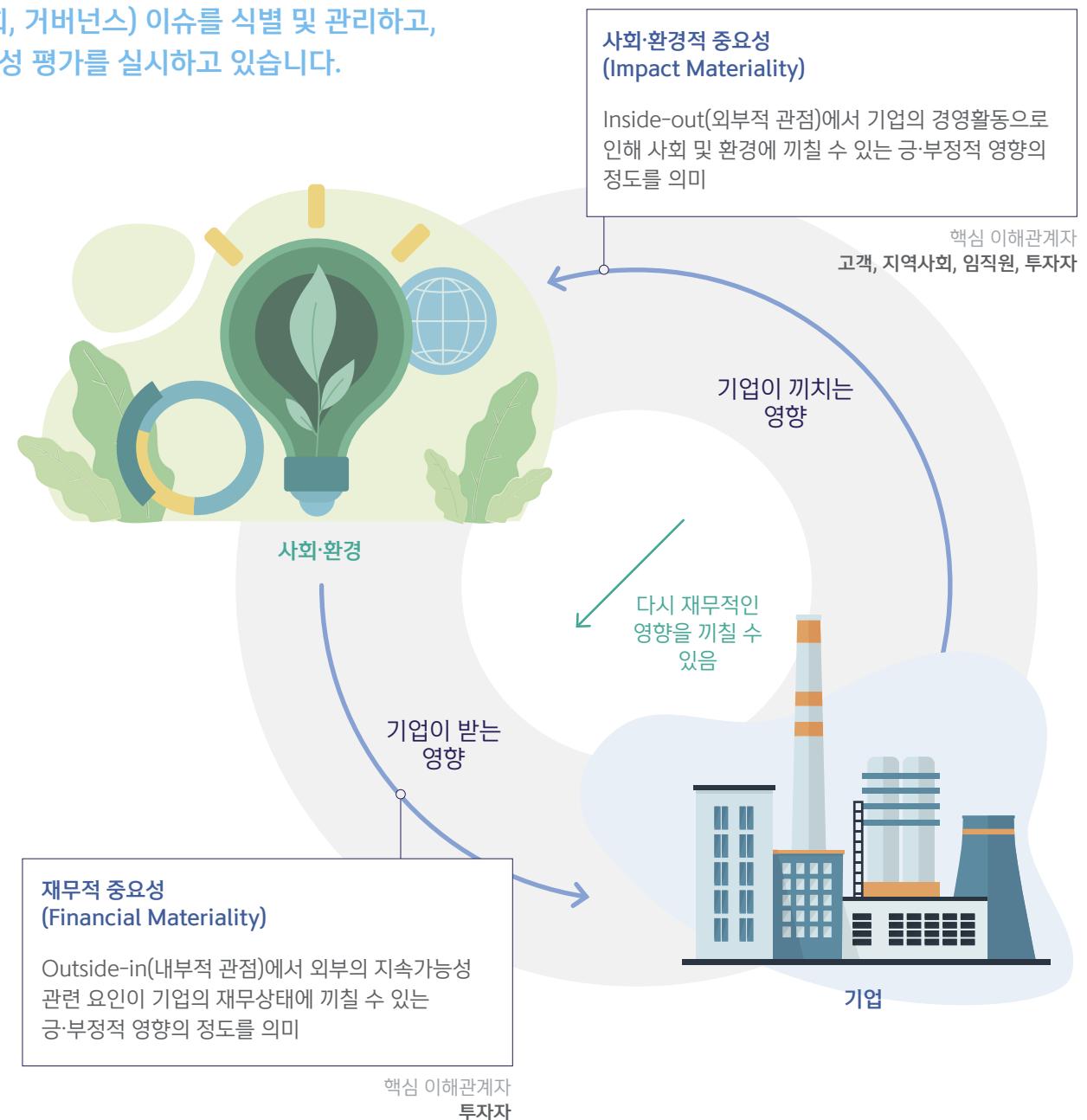
이중 중대성은 기업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지속가능성 관련 환경·사회적 요인과 더불어 기업의 경영활동이 외부에 미치는 영향, 즉 내부적 관점과 외부적 관점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우려 사항과 기대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경영 전략에 반영함으로써 비즈니스 성과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며, 동시에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환경·사회적 가치를 보다 긴밀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의 확산과 고도화 추세와 함께 이중 중대성 평가 도입에 대한 주요 기관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유럽연합(EU)<sup>1)</sup>, 세계경제포럼(WEF)<sup>2)</sup>, GRI<sup>3)</sup> 등을 중심으로 관련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에 점차 해당 개념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up>1)</sup> 2019년 6월, 이중 중대성 개념을 포함한 비재무정보 보고지침(NFRD) 발표, 2021년 4월 개정안인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발표(2023년부터 발효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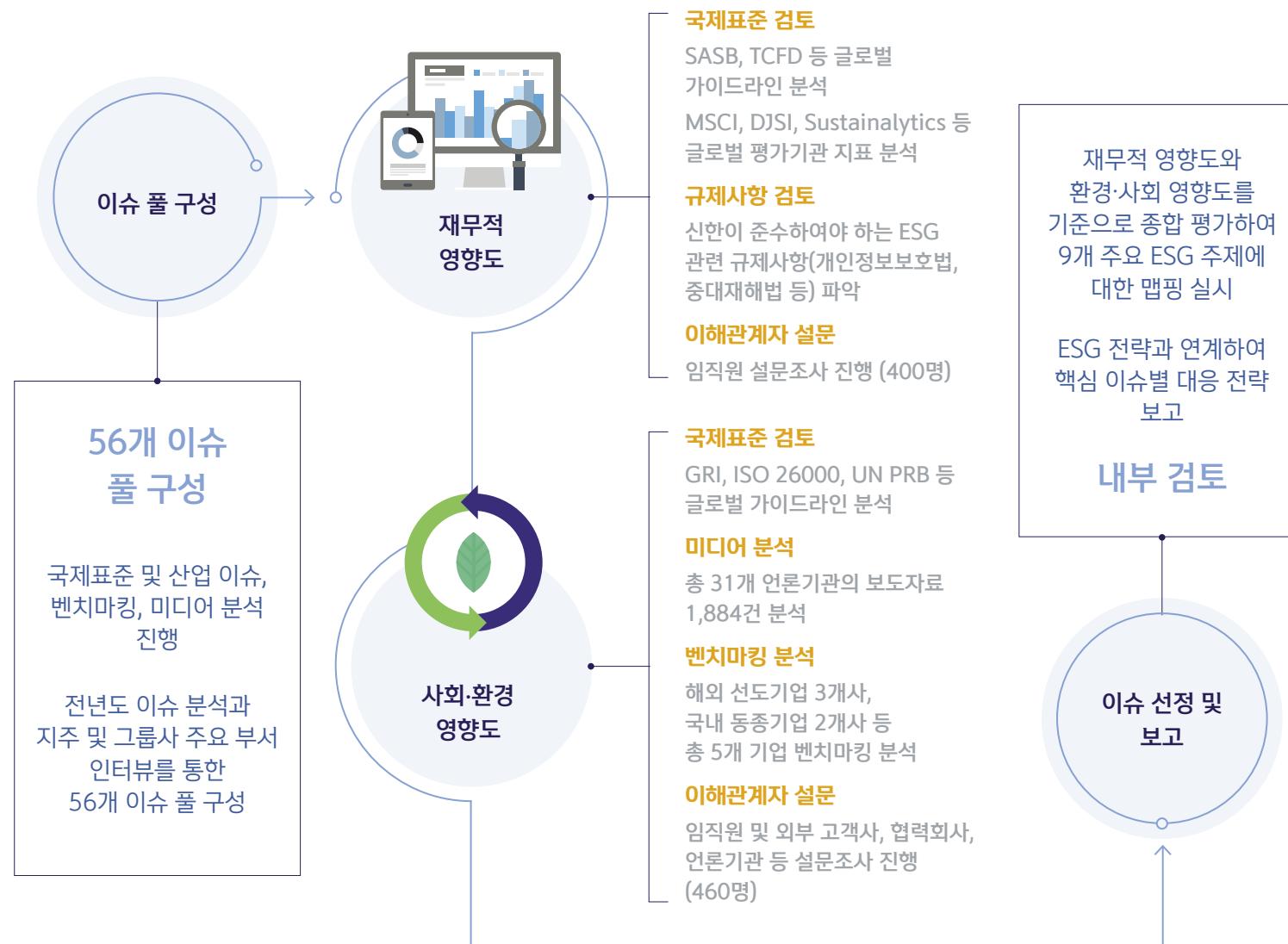
<sup>2)</sup> 2020년 3월, 'Embracing the New Age of Materiality Harnessing the Pace of Change in ESG' 발간

<sup>3)</sup> 2023년부터 이중 중대성 평가 도입을 필수사항으로 적용한다는 계획 발표



## 이중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신한금융그룹은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핵심 ESG 이슈 도출과 글로벌 이니셔티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이중 중대성 개념을 도입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글로벌 기준인 GRI 및 CSRD 내 관련 원칙에 기반하여 평가 방법론을 구축하였으며, 국제표준, 미디어분석, 벤치마킹 분석,内外부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2021년 중대성 평가 특징

### 분석 방법 고도화

이슈 풀 고도화를 위한 담당부서 심화 인터뷰 진행

이중 중대성 평가 개념 도입을 위한 평가 방법론 개발

### 분석 결과 전달방식 변화

기존 매트릭스 형태의 핵심이슈 전달에서 테이블형 이미지로의 전환

주요 이슈별 재무 또는 환경·사회 영향도에 대한 효과적 정보 공유 기대

2021년 중대성 결과

신한금융그룹은 2021년 중대성 평가를 통해 ESG 이슈가 미치는 재정적 영향도와 환경·사회적 영향도를 구분하고, 동시에 각 주요 이해관계자들에 있어서의 영향도를 동시에 분석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경영 등 9개를 핵심 이슈로 선정하였으며, 신한의 친환경, 상생, 신뢰의 3대 전략방향과 연계하여 주요 활동 및 성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중 중대성 평가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 핵심이슈 추진활동 및 성과

			보고 위치	GRI 인덱스
1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및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성공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회계 금융협회(PCAF) 기반의 금융자산 탄소배출량 측정 및 DB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10, 76-78	305-3
2	선제적 환경영향 전략, 정책, 시스템, 공시 고도화	국내 금융사 최초로 '그린IB추진 Lab'과 'ESG 글로벌 데스크'를 신설하여 투자관점에서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32-34, 59-61	2-12
3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매년 인권 영향 평가 활동을 통해 인권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며, 2022년에 인권보고서를 선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4-102	2-23
4	여성 리더십 확대	이사회 내 위원회인 ESG 전략위원회에서 여성 관리자(경영진, 부서장) 비율의 중장기 목표를 결의하였으며, 그룹 내 경영진 비중이 확대(2019년 6.6% → 2021년 7.5%) 되었습니다	27, 30, 88	3-3
5	고객 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 강화	그룹 차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정보보호 포털 시스템 오픈(신한은행) 등 사이버 보안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9, 100-101	418-1
6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경영	법규 제정 및 시행에 대응하여 컴플라이언스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매년 실시되는 임직원 윤리·준법 교육과 윤리실천서약을 통해 윤리경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98, 102	2-23
7	ESG 통합경영체계 확립	매월 전체 그룹사 CEO가 참여하는 ESG추진위원회를 신설하여 구동체계를 고도화하였고, ESG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 경영 활동 전반에 ESG를 내재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4, 61	2-9
8	경영활동 및 성과에 대한 투명한 공시	다양한 스페셜 리포트(TCFD/인권/다양성 보고서),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ESG 경영 활동과 성과를 정기적,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55, 84, 94	2-3
9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여 이사회의 독립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이사회 다양성 Guideline'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88	2-9

# ESG 테이블

신한금융그룹은 이해관계자와 여러분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경영 주요 활동을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즉 ESG 측면으로 한 눈에 보기 쉽게 구성하여  
2019년부터 ESG테이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NVIRONMENTAL

### ZERO CARBON을 향한 친환경 금융 체계 구축

#### 01 녹색금융

- 전용 및 보증 대출/인프라 PF 확대
- 에너지/친환경수단 투자
- 녹색 채권 발행
- 친환경 소비 촉진 (신한카드)

#### 04 친환경 경영

- 녹색경영시스템 개발/운영
- ISO 14001 인증 획득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 Zero Fuel (업무용 차량의 100% 무공해 전환)
- Zero Paper (서류 디지털화 29개 과제 실시)
- ESG빌딩 선언 (신한은행)

#### 02 환경 리스크 체계

-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기후변화 관련 그룹 포트폴리오 영향 분석
- 적도원칙 운영 (신한은행)

#### 03 친환경 정책

- Zero Carbon Drive 선포
  - 동아시아 최초 금융자산 탄소중립 선언
- 그룹 기후변화 대응원칙 수립
- PCAF와 SBTi 활용한 탄소배출량을 측정 및 감축목표 관리
- 국내 금융사/업계 최초

#### 05 친환경 리더십

- UNEP FI 책임은행 및 지속가능보험원칙
- UNEP FI GSC 아시아태평양 뱅킹 부문 대표
- SBTi, PCAF 가입을 통한 그룹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중립 추진
- VBA 가입 (신한금융그룹)
- NZBA (신한금융그룹), NZIA (신한라이프), NZAMI (신한자산운용) 가입

#### 06 환경정보 공개

- TCFD 지지 선포 및 권고안 참여 재무 관련 정보 공개 중 (2018~)
- 'CDP 명예의 전당 플래티넘 클럽' 편입 (신한금융그룹)



## SOCIAL

### 혁신/포용 금융 등 사회를 위한 지원 및 창의적 열린 문화

#### 01 혁신 금융

- '혁신금융 추진위원회' 출범
- 'Triple-K 프로젝트' 실시
  - S<sup>2</sup> Bridge(신한 스퀘어브릿지)를 통한 생태계 구축
- 벤처육성 프로그램 '신한퓨쳐스랩'
- 벤처 플랫폼 '이노톡'

#### 04 성장 지원

- 글로벌 영 철린지: 청년 해외취업
- 사회적 기업 펀드 투자
- 교육지원 프로그램
  - 희망학교 SW교실, 신한 음악상, 장학사업 등

#### 02 포용 금융

- 서민 중금리대출 선도
- 성공 두드림 프로그램 (SOHO)
- 소상공인/중소기업 전용판매 플랫폼 (올댓쇼핑)

#### 05 다양성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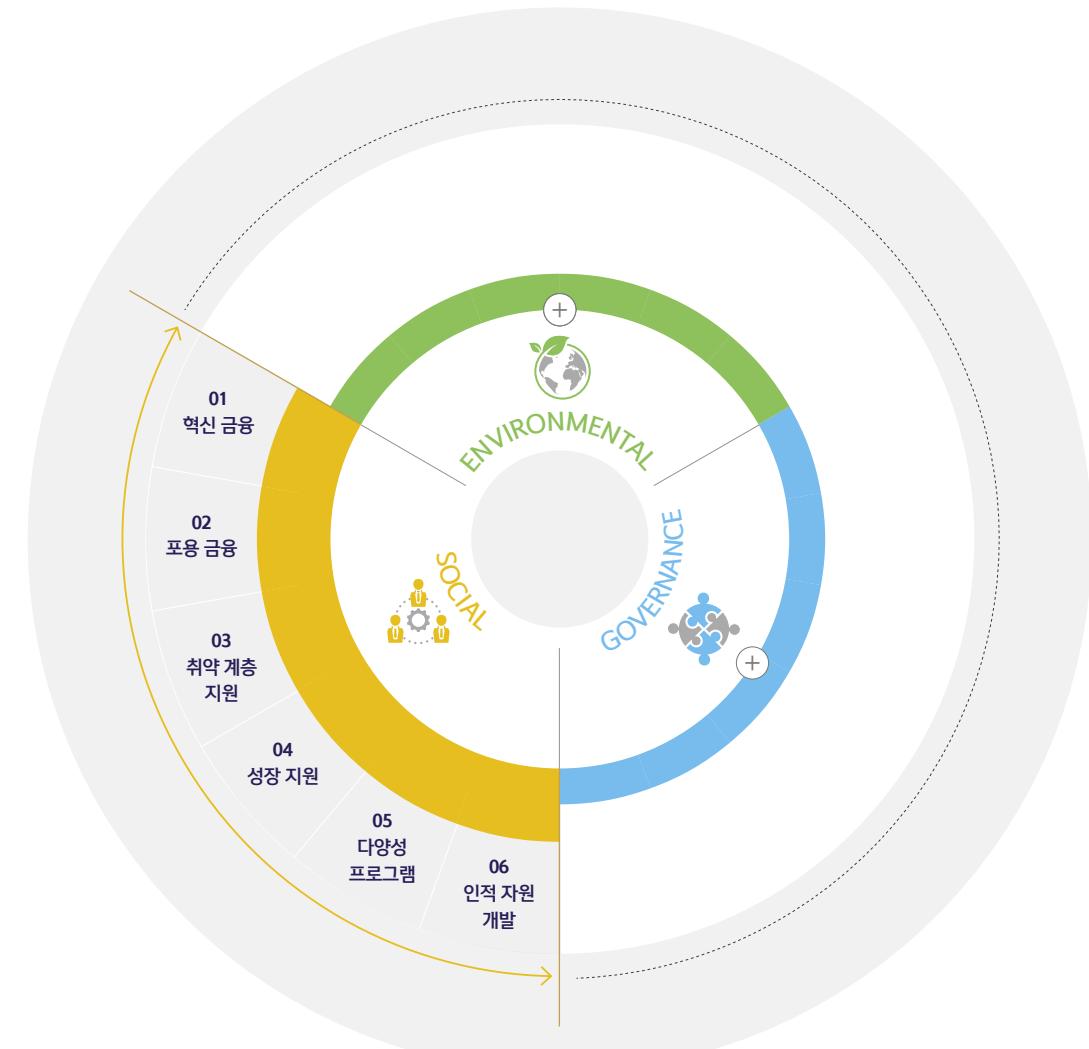
- 그룹 여성리더 육성 프로그램 '신한 쉬어로즈'
-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그룹 어린이집, 단축근무 등)
- 블룸버그 양성평등지수 편입

#### 03 취약 계층 지원

- 청년 부채 토탈케어: 지원금, 신용교육 제공
- 신한꿈도담터: 초등생 돌봄 지원
- 장애인 일자리: 사회적협동조합 '스윗'

#### 06 인적 자원 개발

- 업종별 맞춤형 전문가 육성 및 디지털 인재 육성
- 모바일 사내교육 플랫폼 운영
- 사내 벤처제도 실시



## GOVERNANCE

### 거버넌스와 리더십의 체계화 및 윤리/컴플라이언스를 위한 원칙 강화

#### 01 이사회 차별성

- 이사회 전문성 강화
  - 전문성 보유 사외이사 구성 명문화
  - 이사회 내 위원회 전문성 강화
- 이사회 다양성 확보
  - 국적/성별/연령 다양성 원칙 수립
  - 사외이사 후보 주주 추천 공모제
  - 여성 이사 후보군 최소 20% 확보

#### 02 리더십 안정성

- 경영승계 구조 체계화
  - 대표이사 후보군 선정 및 육성
- 임원후보 추천권한 분산

#### 03 ESG 거버넌스

- 그룹 사회책임경영 거버넌스 구축
  - ESG 전략위원회 (舊사회책임경영위원회)
  - ESG 추진위원회 (그룹사 CEO)
  - 그룹 ESG CSSO/실무협의회
- 사회적 가치 측정 모델(SVMF) 개발/운영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운영

<sup>1)</sup> 신용카드 데이터 보안 기준 인증

<sup>2)</sup>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04 윤리/준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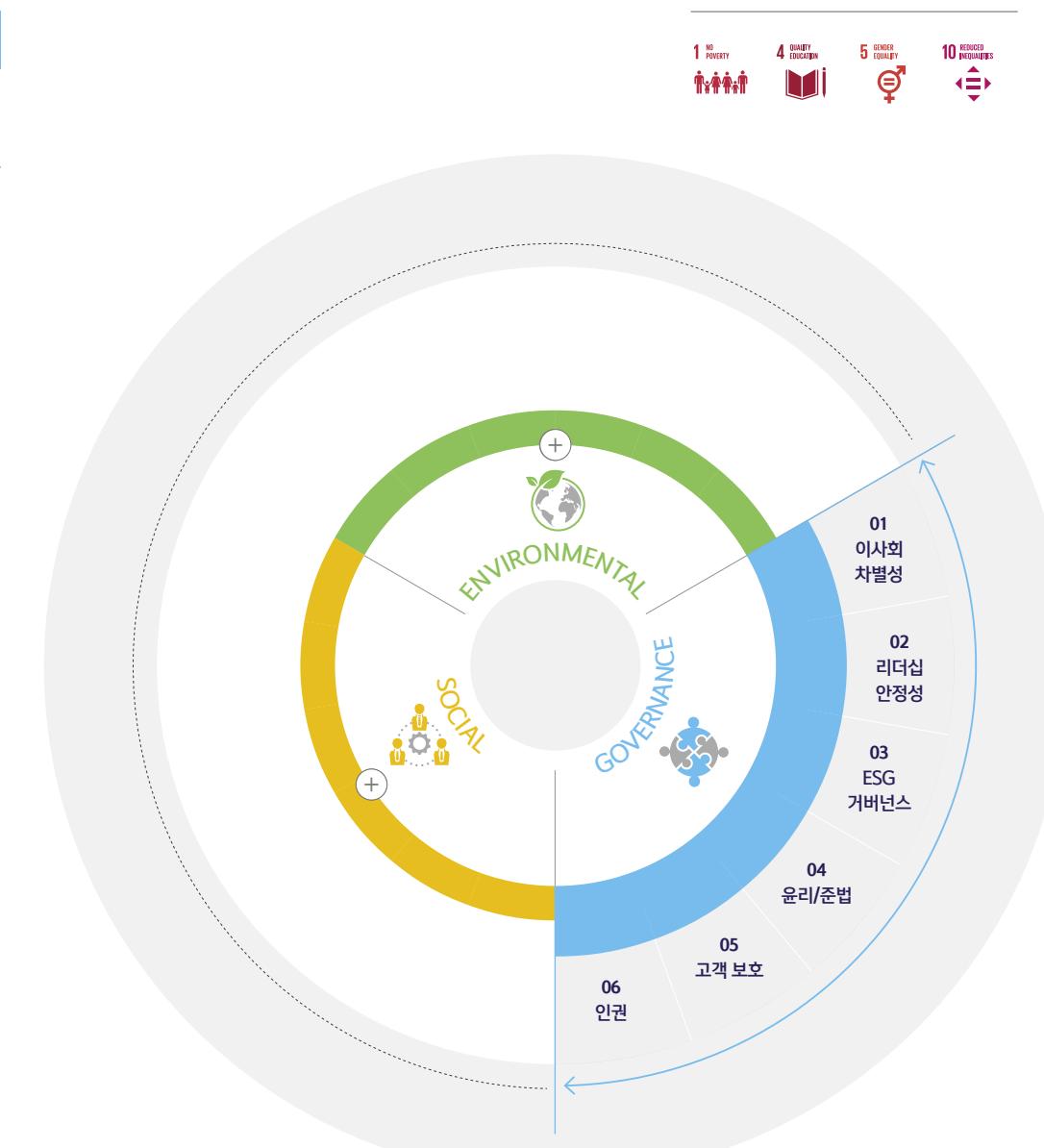
- 그룹 준법감시인 협의회, 내부통제위원회
  - 윤리강령/행동기준/내부자 신고제도
  -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정
  - 윤리/준법 교육 활성화
- 자금세탁방지 체계
- 컴플라이언스경영시스템(ISO 373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획득

#### 05 고객 보호

- 금융 소비자 보호 체계
  - 소비자보호그룹 신설, 금융상품 ESG 점검 제도, 옴부즈만제도
- 정보보안 체계 구축
  - 그룹별 CISO(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지정
  - ● 정보보호경영시스템(ISO 27001), PCI-DSS<sup>1)</sup>, ISMS-P<sup>2)</sup> 인증 획득 (신한카드)
- 전 세대 고객 대상 금융교육 플랫폼 '신한 이지' 오픈

#### 06 인권

- '다양성과 포용 – 신한금융그룹의 약속' 선언
- 협력회사 상생원칙/행동규범
- 스마트한 근무환경 확립
  - 스마트 및 유연근무제 확대
  - PC 셧다운 제도 도입





신한금융그룹  
**TCFD 보고서**

---

# CONTENTS

## INTRODUCTION

- 현재와 미래를 위한 약속, 탄소중립 57
- 탄소중립을 향한 세발자전거, Zero Carbon Drive 58
- Executive Summary 58

## 탄소중립의 방향을 정하는 핸들, 지배구조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배구조 60
- 이사회의 역할 (ESG 전략위원회/위험관리위원회) 61
- 경영진의 역할 (그룹 ESG 추진위원회/그룹 ESG CSSO협의회, 그룹 리스크협의회) 61

## 탄소중립을 이끄는 오른쪽 바퀴, 전략

-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과 기회 62
- 기후변화가 신한에 미치는 영향 63
- 기후 리스크와 기회를 반영한 대응 전략 65
-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66
- 신한금융그룹 탄소 가격 71
- 신한금융그룹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로드맵 72
- 기후변화 공동 대응과 협력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73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대응을 통한  
기회요인 발굴 73

## 탄소중립을 이끄는 왼쪽 바퀴, 리스크 관리

- 주요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74
- 주요 리스크 식별 75
- 주요 리스크 평가 및 관리 76

##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한 지도, 지표와 목표

- 탄소배출량 측정과 감축 목표 설정 79
- 탄소회계 금융협회(PCAF) 기반 금융배출량 측정과 감축목표 설정 81
- 미래 세대를 위한 신한의 친환경 금융 지원 약속 82

## DO THE GREEN THING FOR A WONDERFUL WORLD 83

# Introduction

## 현재와 미래를 위한 약속, 탄소중립

우리 모두는 미래 세대를 위한 탄소중립(Net Zero)의 길을 약속했습니다.

기후변화는 폭염, 한파 등의 자연재해를 초래하고, 생물다양성, 건강, 생계, 식량, 경제 등에 영향을 미쳐 인류의 생존과 안녕에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2015년에 파리협정을 맺고 210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보다 훨씬 아래(Well Below)로 유지하고, 나아가 1.5°C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2°C 억제로는 파국을 막기 어렵다는 내용의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IPCC는 최근 6차 보고서(2021)를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1.5°C 상승하는 시기가 이전 연구 결과 대비 10년 이상 앞당겨진 2040년 이내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1.5°C로의 억제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분명 탄소 중립의 길은 어려운 길이겠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기도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텁블러를 쓰고, 탄소 배출 대신 자전거를 타듯 기후변화를 위한 우리 모두의 작은 노력이 그 속도를 앞당겨 낼 것입니다.

신한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 탄소중립을 향한 세발자전거, Zero Carbon Drive

신한은 탄소중립에 있어 어린아이의 세발자전거를 생각합니다.  
천천히 한 바퀴 한 바퀴 돌리기조차 어려웠던 첫 시작을 떠올려봅니다.  
그 세발자전거가 만들어내는 'Zero Carbon Drive'의 속도는  
어쩌면 전기자동차 보다 더 빠를지도 모릅니다.

### Executive Summary

#### 세발자전거와 함께 하는 신한 'Zero Carbon Drive'

신한은 탄소중립을 향하는 길에 TCFD라는 지도와 함께 합니다. TCFD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2015년 G20 국가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간 협의체인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주도로 창설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영역으로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정보공개 기준인 TCFD 권고안을 개발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G7 재무장관들이 TCFD의 권고에 따라 기후보고를 의무화한다는 합의에 동의하여 공통된 글로벌 보고기준으로서 활용될 예정이며, 현재 89개국 약 2,600개 기관이 TCFD 서포터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2018년 TCFD 지지 선언 이후 권고안에 기반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실질적/잠재적 재무 영향을 공시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규정 준수, 감축 목표 설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배구조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구동체계 확립

- 이사회 내 ESG 전략위원회와 위험관리위원회 중심의 기후변화 기회/위기요인 안건 심의·의결
- 2021년 그룹사 CEO 전원이 참석하는 ESG 추진위원회 신설
- 그룹전략/ 지속가능경영부문장(GCSSO) 및 그룹위험관리책임자(GCRO) 선임
- 그룹사, 실무단에서의 협의회 운영

### 기후변화 기회 요인 실행을 위한 ESG 관리체계 확대

- 국내 금융사 최초, 기업금융투자(GIB) 산하에 그린IB추진 Lab 신설
- ESG 글로벌 데스크 구성을 통한 글로벌 선진 ESG 실행 조직체계 마련

## 전략

### 기후 리스크 및 기회 요인 식별

- TCFD 권고안의 이행 및 물리적 기후 위험 분류체계 기반 분석
- 식별 요인의 그룹 사업전략 반영

### 기후변화 대응 로드맵

#### Zero Carbon Drive 수립

- 2021년 Zero Carbon Drive 전략 이행으로 PCAF 기반 금융배출량 측정 및 감축목표, DB 구축 진행
- 재생에너지 사업 중심의 친환경 금융 투자 확대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대응을 위한 'K-Taxonomy 대응반' 신설

### 기후위기 공동 협력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

- SBTi, 적도원칙, PCAF, NZBA, NZAMI, NZIA 등의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공식 행사 및 한국홍보관 등 참석

## 리스크 관리

### 금융배출량 측정 시스템 및 DB 구축

- 독자적인 금융배출량 산출 시스템으로 PCAF 온실가스 회계기준에 따른 그룹 보유 자산의 금융배출량 산출 및 공시
- 금융배출량 시뮬레이션을 통해 신규 대출 및 투자 시 심사 프로세스에 활용
- 리스크 대시보드를 통해 금융배출량 및 배출집약도 모니터링

### 환경사회 유의영역 모니터링

- 환경사회적 주의가 필요한 12개 영역 대상으로 익스포저 모니터링 실시
- 이슈 발생 시 리스크 관리 협의체와 경영진 보고를 통해 영향 및 대응방안 검토

### 적도원칙 이행

-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 시 잠재적인 환경사회 리스크 및 영향 검토

### 그룹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체계 운영

- 그룹 기후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지표와 목표

### SBTi 방법론 기반 Net Zero 달성을 목표 수립

- (내부배출량) 1.5°C 시나리오 기반의 과학적 툴을 통해 2030년 46.2%, 2040년 88.2% 감축, 2043년 Net Zero 달성
- (금융배출량) 2°C 및 부분 1.5°C 시나리오에 기반한 부문별 탈탄소 접근법(SDA) & 절대량 감축 접근법(ACA)을 적용하여 2030년 38.6%, 2040년 69.6% 감축, 2050년 Net Zero 달성

### PCAF 기반 금융배출량 측정 고도화 지속

- 금융배출량 측정 자산군 확대 및 기후변화 관련 활용 데이터 범위 및 수준 업그레이드

### Zero Carbon·Zero Fuel 목표

- 2030년까지 그룹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 및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100% 전환

### 기후변화 기회를 위한 전환 금융 목표 설정

- 친환경 금융실적 30조 원 (2020~2030년 신규 누적)

# 탄소중립의 방향을 정하는 핸들, 지배구조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을 설정하는 '지배구조'입니다. 리스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후변화 지배구조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신한금융그룹은 국내 금융 그룹 최초로 이사진과 경영진, 담당 임원 그리고 실무진에까지 이어지는 기후변화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조직적으로 세부적인 실행을 위해 '그린IB추진 Lab'과 'ESG 글로벌 데스크' 신설 등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기회 요인인 투자 및 글로벌 사업 확장에서의 ESG 조직 구조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배구조

신한금융그룹은 이사회와 경영진, 실무진 간 유기적인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위험과 기회요인을 선제적으로 식별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사별 CEO/CSSO/CRO/실무담당자가 참여하는 수준별 협의회를 정례 운영하여 그룹 전반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의 역할 (ESG 전략위원회/위험관리위원회)

신한금융그룹은 이사회 내 ESG 전략위원회와 위험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 안건을 최종 심의·결의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국내 금융사 최초로 신설된 '사회책임경영위원회(現 ESG 전략위원회)'는 ESG 및 기후변화 전략과 관련된 모든 주요한 의사결정을 총괄하며, 2021년에는 총 4번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대되는 기후 리스크 요인 관련 안건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 내 소위원회의 역할

구분	ESG 전략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승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탄소중립 관점의 금융배출량 감축목표</li> <li>기후 리스크 기회요인 실행 전략</li> </ul>	-
보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배출량 감축목표 이행결과</li> <li>기회요인 실행전략 이행결과</li> <li>공개 관련 주요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배출량 관리 모니터링 결과</li> <li>시나리오 분석 결과</li> <li>물리적 리스크 영향</li> <li>공시 관련 주요사항</li> </ul>

### 2021년 ESG 전략위원회 주요 보고 및 결의 사항

보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SG 대시보드(ESG금융실적 및 탄소지수) [정기보고]</li> <li>과학적 감축 목표(SBTi) 승인 프로젝트 추진 경과 [제3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OP26 참석 및 Zero Carbon Drive 전략 발표 경과 [제4회]</li> <li>탄소회계금융협회(PCAF) 기준 금융자산(2020년)의 탄소배출량 측정결과 [제4회]</li> <li>SBTi 감축목표 및 목표관리방안 [제4회]</li> </ul>
결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탄소중립은행연합(NZBA) 및 VBA(Value Balancing Alliance) 가입 [제2회]</li> </ul>

### 2021년 위험관리위원회 주요 보고 사항

보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의영역 익스포저, 금융배출량 등의 모니터링 결과 [정기보고]</li> <li>ESG 통합 리스크관리체계 구축 프로젝트 추진 [제4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변화 리스크관리를 위한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 측정 및 관리'에 대한 교육 [제9회]</li> </ul>

## 경영진의 역할 (그룹 ESG 추진위원회/그룹 ESG CSSO협의회, 그룹 리스크협의회)

2021년 신한금융그룹은 그룹사 CEO 전원이 참석하는 ESG 추진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기존 그룹 ESG CSSO협의회<sup>1)</sup>, 그룹 리스크협의회와 더불어 그룹 차원의 일원화된 ESG 및 기후변화 전략 추진을 위한 구동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집행책임자인 GCSSO와 GCRO는 각각 ESG 구동체계 전반과 기후 리스크 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하며, 주요 사항에 대하여 ESG 전략위원회와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 대응 조직의 업무 구분

구분	그룹 기후변화 경영 전반 총괄	기후 리스크 관리 총괄
리스크 식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리 및 이행 리스크에 따른 기업의 기회요인 발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리스크 발생원천 식별</li> </ul>
리스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굴된 기회요인 실행 전략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배출량 측정 및 시나리오 분석</li> </ul>
리스크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금융배출량 감축목표 설정</li> <li>그룹사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 및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출집약도 관리</li> <li>고탄소 업종 선정 및 관리</li> <li>그룹사/업종/거액차주에 대한 익스포저 한도 설정 및 관리 (기존 관리방식에 연계)</li> </ul>
외부기관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자 및 신용평가기관 대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리스크 관련 감독기관 대응</li> </ul>
공시 및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SG 보고서, TCFD 보고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 리스크 관련 사항 공시 및 공개 지원</li> </ul>

### 국내 금융사 최초, '그린IB추진 Lab' & 'ESG 글로벌 데스크' 신설

신한금융그룹은 2022년 1월, 기존 ESG 총괄조직(CSSO)이 아닌 기업금융투자(GIB) 산하에 녹색경제 활동 기업에 대한 투자, 녹색기업 전환 추진 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담당하는 그린IB추진 Lab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 관점에서 ESG를 더 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신한은행 런던지점의 글로벌 ESG 전문가를 지주 ESG기획팀 내 겸직 배치하는 ESG 글로벌 데스크를 구성하여 글로벌 선진 ESG 실행을 위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해당 조직은 기후금융 관련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 기후 관련 신사업 발굴, ESG 트렌드 리서치 및 정책 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sup>1)</sup> 2019년 금융사 최초로 전 그룹사에 전략과 지속가능 담당임원인 CSSO(Chief Strategy & Sustainability Officer)를 임명하고 ESG 실무 책임자를 지정하여 협의회 운영

# 탄소중립을 이끄는 오른쪽 바퀴, 전략

신한금융그룹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기후 리스크와 기회 요인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리스크 경감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녹색미래로의 전진을 위해 저탄소 전환 투자를 확대하고, 녹색금융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과 기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경제 구조로 전환하는 일은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기존의 설비와 기술 등을 새롭게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실물경제 전체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금융기관은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더 넓은 범위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신한금융그룹은 TCFD 권고안에 포함된 이행 및 물리적 기후 위험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예상되는 기후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구분하고, 그룹 사업 전략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후 관련 위기요인			
구분	기후 관련 위험		잠재적 재무 영향
이행 리스크	정책 및 법률 위험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상승, 환경 공시 의무 강화, 환경 관련 소송 발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 비용 증가 (예: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 보험료 증가)</li> <li>정책 변화로 인한 상각</li> <li>자산 손상 및 기존 자산의 조기 처분</li> <li>벌금 및 판결로 인한 비용 증가 또는 제품 및 서비스 수요 감소</li> </ul>
	기술 위험	친환경·저탄소 기술로의 전환, 에너지 효율성 개선 및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 투자 강화, 신기술 투자 실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자산의 상각 및 조기 처분</li> <li>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li> <li>신기술 및 대체기술 연구개발(R&amp;D) 비용</li> <li>기술 개발을 위한 자본 투자</li> <li>새로운 관행 및 프로세스를 채택/배포하는 데 드는 비용</li> </ul>
	시장 위험	소비자 행동 변화, 원자재 가격 상승, 상품·서비스에 대한 수요공급 변화, 시장 불확실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비자 선호도 변화에 따른 재화 및 서비스 수요 감소</li> <li>원자재 가격 상승 및 폐기물 처리 비용변화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li> <li>에너지 비용의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변화</li> <li>매출 실적의 변화로 인한 매출 감소</li> <li>자산 재평가(예: 화석연료 매장량, 토지 가치, 증권 가치 평가)로 인한 가치 하락</li> </ul>
	평판 위험	소비자 및 투자자의 선호도 변화, 또는 부정적인 이해관계자 피드백, 업종 낙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품·서비스 수요 감소로 인한 수익 감소</li> <li>생산능력 감소로 인한 수익 감소 (예: 계획 승인 지연, 공급망 중단)</li> <li>인력 관리 및 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한 수익 감소 (예: 직원 유치 및 유지)</li> <li>자본 가용성 감소</li> </ul>
물리적 리스크	급성 물리적 리스크	태풍, 홍수, 산불 등 극심한 이상기후 현상 빈도 및 강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장 중단, 공급망 붕괴, 노동자 건강 악화 등에 따른 생산성 감소 및 영업이익 하락</li> </ul>
	만성 물리적 리스크	강수 패턴 변화 및 기상 패턴의 극심한 변동성, 평균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등 장기적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 손상, 기존 자산 조기 처분 등으로 인한 운영 비용 및 자본 비용 증가</li> <li>고위험 자산군에 대한 보험료 증가 및 보험 가용성 감소 가능성</li> </ul>

## 기후 관련 기회요인

구분	기후 관련 기회	잠재적 재무 영향
자원 효율성	에너지 및 수자원 효율성 제고, 재활용 확대 및 친환경 교통수단, 친환경 건축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비용 절감을 통한 운영 비용 절감</li> <li>생산능력 증가로 인한 수익 증가</li> <li>고정 자산(예: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 등) 가치 상승</li> <li>인력 관리 및 계획의 이점(예: 건강 및 안전 개선, 직원 만족도 향상)으로 인한 비용 절감</li> </ul>
에너지 자원	저탄소 배출 에너지원 사용, 정부 지원 정책 인센티브 활용, 탄소시장 참여, 분산형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신기술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실가스 배출량 축소를 통한 운영 비용 절감</li> <li>미래 화석연료 가격 인상에 대한 노출 감소</li> <li>온실가스 배출 및 탄소가격 변화에 대한 영향 축소</li> <li>저탄소 기술 투자 수익</li> <li>자본 가용성 증가</li> <li>상품·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한 긍정적 평판 혜택</li> </ul>
상품 및 서비스	저탄소 배출 관련 상품 및 서비스 개발·확대, 기후변화 적응 및 보험 솔루션, 기술 혁신을 통한 신규 서비스, 비즈니스 활동 다각화 역량, 소비자 선호도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탄소 배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통한 수익 증대</li> <li>기후변화 적응 니즈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예: 보험 리스크 이전 제품 및 서비스)을 통한 수익 증대</li> <li>변화하는 소비자 선호를 반영하여 더 나은 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익 증대</li> </ul>
시장	신규 시장 창출 및 접근성 확대, 공공부문 인센티브 활용, 보험 적용이 필요한 신규 자산 및 지역에 대한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 시장 접근을 통한 수익 증대(예: 정부, 개발은행과의 파트너십)</li> <li>금융자산(그린본드, 인프라 등)의 다각화 확대</li> </ul>
복원력	재생에너지 확대 적용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자원 다각화 및 대체 자원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원 계획을 통한 시장 가치 상승(예: 인프라, 토지, 건물)</li> <li>공급망의 신뢰성 향상 및 다양한 조건에서의 운영 능력</li> <li>복원력 확보와 관련된 신제품 및 서비스를 통한 매출 증대</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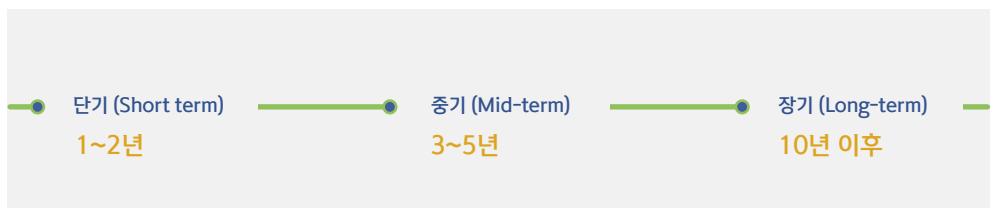
## 기후변화가 신한에 미치는 영향

먼저 기후 리스크는 최근 전 세계적 탄소중립의 흐름에 따라 정책적 측면에서 빠르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등의 대상 기업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이 단기간에 대두되고 있으며, 상장기업의 환경 정보 공개 의무화 같은 사항은 운영이나 법적 측면에서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 관련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그 기간을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기의 경우, 신한금융그룹이 선언한 Zero Carbon Drive 이행에 따른 평판 위험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금융배출량을 감소시키지 못하거나 저탄소 전환 의지가 없는 고배출 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 지원은 '그린워싱'으로 해석되어 대외 공개적인 평가에서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패시브 투자 및 ESG 관련 ETF 등 금융상품과도 연관되어 주가하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법적 위험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신한은 중기를 실질적인 리스크 모니터링과 분석, 그에 따른 익스포저 조정 계획을 검토할 수 있는 3~5년의 기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에는 물리, 이행 리스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상호 역의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리스크 대응이 안되었다면 이행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급성과 만성으로 찾아오는 리스크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두 방향성의 모든 리스크를 검토하고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한은 장기를 IPCC보고서에서 물리적 온도 관리 목표 시점으로 삼은 2040년에 다가가는 10년 이후의 시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시점 (Time Horizons)



리스크 구분	세부 리스크 정의	신한에 미치는 영향	시점
이행 리스크	정책/법률 (Policy/Leg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기적으로 미국/유럽 등 수출 기업의 경우에는 보다 더 강화될 탄소세와 고탄소 배출 업종에 대한 규제 등으로 수출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현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운영 비용이 증가하여 재무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li> <li>글래스고 기후협약에 따라 각 국가는 2030년까지 1.5°C를 초과하지 않는 NDC를 수립하고 이행하게 됩니다. 국가별 배출량 감소 정책에 따라 향후 5년 내 급격한 배출량 감축 목표가 기업들에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단기에 완화되었던 조치들이 중기가 되면 보다 더 급격하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기업의 배출권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은 커지게 될 것이며, 이는 차주의 재무건전성과 직결되어 신한의 리스크 또한 증가할 수 있습니다.</li> <li>신한의 탄소중립금융 이행과정에서 차주 및 고객의 계약 등에 영향을 주거나 고탄소 배출 업종에 대한 지원 중단이 이루어지지 못해 그린워싱 등의 이슈가 제기되는 경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법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li> </ul>	단기/중기/장기
	기술 (Technolog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앞으로 기업들은 모두 저탄소 설비 및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게 될 것이며, 이 경우 지출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나 생산과 소비량은 그에 맞춰 증가되지 못하는 중기 측면에서의 수익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li> <li>장기적으로는 고탄소 배출 기업들의 저탄소 전환 기술 전환 성공 여부에 따라 기술 개발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지 못한 기업의 경우, 손익에 있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ul>	중기/장기
	시장 (Mark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본시장에서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투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한금융그룹 또한 탄소중립금융선언 이후 그에 따른 금융배출량 관리가 어렵거나 고탄소 배출 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익스포저 증가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이슈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고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주가 하락으로도 연결되어 재무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li> </ul>	중기/장기
	평판 (Repu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배출량 관리가 안될 경우, 언론과 고객들로부터 그린워싱 이슈가 제기되고, 친환경 금융 선도 기업이라는 명성에 큰 영향을 주며, 고객 이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Scope1,2,3 관리뿐 아니라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체계, 대응은 주요한 신용평가사 또는 ESG 평가기관의 지표와도 연결되어 그룹 전체의 신용등급과 ESG 평가 등급이 하락하는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li> </ul>	중기/장기
	급성위험 (Acute Ri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급성위험의 경우, 신한의 기업고객 뿐 아니라 개인 고객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장마, 폭우, 태풍, 지진과 같은 급성 위험에 따라 소유 부동산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의 담보가치 하락, 시설 설비의 손상, 생산 능력 감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 리스크와 고객의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배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무적 리스크가 신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li> <li>또한 피해를 입은 직원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 운영 측면에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li> </ul>	단기/중기
물리적 리스크	만성위험 (Chronic Ri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성위험의 경우, 기온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관련 업종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식물 및 해양산업에 기온은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생물 다양성과 생존에 있어 또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곡물업, 음식료업, 해양수산업 등에 속한 업종의 차주들은 매몰비용이 증가하거나 운영비용이 증가함으로 재무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li> <li>또한 만성 위험은 전반적인 산업에 있어 전력 사용량을 증가시키고, 이는 공급망 및 물류체인 등 타격으로 인한 영업 수익 감소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li> </ul>	중기/장기

## 기후 리스크와 기회를 반영한 대응 전략

기후변화 리스크 및 기회 요인이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각 요인별 발생 가능성과 재무적 영향도를 고려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탄소 관련 자산 중 타 사업 대비 프로젝트 규모가 크고, 친환경·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산업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친환경 금융 투자 확대를 통해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사업 등으로 발생가능한 리스크 요인을 기회 요인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확대는 타 사업 대비 사업 규모 및 감축 효과가 크며, 사전 탄소배출 상쇄 효과 추정이 용이한 장점을 갖습니다.

- |              |  |
|--------------|--|
| 선정 배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태양광, 풍력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으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어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음</li> </ul>            |
| 사업규모 및 감축 효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규모가 크고 금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개발되고 있음</li> <li>에너지효율 사업이나 연료 전환 사업에 비해 투입비용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월등히 높음</li> </ul> |
| 감축 효과 추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측정이 가능하고, 탄소 상쇄량과 투자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마련되어 있어 감축 효과 추정이 용이함</li> </ul>                               |

###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에 따른 상쇄 시나리오 효과 분석

향후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성을 감안하여 금융지원금액 당 탄소배출 상쇄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Zero Carbon Drive의 친환경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1 %

수력

2 %

바이오



39 %

풍력



58 %

태양광



\* 상쇄 재생에너지 기술 선정 근거: 억원 당 설비 규모(MW) 연 발전 시간<sup>1)</sup>(h) 연 발전량(MWh)  
연 발전량(MWh) 전력배출계수<sup>2)</sup> 억 원당 탄소배출량

<sup>1)</sup> 일조량 등을 고려한 발전 가능 시간

<sup>2)</sup> 1MW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배출량

##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이행리스크, 물리적리스크)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는 국제결제은행(BIS)의 보고서에서 '그린스완'으로 명명되었듯이 그 파급 경로의 복잡성과 광범위한 영향으로 인해 과거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기준의 통계적인 방법론 보다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리스크 측정 방법론이 발전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교한 분석 방법이 요구됩니다.

이에 신한금융그룹은 기후변화 따른 신한 내부 및 포트폴리오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나리오 분석 방법을 도입하였습니다. 시나리오 분석은 크게 이행리스크와 물리적리스크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행리스크의 경우, 올해 처음 신한은행 대출 자산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를 활용한 Top-down 방식과 외부 분석 모형을 활용한 Bottom-up 방식을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물리적리스크의 경우, 신한 내부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상청 보고서를 기반으로 제주은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고 자산 영향도 측면에서는 이화여대-금감원 기후리스크 모형 기반의 부동산 담보 가치 하락에 따른 영향도를 분석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신한금융그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행, 물리적 시나리오 방법론을 보다 지속, 정교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행리스크	1 TOP-DOWN		2 BOTTOM-UP	
	구분	분석방법	구분	분석방법
		한국은행의 기후변화에 따른 이행 리스크 영향분석 결과 <sup>1)</sup> 를 준용하여 영향도 분석 (신한은행 포트폴리오 대상)		S&P Global 기후 시나리오 분석 모형 활용 (Climate Credit Analytics)
	분석 결과	신한은행 BIS 비율 <sup>2)</sup> 등 영향도		고탄소 배출업종 영향도

<sup>1)</sup> 한국은행(2021.12), 기후변화 이행 리스크와 금융안정

<sup>2)</sup> 자기자본비율로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뒤 백분율로 환산하여 도출

물리적리스크	3 신한 내부 운영 측면		4 자산 영향도 측면	
	구분	분석방법	구분	분석방법
		남한 상세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 <sup>3)</sup>		이화여대-금융감독원 기후 리스크 모형 활용
	분석 결과	제주은행의 제주 지역 내 영업점 운영 중단에 따른 피해 영향도		신한은행 대출자산의 국내 부동산 담보 가치 하락에 따른 대손 비용 예상

<sup>3)</sup> 국립기상과학원 '남한 상세 기후변화 전망보고서'(2021.12.30) Data 인용

### 1 Top-down 방식의 분석 결과

한국은행은 기후변화에 따른 이행 리스크 영향 분석을 통해, 이행 리스크에 따른 국내 산업의 영향(고탄소 산업의 부도율 변화 등)을 측정하고, 이들 산업과 관련한 금융자산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영향(BIS 비율 변화 등)을 측정하였습니다. 녹색금융협의체(NGFS)의 1.5°C 이하 시나리오와 2°C 이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강화, 저탄소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관련 금융자산의 가치하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에 따른 국내은행의 BIS 비율 변화를 추정하였습니다.

한국은행(2021), 기후변화 이행 리스크와 금융안정



\* 출처: NGFS

NGFS, Climate Scenarios for central banks and supervisors (2020)

이행 리스크에 따른 부도율<sup>1)</sup> 변화<sup>2)</sup>

구분		(단위: %p)		
		2030년	2040년	2050년
<b>2°C 시나리오</b>	고탄소 산업	3.7	6.6	10.2
	중·저탄소 산업	0.0	0.0	0.1
<b>1.5°C 시나리오</b>	고탄소 산업	6.3	9.8	18.8
	중·저탄소 산업	0.0	0.1	0.4

\* 출처: 한국은행, 기후변화 이행 리스크와 금융안정, 2021

1) 측정 시점 기준 향후 1년 이내 부도날 확률

2) 기후 리스크 충격이 없이 경제구조가 2020년 수준을 유지하는 기준 시나리오 대비

신한은 이러한 한국은행 분석 결과의 고탄소 및 중·저탄소 산업의 부도율 증가를 준용하여 신한은행의 포트폴리오에 반영하고, BIS 비율의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때, 보유 금융자산 구조는 분석 대상기간(2021~2050년) 동안 기준시점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BIS 비율은 2050년 기준으로 2°C 시나리오는 1.47%p, 1.5°C 시나리오는 2.30%p 하락하여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분	대출 자산 <sup>1)</sup>	2°C 시나리오			1.5°C 시나리오		
		2030년	2040년	2050년	2030년	2040년	2050년
BIS비율	18.18%	17.48% (△0.70%p)	17.15% (△1.03%p)	16.71% (△1.47%p)	17.18% (△1.00%p)	16.74% (△1.43%p)	15.88% (△2.30%p)

1) 신한은행 대출 자산(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분석 (주식 및 채권 자산은 제외)

이행 리스크에 따른 국내은행 BIS비율 변화<sup>1)</sup>

\* 출처: 한국은행, 기후변화 이행 리스크와 금융안정 재구성, 2021

1) 규제기준은 10.5%(D-SIB 11.5%)

2) 국내은행 BIS비율이 2°C 시나리오에서 2.6%p 하락, 1.5°C 시나리오에서 5.8%p 하락 (2050년 기준)  
시중은행의 BIS비율은 2°C 시나리오에서 1.6%p 하락, 1.5°C 시나리오에서 3.7%p 하락 (2050년 기준)

## 2 Bottom-up 방식의 분석 결과

신한금융그룹은 기후 리스크가 금융기관으로 전이되는 경로가 복잡하고, 정책, 기술, 시장의 변화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정교한 시나리오 설정과 분석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배출량 측정 결과 이행 리스크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고탄소 업종과 같이 특정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점을 감안하여, 업종별 구체적인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나리오의 경우, 객관성 확보를 위해 S&P Global에서 OliverWyman과 함께 공동개발한 Climate Credit Analytics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향후 TCFD 보고에 있어 본 모형을 기반으로 보다 더 구체화 된 시나리오 분석을 추진, 공시할 예정입니다.

### Bottom-up 방식의 시나리오 분석 방법



시나리오의 경우 NGFS 시나리오(2050 탄소중립(1.5°C), 2°C 이하, 지연된 이행(Delayed Transition), 산발적 탄소중립(Divergent Net Zero), NDC 이행, 현재 정책 유지(Current Policies)의 총 6개)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룹 기준으로 수익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자산 100억 원 이상인 업체 중 금융배출량 우선순위가 높은 발전, 석유&가스의 두 가지 업종의 재무적 영향도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거시경제 변수 및 규제 변화, 해당 업종의 수요/공급 및 투자 변화, 업종 내 개별업체의 매출, 수익성 변화 등을 반영하여 개별업체의 재무상태 영향과 이에 따른 부도율 변화를 추정하였습니다.

업종은 고탄소업종 중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발전과 석유&가스 두 가지로 분석하였습니다. 발전 업종은 친환경으로 에너지 믹스 전환에 따라 화석연료 비중은 줄어들고,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비중이 증가할 것입니다. 탄소비용 증가 등으로 초기 전기 가격 상승 압력이 있으나 시간 경과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가격하락과 함께 전기가격 하락 압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화석연료 관련 발전의 생산단가는 탄소비용 부담에 따라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설비 등의 자산이 보다 이른 시기에 비활성화 되어 손상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에 반해, 친환경 발전으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자본지출)는 증가하게 됩니다.

석유&가스 업종의 경우 배출 비용 등 탄소 비용 증가로 제품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저탄소 경제 전환에 따른 화석연료의 수요 감소, 가격 경쟁력 하락 등으로 매출은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입니다. 단위당 생산단가는 탄소비용 등으로 상승 예상되며, 투자(자본지출)는 생산량 변화에 따라 기존 화석연료 생산/경제 관련 지출은 감소하는 반면 친환경 연료 전환 관련 지출은 증가 예상됩니다. 기존 화석연료 관련 생산설비 등의 자산은 손상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발전업종에 속한 업체의 경우 위의 6가지 시나리오에서 신용등급은 기준시점 대비 최소 1등급(현재정책 유지), 최대 4등급(산발적 탄소중립)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석유&가스 업종에 속한 업체의 경우 위의 6가지 시나리오에서 신용등급이 기준시점 대비 최소 2등급(현재정책 유지)에서 최대 3등급(산발적 탄소중립)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도율의 경우 두 업종 모두 기준시점 대비 최소 3배에서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리스크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서 분석합니다. 하나는 신한의 내부 운영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급성 물리적 위험에 취약한 건물 및 지점을 미리 파악하고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측면에서 물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자산의 성격과 범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재무적 영향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 3 신한 내부 운영 측면

신한금융그룹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업 상의 손실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본 사항을 구체적인 운영 리스크 요인으로 판단하여 비상 계획 등 반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과학원의 남한 상세 기후변화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극한 기후지수를 극한 기온(고온/저온)과 강수 극한 지수로 정의하고 있으며, 신한은 영업점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강수 극한 지수를 주요한 물리적 위험 지표로 활용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호우 일수의 증가를 검토하였으며 이는 일 강수량이 80mm 이상인 날의 연중 일수 증가를 말합니다.

남한 상세 기후변화 전망보고서는 IPCC 6차 평가보고서의 최신 온실가스 경로(SSP,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에 따라 산출하고 있으며, SSP1-2.6, SSP5-8.5 2개 시나리오에 대한 변화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탄소(SSP1-2.6), 고탄소 (SSP5-8.5) 시나리오 모두 21세기 후반기에 타 지역 대비 약 두 배 이상 높은 호우 발생일수와 증가 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권의 연평균 호우 발생일 수는 4.9일로 측정되었으며, 고탄소 시나리오 분석 결과 현재와 비교하여 21세기 전, 중, 후반기에 각각 1, 1.6, 2.4일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한금융그룹 그룹사 중 본점과 대부분의 지점이 제주도에 위치하고 있는 제주은행의 경우, 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 지역보다 집중 호우에 대한 물리적 피해 가능성성이 높으며, 일시적 영업 중지 등으로 인한 피해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평균 호우 발생일수와 연간 영업이익을 이용하여 신한에 미칠 수 있는 재무적인 영향을 분석해보면, 집중호우로 인한 물리적 피해 복구로 발생일수와 동일한 4.9일 정도 영업이 중단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약 4.4억 원의 영업이익 손실<sup>1)</sup>이 예상됩니다. 같은 기준으로 물리적 리스크 위험 증가에 따라 7.3일로 기간이 늘어날 경우, 손실액 또한 약 6.6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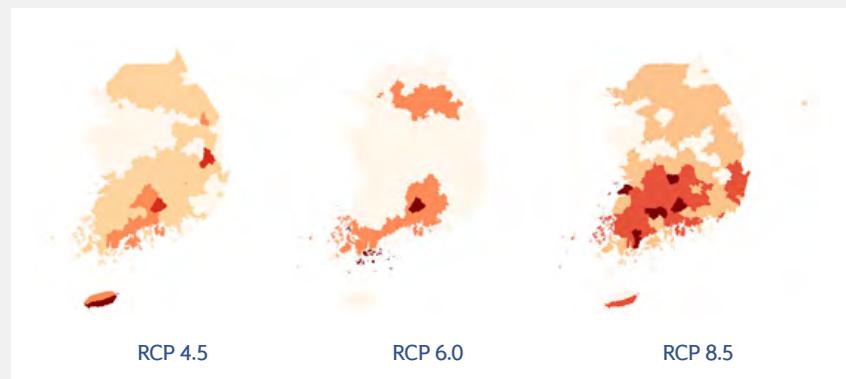
<sup>1)</sup> 1년 평균 영업일수 250일 가정, 2021년 제주은행 영업 이익 대비 추정치

### 4 자산 영향도 측면

신한금융그룹은 자산 측면에서는 실물 부문의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로 인한 영향을 분석합니다. 실물 부문의 물리적 피해가 금융기관으로 전이되어 금융기관 자산의 건전성이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한은 2021년 이화여대 및 금융감독원과 함께 진행한 기후 리스크 모형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행정구역별 호우 관련 데이터 및 미래 시나리오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본 모형에서는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대표농도경로) 시나리오 별 행정구역에 따른 호우 수준 데이터를 통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위험 지역 및 해당 지역 내 금융 자산 규모, 손실 예상액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2030년 기준으로 RCP 4.5에서 RCP 8.5로 시나리오가 악화될 수록 최대강수량이 높은 수준인 지역의 범위가 넓어지고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강수량 수준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신한은행의 대출자산 위험 노출은 1.15조에서 7.61조까지 확대됩니다.



물리적 리스크에 대한 분석 시점을 2050년으로 확대하고 강수 피해에 따라 부동산 담보가치가 10% 하락한다고 가정할 경우 신한의 손실예상액은 최대 789억 원으로 예상되며, 20% 하락할 경우 최대 1,752억 원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강수량 증가에 따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되는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의 경우 익스포저 수준은 11.1조 원이며, 부동산 담보가치 20% 하락 시 최대 약 300억 원 수준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아파트 등 주택에 비해 공장 및 상가 등의 손실이 더 클 것으로 보이며, 공장, 상가 등의 비중이 높은 경북, 전북, 전남은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한은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물리적 리스크가 금융기관으로 전이되는 경로를 정교하게 파악하고 시나리오 분석을 정교화 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화여대-금감원 Project Stu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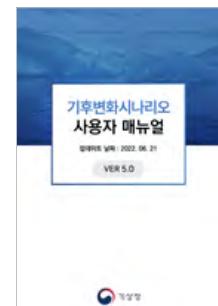
국내 호우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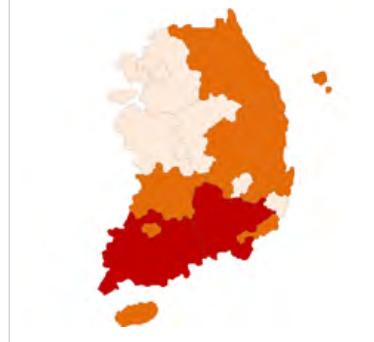
물리적 리스크 기반  
국내 재산 피해액(예상)



미래기후 시나리오



미래 기후시나리오별 피해 수준



금융기관으로의 전이 경로 및 영향



\* 기상청 데이터 및 자연재난 관련 통계 데이터 활용

## 신한금융그룹 탄소 가격

### 도입 목적

탄소 가격 책정은 배출 비용을 배출자에게 전가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온실가스(GHG) 배출을 줄이는 접근 방식입니다. 탄소 가격은 고배출업자에게 경제적 신호로 작용하여, 경제적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저탄소 전환을 추진할 것인지,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 결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탄소배출권 거래제 및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NDC 상향에 따라 온실가스 규제 및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사회가 파리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행동을 강화하고 가속화 함에 따라 탄소 가격 책정이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매우 유연하고, 효율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언급<sup>1)</sup>하고 있으며, 신한금융그룹은 탄소 가격 운영이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고 2050년까지 넷제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활용되는 중요한 도구라고 인식합니다.

덧붙여 탄소 가격은 내부 임직원들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임직원들의 행동 변화 또한 유도할 수 있습니다. 내부 탄소 가격의 경우, 금융 자산의 스트레스 테스트 및 시나리오 분석에 활용할 뿐 아니라 이 분석 기반의 투자 및 금융 지원 등의 저탄소 관련 기회 파악 및 활용, 거래 고객의 인게이지먼트에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탄소 가격 측정

탄소 가격을 측정하는 것에는 외부와 내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GHG 기준에 따라 Scope 1, 2, 3을 모두 구분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Scope 1, 2의 경우 외부 탄소 가격을 적용하고 Scope 3의 경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배출량에 대한 분석을 위해 내부 탄소 가격을 적용합니다. 외부 가격의 경우, 한국은 국가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배출권 거래를 통해 상쇄할 수 있는 '배출권 거래제' 시장 가격으로 설정합니다.

**KAU21<sup>2)</sup> 가격 범위 톤 당 2만 원 ~ 3만 원**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공개자료 참고, [ets.krx.co.kr](http://ets.krx.co.kr))

현재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자발적 탄소시장이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신한은 본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제공되는 가격 또한 향후 검토하여 외부 탄소 가격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외부 가격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또는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금액의 기반이 되며, 사업부의 투자 효과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됩니다.

(단위: US\$/t CO<sub>2</sub>)

Scenario	Region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Below 2°C	World	41.5	77.3	109.1	134.8	184.4	265.8
Below 2°C	South Korea	41.5	77.3	109.1	134.8	184.4	265.8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World	30.1	80.1	83.2	95.8	124.3	157.2
Delayed transition	World	-	-	135.3	188.9	328.8	704.0
Delayed transition	South Korea	-	-	131.6	239.2	497.3	973.5
Divergent Net Zero	World	204.3	263.7	353.3	421.8	741.1	1,646.6
Divergent Net Zero	South Korea	198.1	314.1	419.3	499.2	905.7	1,826.2
Net Zero 2050	World	61.1	96.9	137.7	174.8	267.6	562.2
Net Zero 2050	South Korea	87.5	139.5	212.9	260.2	371.6	717.9

\* 출처: NGFS Scenario Portal Data & Resource 참고

내부 탄소 가격의 경우, 기후변화 기회와 위기를 식별하는데 도움이 되며 여신/투자 결정을 하는데 있어 인센티브 또는 계약 조건 등에 반영할 수 있는 내부적으로 개발된 탄소 비용이어야 합니다. 신한은 기후변화 위기 분석을 위해 NGFS에서 제공하는 총 6개 시나리오를 적용하였으며, 해당 시나리오에서 적용한 탄소 가격을 기반으로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을 기준으로 NGFS에서 제공하는 탄소가격은 2°C 이하, 2050 탄소중립(1.5°C), 지연된 이행, 산발적 탄소중립 네 가지 분류이며, 신한은 전략적 지향점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내부 배출량 가격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2025년 톤당 87.5달러에서 2050년까지 717.9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본 가상의 비용을 통해 기업 고객들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향과 부도율, 신용등급의 변화를 추정합니다.

향후 신한은 내부 가격을 보다 더 구체화하여, 각 계열사의 금융배출량 감축에 있어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고 재무적인 영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sup>1)</sup> 파리협정규칙 6조

<sup>2)</sup> Korean Allowance Unit 21로 국가에서 허용하는 2021년 할당배출권을 의미함

## 신한금융그룹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로드맵

신한금융그룹은 그룹 자산 포트폴리오의 금융배출량을 2050년까지 'Zero'로 만든다는 목표를 통해 친환경 금융의 국내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차별화된 Zero Carbon Drive 전략을 통해 고탄소 배출 기업 및 산업에 대한 대출·투자를 관리하고, 친환경 전환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저탄소 경제 전환에 역할 하고자 합니다. 그룹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중립을 위해 PCAF(탄소회계 금융협회)가 제시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금융배출량 측정을 고도화해 나가고 있으며, SBTi 방법론을 기반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2021년은 그 시작으로 금융배출량의 정기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위해 Data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 기후변화 공동 대응과 협력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글로벌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한금융그룹은 2007년 3월 CDP 가입을 시작으로 기후변화 공동대응, 목표 설정, 배출량 측정, 관리, 공시 등과 관련된 다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기후변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도화된 기후전략을 바탕으로 친환경 금융생태계에서의 리더십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동 대응	목표 설정 및 측정	공시방법론
 <b>UN 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 (UNEP FI)</b> 2008년 1월 가입 2019년 PRB(책임은행원칙) 참여	 <b>과학기반감축목표 (SBTi)</b> 2020년 11월 가입 금융자산의 탄소감축 목표 설정	 <b>기후변화 재무공개 전담 협의체 (TCFD)</b> ● 2018년 권고안 지지 서명 2019년 사회책임보고서 통해 첫 공개
리스크 관리	기후대응활동 평가	
 <b>글래스고 탄소중립 금융연합 내 이니셔티브</b> ● 2021년 4월 탄소중립은행연합(NZBA) 가입 2021년 7월 탄소중립 자산운용 이니셔티브(NZAMI) 가입 2021년 10월 탄소중립보험연합(NZIA) 가입	 <b>적도원칙 (Equator Principles)</b> ● 2019년 프로세스 구축 2020년 가입 및 검토대상 거래에 적도원칙 적용	
● 국내 업계 최초		

### 신한금융그룹의 기후변화 글로벌 리더십

2021년 11월, 그룹 CEO인 조용병 회장이 UNEP FI 최고 협의회인 리더십위원회의 아시아 유일의 멤버로 선출되어 글로벌 지속가능금융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인 2020년 11월에는 그룹 CSSO인 박성현 부사장이 UNEP FI의 글로벌운영위원회 아시아-태평양 뱅킹 부문 대표로 선정되어 금융기관들의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한금융그룹의 탄소중립 전략 추진 현황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수렴하는 우수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 개최된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주최측이 초청하는 공식 행사와 정부가 운영하는 한국홍보관, NZBA 주관의 Net Zero Pathway 관련 패널 토론에 참석하여 당사의 탄소중립 전략과 진행현황을 전세계에 공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한금융그룹은 글로벌 기후변화 트렌드를 선도하는 리더로서 지속적인 관련 투자와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대응을 통한 기회 요인 발굴

정부는 2021년 4월 발표된 유럽의 녹색분류체계인 EU Taxonomy 발표에 대응하여 환경부 주도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K-Taxonomy 최종안을 발표(2021.12.30)하였습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기준으로서, (1) 환경목표 기여할 것 (2)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3) 최소한의 보호장치(아동노동, 강제노동 등 금지 등)라는 기본원칙 아래 6대 환경목표<sup>1)</sup>에 기여하기 위한 총 69개의 세부 경제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기적(2022년)으로는 '녹색채권'에 한하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며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향후 녹색여신, 녹색펀드,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금융기관과 기업의 공시 전반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신한금융그룹은 전 그룹사 비상설 네트워크인 'K-Taxonomy 대응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정부당국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협업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그룹사의 관심 확산 및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으며, 명확한 그룹사별 담당과 역할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도입으로부터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완화하는 한편, 녹색금융에서의 비즈니스 기회요인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녹색금융 확산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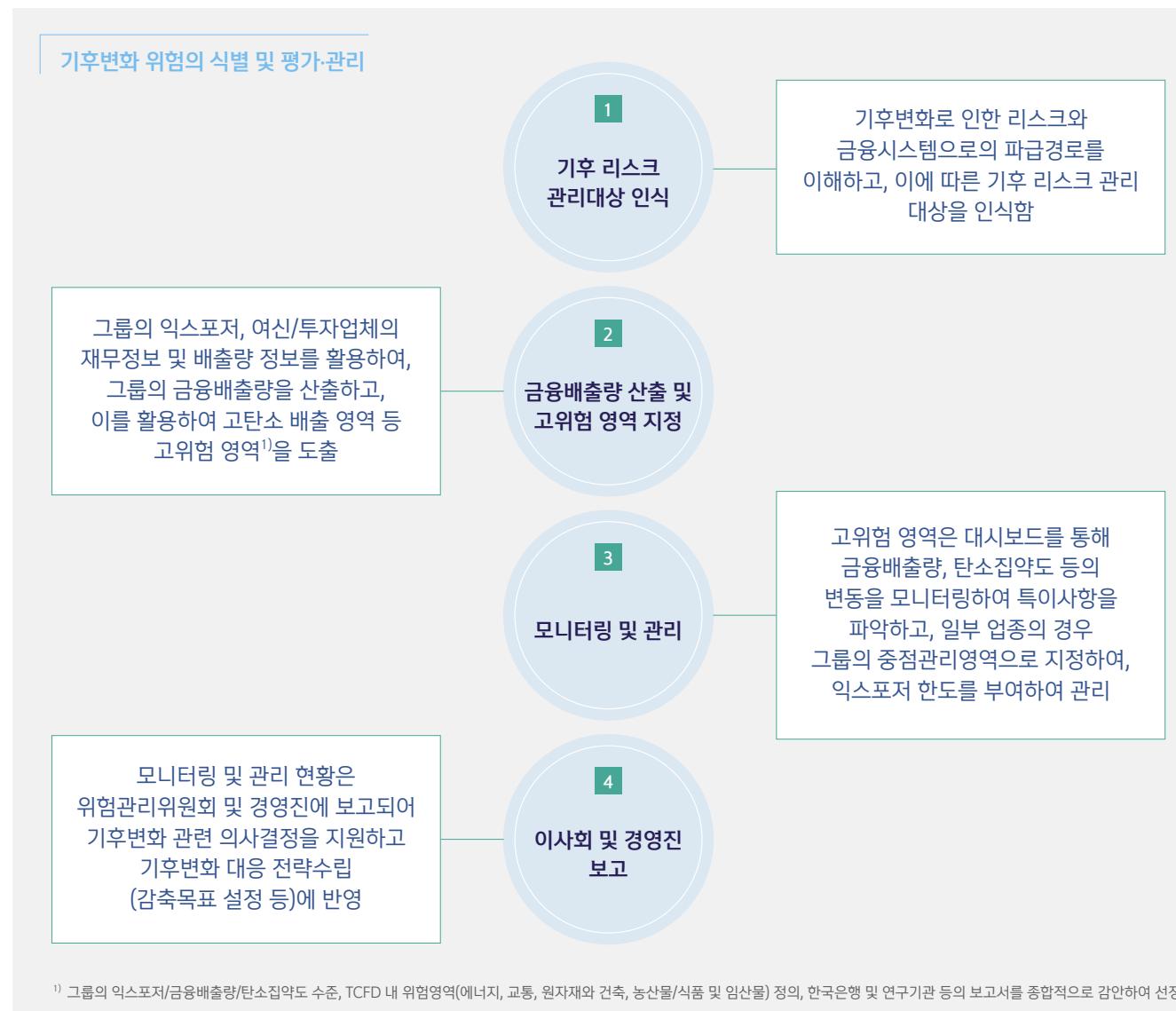
<sup>1)</sup>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 탄소중립을 이끄는 왼쪽 바퀴, 리스크 관리

TCFD 권고안에 내 리스크 분류체계에 기반하여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사회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적합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리스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배출량 측정시스템 및 DB 구축, 기후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수립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였습니다.

## 주요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신한금융그룹은 금융배출량 분석 결과와 대내외 최신 연구결과 등을 반영하여 기후변화 취약영역을 파악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 영역의 경우 한도설정 등을 통해 관리하고, 감축 목표와 연계하여 기후변화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기후 리스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여 여신 및 투자 심사 프로세스에 반영하고, 그룹의 Zero Carbon Drive 달성을 위한 전략 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주요 리스크 식별

신한금융그룹은 급변하는 기후변화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TCFD 권고안의 리스크 분류체계에 기반하여 분류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구분	재무 리스크			비재무 리스크			
	신용	시장	평판	규제	기술	법률	물리적
이행 리스크	정책 및 법률 위험	●	●	●		●	
	기술 위험	●		●	●		
	시장 위험	●	●		●		
	평판 위험	●		●	●	●	
물리적 리스크	급성 위험	●		●			●
	만성 위험	●		●			●

### 재무 리스크

**신용 리스크** 신한금융그룹은 자산 포트폴리오의 금융배출량을 산출하고, 기후 리스크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발전, 유틸리티, 에너지, 재료 부문은 미래 탄소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후 변화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통해 그룹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저탄소 배출 경로로 전환한다면 상쇄 배출권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 리스크** 시장 리스크는 소비자 행동 변화나 상품, 서비스에 대한 수요공급 변화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말합니다. 신한금융그룹은 고객 요구사항과 기후변화에 따른 소비자 및 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인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3020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관련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평판 리스크**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기업의 지속가능 활동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이 기후변화 및 환경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영업이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적도 원칙을 적용하고, 12개의 환경사회 유의영역을 선정하여 평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비재무 리스크

#### 규제 리스크

배출권 거래제 하에서 허용 배출권이 줄어들 경우 초과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며, 배출량 감축을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룹의 고객사 또한 배출권 구매나 효율설비 투자 비용 등으로 인한 채무상환능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현행 규제가 강화될 경우,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고 비예상손실의 발생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이에 신한금융그룹은 금융배출량 측정시스템을 개발하여 그룹 및 기업의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기술 리스크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저탄소 친환경 기술들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포함하는 금융상품을 확대·개발하지 않을 시 매출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술개발 및 시장 동향 고객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에너지 팩토링, 그린 리모델링 2차 대출, 신재생에너지펀드 등 빌딩에너지 관련 상품을 운용하고 있으며, 향후 기술개발 분야 및 속도에 따라 관련 금융상품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법률 리스크

신한금융그룹이 투자한 기업이나 프로젝트가 법률, 규칙 또는 규정을 위반하거나 규정된 관행, 내부 정책, 절차 또는 윤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현재 또는 예상되는 재무 상태 및 회복력에 대한 위험을 말합니다. 기후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어 사업주가 법적 처벌을 받을 경우, 브랜드 가치와 재무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통해 투자회사 또는 프로젝트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 반영을 의무화하는 조건부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물리적 리스크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은 신한금융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산간지역에 위치한 은행 지점들의 경우, 집중호우에 의한 물리적 피해 가능성이 비교적 높으며, 이로 인한 일시적 영업중지 등으로 인해 업부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평균 기온 상승은 전력 사용량과 수돗물 사용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 생산성도 감소시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기상변화에 취약한 건물 및 지점을 미리 파악하여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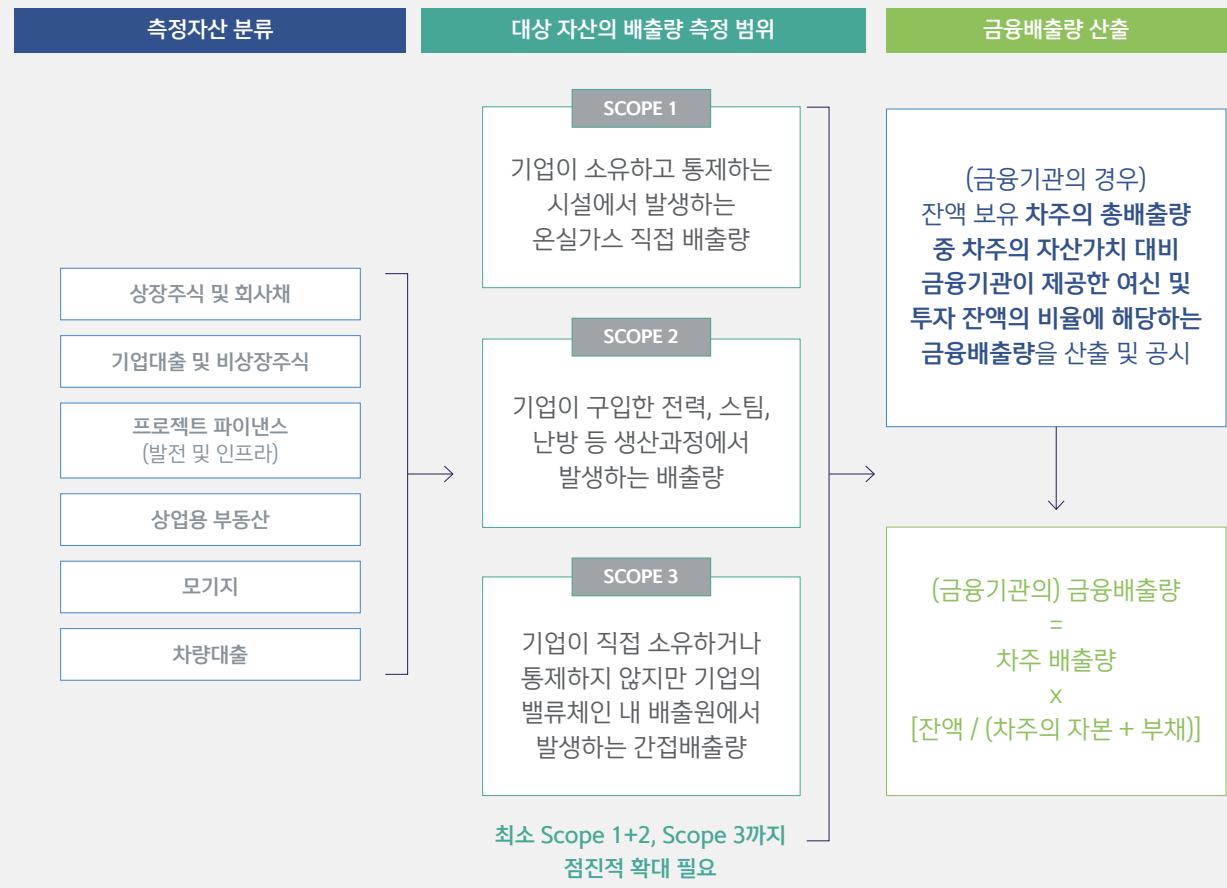
## 주요 리스크 평가 및 관리

앞서 설명된 주요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평가 및 관리하기 위해 독자적인 금융배출량 측정시스템을 개발하여 그룹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금융배출량 대시보드 체계를 통해 이를 전사차원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12개의 환경사회 유의영역을 선정하여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국내 금융사 최초로 적도원칙을 적용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진행 중입니다. 2022년 3월에는 국내 금융사 최초로 '기후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금융배출량 측정시스템 및 DB 구축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그룹의 2050 Net Zero 목표 달성을 위해, 그룹의 금융배출량을 정기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금융배출량 산출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 중입니다. 그룹 산하 금융 자회사의 여신 및 투자 잔액과 금융배출량 산출 관련 데이터를 취합하여 금융배출량을 산출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탄소회계금융협회(PCAF) 온실가스 회계기준에 따라 그룹의 보유 자산을 대상(6개 자산군)으로 금융배출량을 산출하여 공시합니다.

### 금융배출량 산출 방법



## 금융배출량 시뮬레이션

아울러 신규 대출 및 투자 시, 업체의 재무정보와 배출량 정보를 활용하여 예상되는 금융배출량을 추정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파악된 금융배출량 규모와 집약도 등을 확인하여 심사 프로세스에 활용합니다.

## 리스크 대시보드 운영

그룹 전체와 계열사별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와 연계하여 목표대비 금융배출량 및 집약도의 현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룹사별 탄소배출량을 정기적으로 산출하고 모니터링합니다. 특히, 자산 포트폴리오 금융배출량 및 집약도의 급격한 증가나 편중에 따른 위험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금융배출량 대시보드 체계<sup>1)</sup>를 운영하여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한금융그룹은 2017년 수립한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체계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PCAF 기준의 금융배출량 측정 시스템 구축하여 기존 Phase 1 단계를 고도화하고, Phase 2를 위한 ESG 내부모형 개발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환경·사회 유의영역 모니터링

신한금융그룹은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사회적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사회적 측면의 주의가 필요한 12개의 영역을 선정하여 대상 영역에 대한 그룹의 익스포저를 모니터링합니다. 유의영역을 포함하여 사회환경적 주요 이슈 발생 시 그룹의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하며, 모니터링 결과는 각 그룹사의 리스크 관리 협의체와 경영진 등에 보고되어 관리됩니다.



### Phase 1 (2017년~2020년)

목표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도입기반 마련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정책/프로세스 수립	Phase 2 (2021년~)
추진방향	I. 환경사회 리뷰	II. 유의영역 관리	III. ESG 평가 활용 여신의사결정	
핵심과제	환경사회 위험수준 분류 · 대규모 해외 PF (10백만 USD 이상) · 위험수준(A~C등급) 분석  환경사회 리뷰 · 고위험 PF(A, B등급) 필수 점검	환경사회 리뷰 정교화 · 글로벌 기준에 따른 심사체계 구축 · 위험수준별 현황 등 정보공개 수행  유의영역 관리 정책 수립 · 주요 영역 선정 및 관리방안 수립	ESG 평가모형 개발 · ESG 요소를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모형 개발  여신 의사결정 체계 내재화 · ESG 등급을 활용한 여신 의사결정	
↓			↓	
PCAF 기준 배출량 측정 시스템 구축을 통한 환경영역 관리기반 확보			ESG 내부모형 개발을 통한 여신 의사결정 고도화	

<sup>1)</sup> 그룹사별 전체 및 고단조 배출 영역에 대해 자산 포트폴리오 배출량 및 집약도의 임계치(트리거 포인트)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분석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프로세스

## ESG 대출/투자 심사 프로세스 구축: 평가모형

신한금융그룹은 ESG 측면의 개별 평가를 통한 여신의사결정 체계 정교화·고도화를 위해 ESG 평가모형을 개발하였습니다. ESG 측면의 다양한 데이터를 검토/선정하여 모형에 반영하였으며, ESG 등급을 감안하여 우대금리 적용, 신상품 개발, 심사 프로세스 및 한도 설정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 신한 ESG 등급

평가 관점	기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ESG에 대한 평가
활용 방안	우대금리 적용, 신상품 개발, 심사 프로세스 반영, 한도 설정 등에 활용 예정

### 적도원칙 반영

2020년 9월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신한은행이 적도원칙에 가입하였습니다.

적도원칙(The Equator Principle)이란, 대형 개발사업이 환경 파괴나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협약입니다. 신한은행은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 시 적도원칙을 적용하여 잠재적인 환경·사회 리스크 및 영향을 검토합니다.

#### 적도원칙 적용 대상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의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

#### 적도원칙을 반영한 환경사회 리스크 검토 절차

- 환경사회 리스크 및 영향의 정도에 따라 등급 분류 필요 (A~C등급)
- 등급에 따라 환경사회 영향평가 실시, 관리시스템 구축, 액션플랜 수립, 모니터링 검증
- 금융 약정서 반영 (합의사항 준수 등), 적도 원칙 이행 현황 정기보고, 정보 공개

## 신한자산운용의 탄소중립 주주서한 회신 결과

신한자산운용은 2020년 10월, 국내 자산운용사 최초로 투자 기업에 대해 탄소중립 주주서한과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대상기업 (242개사 → 338개사)과 질문항목(12개 → 20개)을 확대하였으며, 회신율 또한 상승(41.7% → 53.8%)하였습니다. 절반이 넘는 10개 업종에서 50%를 상회하는 회신율을 기록하며 활발한 주주 커뮤니케이션과 ESG 경영,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신한자산운용은 해당 회신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추가적인 인게이지먼트 활동과 ESG 투자 등급 조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주서한 회신을 통해 파악된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선언과 이행역량·조직 사이의 고리를 줄이기 위해 인게이지먼트를 확대하고,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주주서한 회신 분석 결과

#### 기후 대응 보고서 발간 가속화

회신기업의 60% 이상이  
기후대응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고 응답

미발간 기업 중 82%가  
작성 계획을 밝혀 향후 기후  
대응 보고서 발간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

#### 실천가능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어려움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 제정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NDC) 상향에 따라 다수의  
기업들이 실천가능한  
목표 설정에 어려움 표출

회신기업(182개) 중  
9개 기업만이 상향된  
NCD에 부합

#### 감축목표 선언과 이행역량·조직 사이의 차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가졌다  
는 응답은 65.9%이나,  
이사회 수준의 기후변화 관련  
조직을 갖췄다는 응답은  
52.7%로 나타남

기후변화 거버넌스에  
있어서의 차이는 실행력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

감축목표 수립기업 중 54.2%가  
향후 1년 내 목표 상향 계획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한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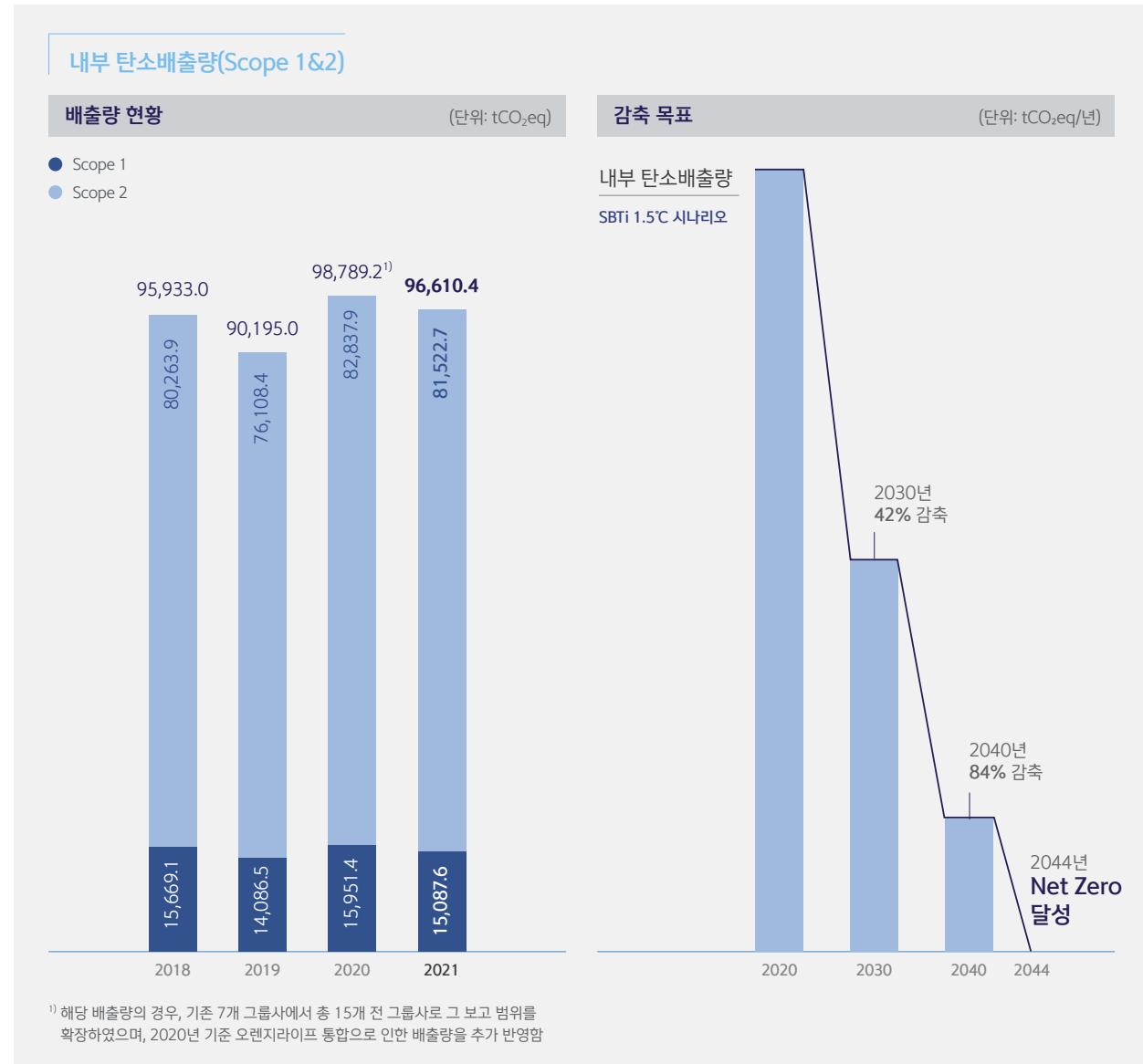
# 지표와 목표

신한금융그룹은 보다 고도화된 PCAF 기반의 자산 포트폴리오 금융배출량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목표를 수립하고, 2022년부터 그룹사 CEO평가에 반영함으로써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경로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 과정에서 신한은 관련 지표와 목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하여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겠습니다.

## 탄소배출량 측정과 감축 목표 설정

탄소중립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의 양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신한금융그룹이 직접 에너지 소비를 통해 배출하는 내부 온실가스(Scope 1&2)는 물론 자사의 투자 및 대출 등으로부터의 발생하는 자산 포트폴리오 배출량(Scope 3) 측정 및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과학적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에서 제시하는 파리기후협약(1.5°C 시나리오) 기반의 과학적 툴을 활용하여 그룹 내부 탄소배출량을 2030년 42%, 2040년에는 84%까지 감축하고, 2043년 Net Zero를 달성을 계획입니다. 또한, 2°C 시나리오에 기반한 SBTi의 부문별 탈탄소 접근법(SDA)을 적용하여 금융자산의 금융배출량을 2030년 33.7%, 2040년 59.5%, 2050년 83%까지 줄이고자 합니다. 신한금융그룹은 2020년 SBTi에 가입한 이후 분기별로 관련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분기별 그룹 경영실적 발표 시 탄소배출량 정보를 공개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 2021년 그룹 자산 포트폴리오 금융배출량(Scope 3)

배출량 현황					
자산 구분	산출 자산 규모	금융배출량	배출량 비중	배출집약도	(단위: 조 원, 만tCO <sub>2</sub> eq)
상장주식 및 회사채	46.3	721	15.4%	15.6	2.8
기업대출 및 비상장주식	126.6	3,602	77.1%	28.4	3.6
프로젝트 파이낸스	3.3	232	5.0%	70.7	3.7
상업용 부동산	17.5	53	1.1%	3.0	4.0
모기지	27.8	14	0.3%	0.5	4.0
차량 대출	5.9	47	1.0%	8.0	4.3
<b>종합</b>	<b>227.4</b>	<b>4,669</b>	<b>100%</b>	<b>20.5</b>	<b>3.5</b>

<sup>1)</sup> PCAF 기준서에 기반하여 공시된 배출량, 물리적 활동량 기준의 배출량, 경제적 활동량 기준의 배출량 중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했는지에 따라 1점에서 5점까지 점수 부여

산업 부문 및 자산별 탄소 집약도								
	발전	철강	시멘트	화학	제지	알루미늄	운송	기타산업
기업대출	164.20	128.00	124.40	76.80	62.70	54.70	47.92	21.03
비상장주식	-	52.50	56.90	61.30	90.90	41.80	48.90	6.40
상장주식	178.70	169.30	223.70	18.70	82.50	8.00	14.75	3.00
회사채	187.00	163.70	320.20	78.40	94.00	47.00	9.00	4.37
<b>총합</b>	<b>181.39</b>	<b>131.76</b>	<b>122.65</b>	<b>77.03</b>	<b>63.97</b>	<b>54.56</b>	<b>35.63</b>	<b>16.09</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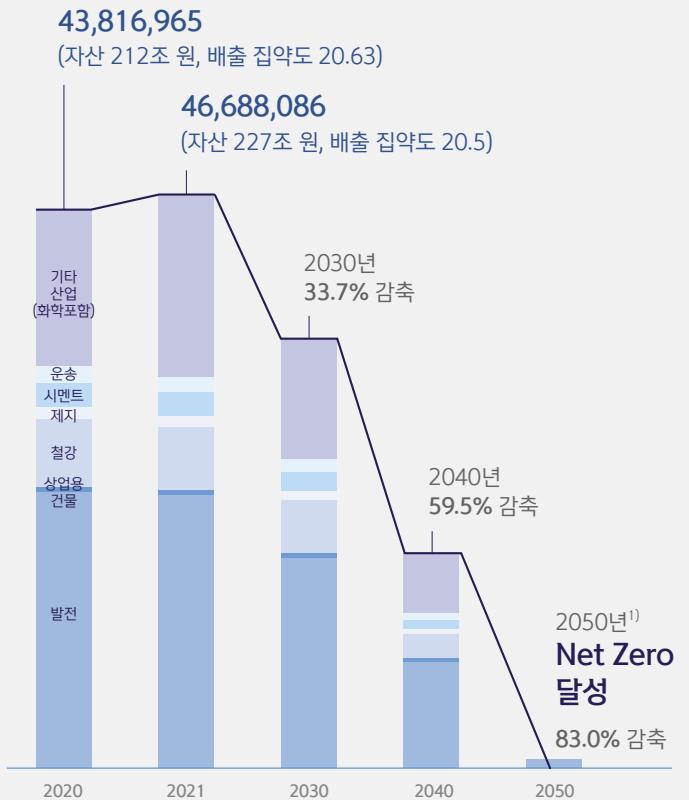
탄소집약도 높음

탄소집약도 낮음

감축 목표	(단위: tCO <sub>2</sub> eq/년)
-------	-----------------------------

#### 그룹 자산 포트폴리오 금융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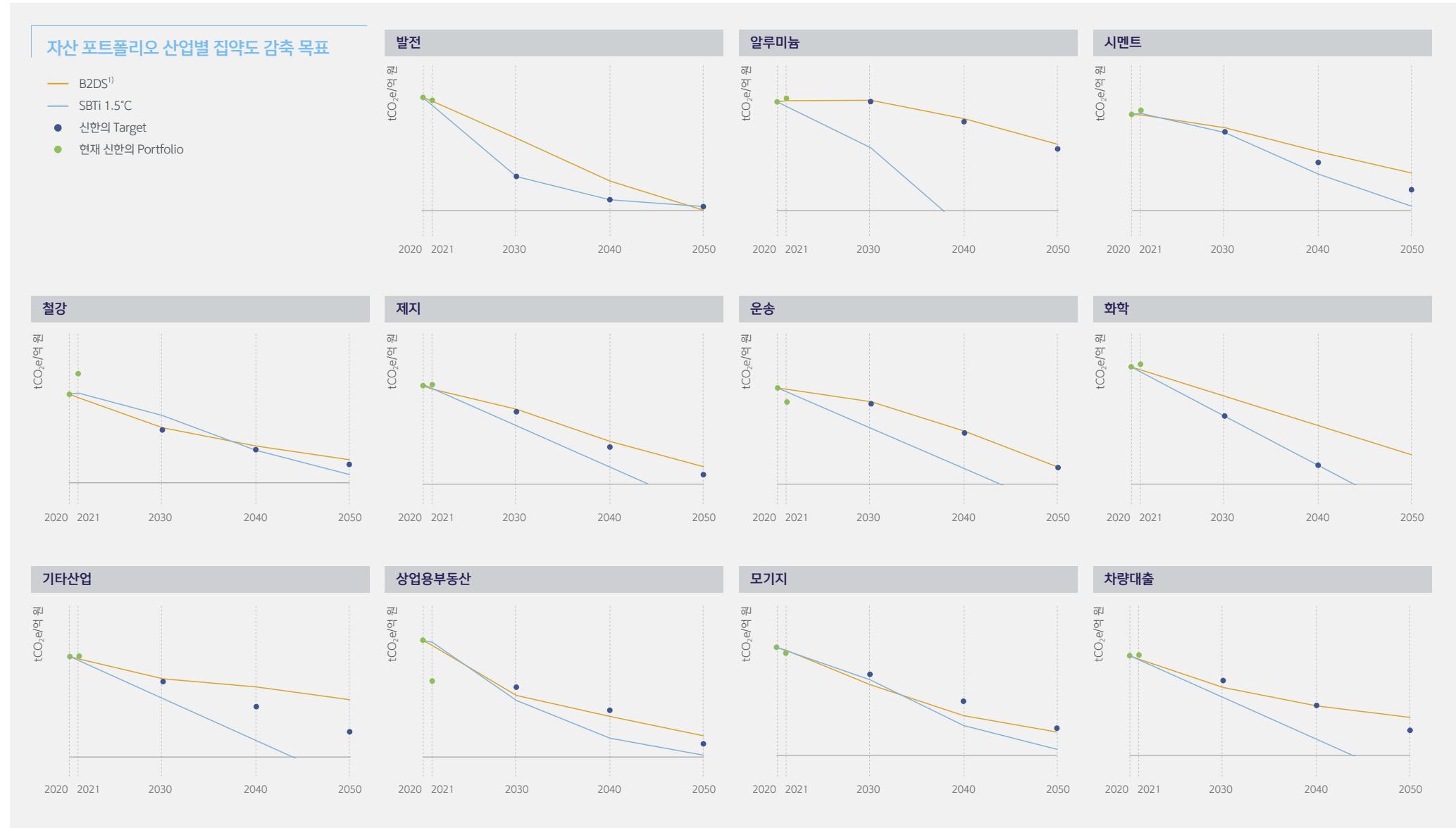
SBTi 2°C & 1.5°C 시나리오 활용



<sup>1)</sup> 2050년의 잔여 배출량의 경우, 친환경 금융 투자 등 상쇄 방안을 반영하여 Net-Zero화 추진 예정

## 탄소회계 금융협회(PCAF) 기반 금융배출량 측정과 감축목표 설정

신한금융그룹은 2021년 PCAF 기반의 금융배출량 측정을 진행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50년까지의 연도별/산업별 감축목표를 국내 금융사 최초로 수립하였습니다.



<sup>1)</sup> B2DS 시나리오: 2°C 미만 시나리오(Beyond 2°C Scenario, B2DS)는 온난화를 2°C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현재 가용한 기술과 혁신 과정이 있는 기술 등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포함하여 분석하며,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 1.75°C 달성을 전망

## 미래 세대를 위한 신한의 친환경 금융 지원 약속

신한금융그룹은 금융기관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자본을 제공함으로써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사는 파리 협정의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산업 프로세스, 토지 이용, 건물, 운송 및 기타 기반 시설의 급격한 저탄소 전환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룹의 친환경 전략인 'Zero Carbon Drive'에 따라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약 15배에 달하는 30조 원의 규모로 친환경 금융 지원(상쇄)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전반에서의 친환경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확대함으로써 미래 세대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친환경 자산 규모 확대

- 친환경 新성장동력 발굴
  - 친환경 新기술 투자/기업 발굴
  - 재생에너지 지분 투자 확대 등
- K-Taxonomy 반영한 실적 관리 실시

#### 친환경 금융(상쇄) 목표

(단위: 조 원)

■ 전년 누적 ■ 대출 ■ PF<sup>1)</sup> ■ 투자<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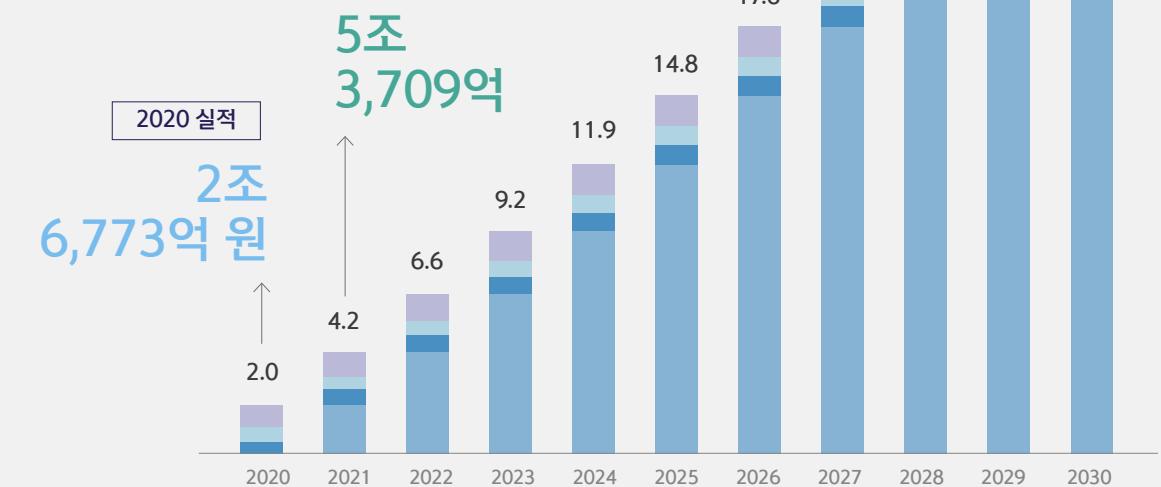
#### 친환경 금융

# 30조 원

(2020년~2030년 신규 누적)

2020 실적

2조  
6,773억 원



\* 상쇄 목표는 태양광/풍력 기반 재생에너지 PF 비중이며, 감축 노력 없이 탄소배출량을 상쇄 가능한 수준으로 추정하였음

<sup>1)</sup> 신한금융그룹사 펀드를 통한 투자실적은 제외(친환경 투자에 포함)

<sup>2)</sup> 운용사 투자실적 및 판매사(은행, 증권사 등) 펀드판매 실적

# Do the Green Thing for a Wonderful World

신한금융그룹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그룹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기후 관련 이니셔티브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체계화된 시나리오 기반의 탄소배출량 분석을 통해 신한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녹색 금융의 길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한은 'Do the Green Thing'의 슬로건 하에서 녹색 금융 실행을 위한 속도를 더욱 높여 가겠습니다.

신한 내부 배출량과 금융  
배출량에 대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관리 프로세스와  
세부 실행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환경평가/지표 연계 금융  
상품 개발, 친환경 PF  
투자 확대 등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 요인을 그룹의  
비즈니스 전략에 보다 확실히  
통합할 수 있는 변화들을  
장려하겠습니다.

변화에 따른 수치와  
신한의 재무적 영향도를  
매년 정밀하게 분석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현재 기후변화 관련  
데이터와 분석모형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에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업계를  
선도하는 벤치마크 모델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본 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야할 많은 여정과 미래 앞에서  
기후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녹색금융에서의 확고한 리더십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 다양성 보고서

신한금융그룹에서의 다양성 85

조직 다양성 존중 88

다양성 문화 조성 89

# 신한금융그룹에서의 다양성

## 다양성 관리의 중요성 인식

다양성과 포용의 개념은 사회적으로 올바른 가치 이상의 중요성을 갖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다양한 배경과 가치관을 지닌 임직원 확대 등에 대응하여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은 이제 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주요 평가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조직 내 다양성 관리를 통해 구성원 간 갈등을 방지하고, 개개인의 다양한 경험과 가치, 행동이 갖는 혁신성과 시너지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 역시 다양성을 기업 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칙과 정책,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과 성과를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하고자 2021년 첫번째 다양성 보고서를 공개하였으며, 올해 그 두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한은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이를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Do the Fair Thing' 캠페인 발표**

신한금융그룹은『Do The Fair Thing』for a Wonderful World라는 그룹의 슬로건 아래 누구나 공정한 기회와 만날 수 있는 멋진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 다양성과 포용의 원칙

신한금융그룹은 다양성을 그룹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하지 않는다는 대전제 하에 5대 약속을 기술한 '다양성과 포용의 원칙'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성과 포용에 대한 추진 의지를 명확히 표명하고, 이행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 다양성과 포용 - 신한금융그룹의 약속

신한금융그룹은 사람과 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직원과 고객, 사회구성원 모두를 소중히 여기고 포용합니다. 다양성과 포용은 우리의 미션인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뒷받침하는 핵심가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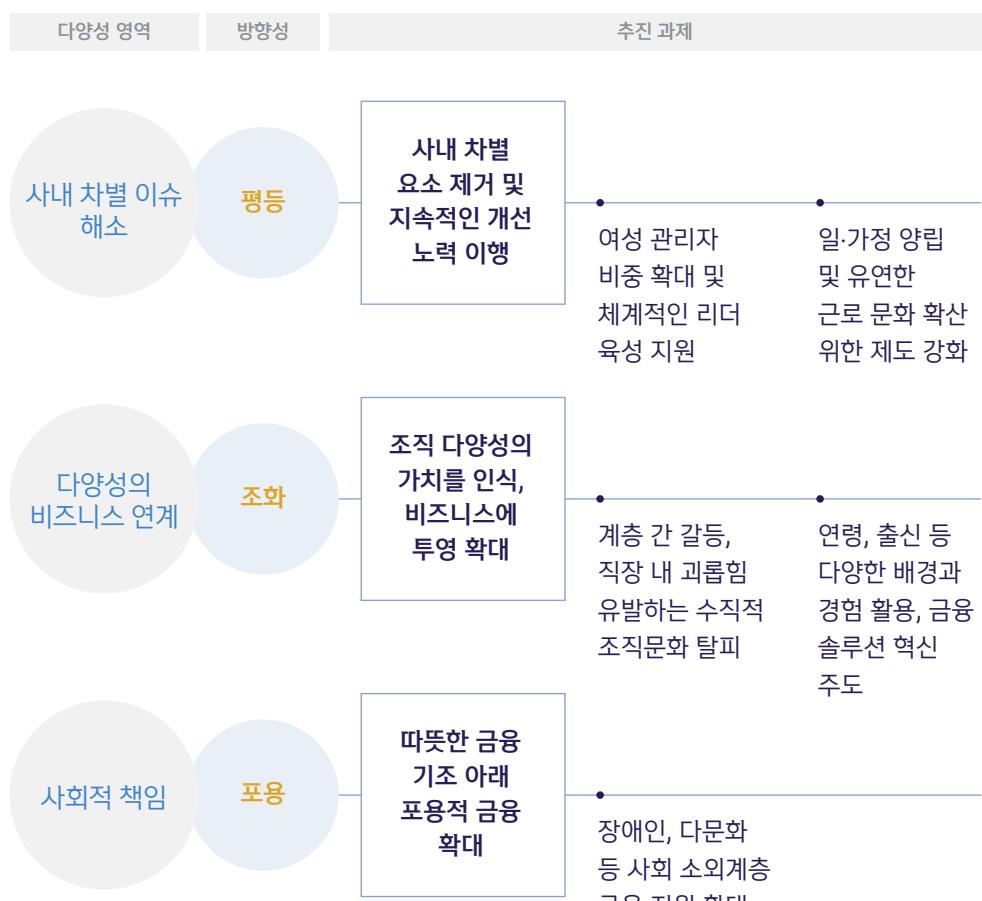
우리는 모든 업무에서 젠더, 장애, 국적, 학연, 지역, 종교, 성적지향 등 개인적 특성, 배경, 정체성 또는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편견을 갖거나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 1 직원의 채용과 인사관리에 있어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합니다.
- 2 이사회와 경영진의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우선적으로 젠더 다양성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 3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개성을 존중 받으며 일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포용적 문화를 조성합니다.
- 4 고객을 비롯한 모든 비즈니스 상대방의 개별적 정체성을 존중하고 동등하게 대우합니다.
- 5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여 공동체 일원으로 희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 다양성 현황 분석 및 추진 방향

신한금융그룹은 다양성 현황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차별금지, 인재 다양성 및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문화, 여성 리더 육성을 위한 목표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내부 체질개선을 위한 사내 차별 해소와 다양성의 비즈니스 연계, 고객과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양성 전략의 3가지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 과제를 발굴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 3대 핵심 과제

		추진방향	세부 내용
	<b>여성 리더 육성</b>	여성 경영진 및 부서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관리자 비율 중장기 목표 수립</li> <li>· 여성 경영진 및 부서장 인원 증가, 여성 관리자 비율 개선 추진</li> </ul>
		여성 리더 육성 실행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리더 육성 면담 및 자회사 경영리더 육성 평가(CEO 평가)를 통한 여성 리더 육성 정책의 실행력 강화</li> </ul>
	<b>장애인 지원</b>	고용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수행 직무 발굴 및 일자리 창출</li> <li>· 직업교육/현장체험 기회 확대</li> </ul>
		사회적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표준사업장 거래 확대 및 연계고용</li> <li>· 사회적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li> </ul>
	<b>다문화 지원</b>	금융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전용 금융 컨설팅 확대</li> <li>· 장애인 금융사기 예방 및 보호</li> </ul>
		사회 융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 학습 및 문화 이해도 제고를 통한 사회성 향상</li> <li>· 지역사회 교류 활성화 지원</li> </ul>
	<b>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융화 및 다문화 공존을 도모하고 있습니다.</b>	금융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노동자의 금융 격차 해소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특화서비스 확대</li> <li>· 산업연수생 금융서비스 개선 및 확장</li> </ul>
		저개발국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FG 글로벌 진출 국가 및 사업 연계, 취업 교육 및 일자리 제공</li> <li>·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 및 지원 사업</li> </ul>

## 다양성 가치 창출

2022년 국내 최초로 블룸버그  
양성평등지수(GEI) 우수기업  
4년 연속 선정

2019년 여성가족부와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체결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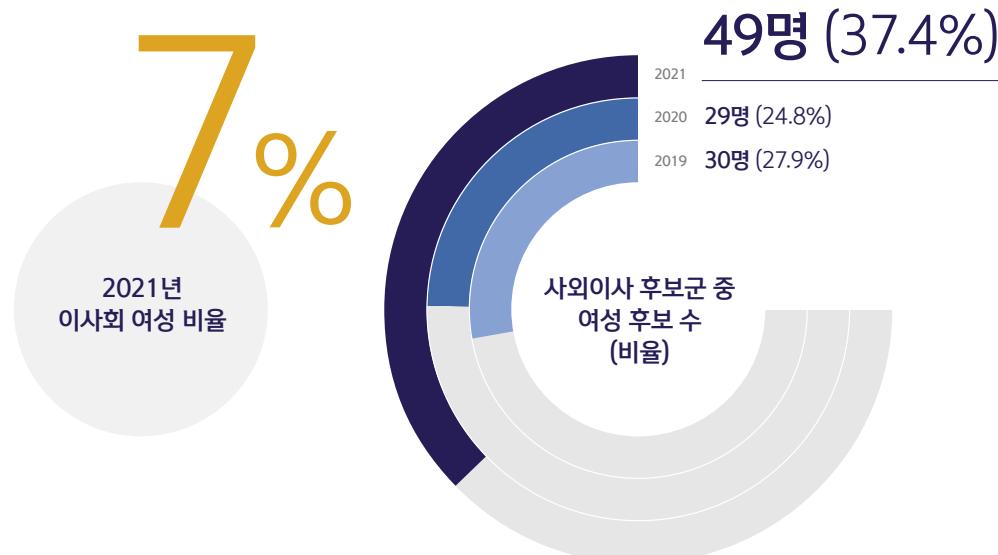
(신한은행,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신용정보, 신한캐피탈)

# 조직 다양성 존중

## 이사회 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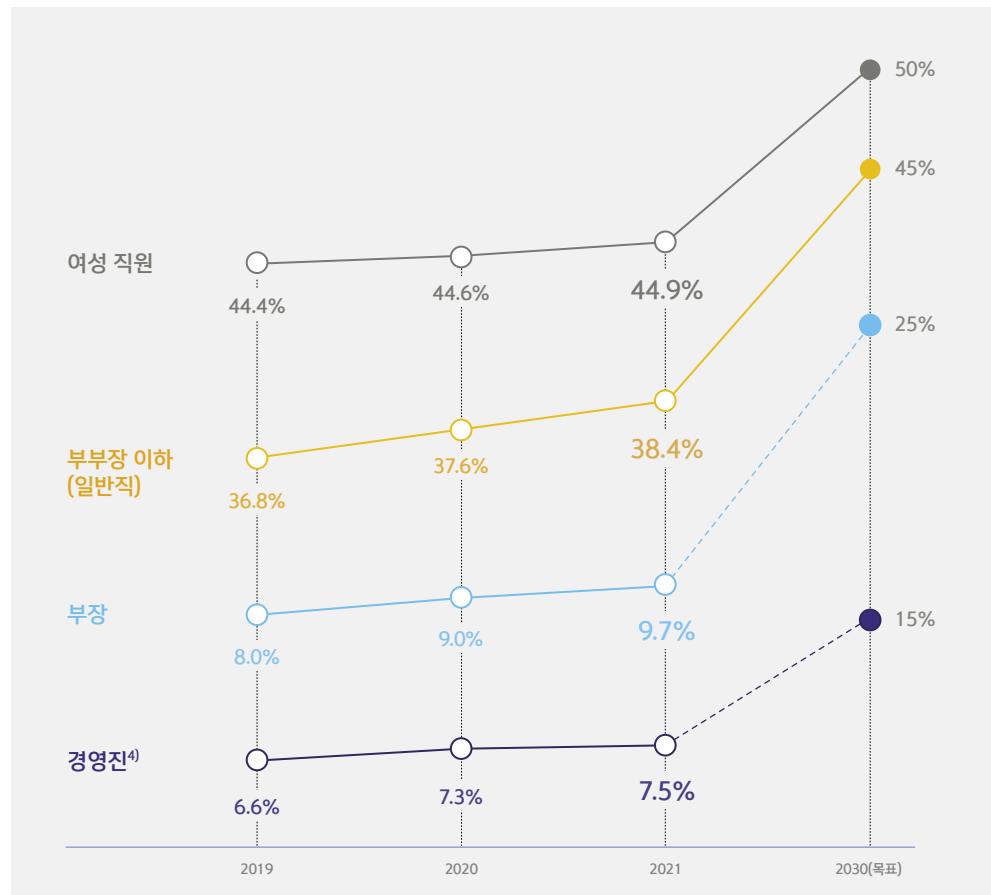
신한금융지주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원칙'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명문화하여 지배구조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구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14명의 이사회 구성원은 경영, 금융, 글로벌 등 총 7개 주요 전문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한금융그룹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적, 성별, 연령, 경험 및 배경 전반에 걸쳐 다양한 경험과 관점을 보유한 사외이사 후보군을 구성하도록 정한 '이사회 다양성 Guideline'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시 사외이사 후보군에 최소 20% 이상 여성 후보군을 반영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여성 사외이사 1명을 포함하여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다양한 국적 및 활동국가 출신의 사외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글로벌 관점에서 경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조직 내 여성 역할 확대

신한금융그룹은 지속적인 여성인재 육성 정책을 통해 여성 임직원 비율<sup>1)</sup>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조직문화와 효율적부서 운영을 위해 신한은 전체 부서(수익창출부서<sup>2)</sup>, STEM부서<sup>3)</sup>, 지원부서, 등)의 임직원 남녀 성별 비율을 균등하게(50%) 운영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1) 7개 그룹사(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기준

2) 영업점 등

3)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4) 임원 및 본부장

# 다양성 문화 조성

## 여성 리더 육성 강화

신한금융그룹은 금융권 최초로 여성 리더 육성 프로그램인 신한 쉬어로즈(SHeores)를 출범하고, 부서장 이상 직급 187명(누적)을 선발하여 멘토링, 아카데미 등 리더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 쉬어로즈 4기에는 남성 멘토 참여를 통해 성별에 국한하지 않는 리더십 역량 확대를 지원하였고, 모바일 플랫폼 학습 환경을 구축하여 교육 품질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룹은 여성 인재 육성원칙(R.O.S.E)과 육성가이드를 배포하고 회사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물론 활동과 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적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한 그룹사별 육성 중기 로드맵에 기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기 27명, 2기 49명, 3기 67명, 4기 44명 선발

**187명**  
(누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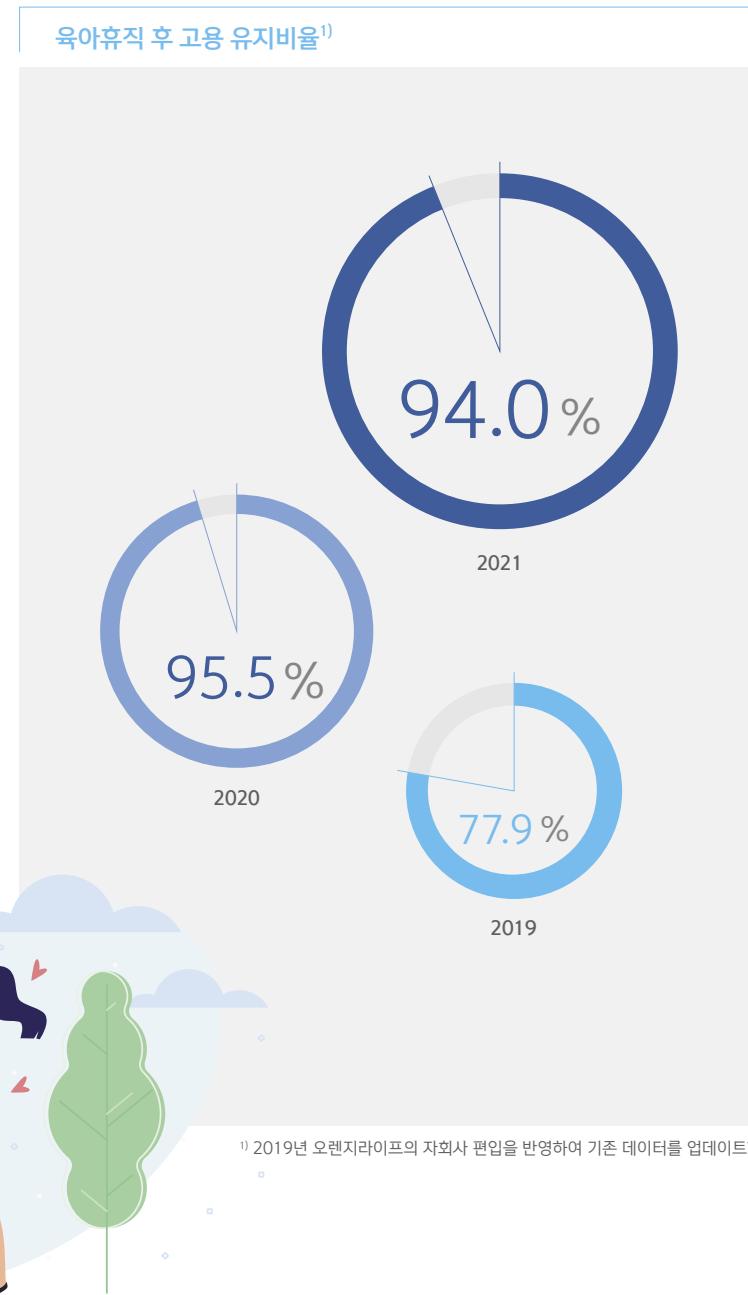
## 여성 리더 육성 제도

직급별 여성 인재육성 프로그램, 리더십 연수, CEO 코칭, 경영진 간담회 운영

신한 SHeores Blue(은행), S-Diva(카드), S-Wing(라이프), Sai-Salon(아이티스) 등 그룹사별 예비 여성리더 특화프로그램 운영

## 일·가정 양립 균로문화 조성

신한금융그룹은 임직원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가족친화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 그룹사의 유연근무제와 스마트 근무제(재택근무/자율출퇴근) 시행을 통해 유연한 근무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5일 연속 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블록휴가 제도와 남성 육아휴직 문화를 장려하고, 서울 및 수도권에 6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임직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육아휴직에서 복직 시 12개월간 고용 유지 비율은 94.0%를 기록하였습니다.



## 모성보호 및 가족친화 제도

### 모성보호 지원

임신기간 균로단축, 가임휴직, 태아검진 휴가, 난임휴가, 출산휴가, 유·사산 휴가, 육아휴직 등 제공

예비맘 디지털 베지 도입으로 영업점 근무 중인 임신직원 보호 및 고객과 직원 상호 배려와 존중 유도 (신한은행)



### 가족친화 문화 조성

가족 돌봄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초등학교 입학 자녀 보유 직원 10시 출근 제도, 유연근무, 스마트 재택근무 제도<sup>2)</sup> 등을 통해 가족친화적 업무환경 조성

<sup>2)</sup> 재택근무와 자율출퇴근을 포함하는 제도로서 신한은행 도입 이후 현재 전 그룹사 시행

## 장애인 지원 사업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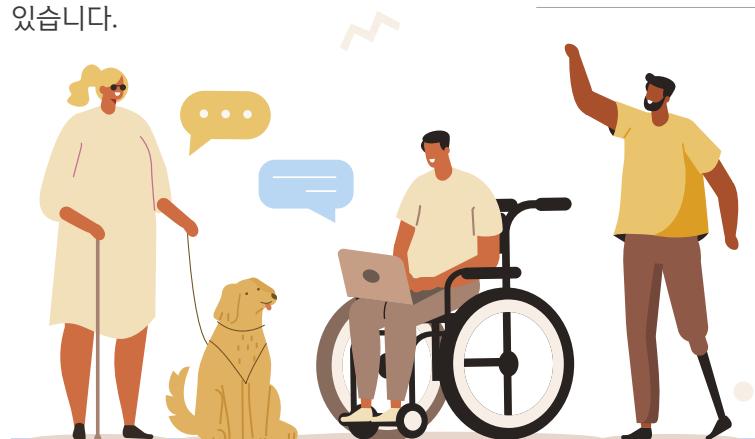
신한금융그룹은 금융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금융 문턱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한 SW교육

사업인 '희망학교 SW교실'을 운영하고,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파악한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독립적인 금융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 카페스윗(Café S with)을 통해 청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신한 임직원들의 착한 소비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재투자해 청각장애인 바리스타 교육과 일자리를 지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에는 신한금융그룹 백년관에 3호점을 개점하여 그 선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한금융그룹은 사회적기업 펀드 투자, 장애인 사업장 물품 구매 등을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 고용기회 창출과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주요 장애인 지원사업

구분	주요 사업	구분	주요 사업
금융 접근성 개선	<b>장애인 전용 채널 운영</b> 장애인 친화 영업점 및 전담직원 운영 장애인 전용 콜센터 (디지털ARS 수어상담) 전자 민원 접수 및 간편 서비스	일자리 창출	<b>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 후원</b> 청각장애인 '까페스윗(Café S with)' 고용 SRI 펀드 보수를 활용한 굿윌스토어 고용 후원
	<b>장애인 편의성 제고</b> 장애인 상담 예약 및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약관 및 상품설명서 바코드 음성 전환 점자약관, 점자블럭 비치		<b>장애인/보훈 대상 특별 채용</b>
	<b>장애인 인턴실습 및 취업/창업 교육</b> '신한 스퀘어 브릿지 : 유스' '도심 속 일터학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연계 직업 훈련	인프라 지원	<b>경영지원 소프트웨어 지원</b>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교육 제공	<b>금융 및 소프트웨어 교육</b> 발달 장애인 금융교육센터 프로그램 특수학교 학생/학부모 '희망학교 SW교실'		<b>장애 예술인 지원</b> 신한갤러리 전시 및 리사이틀 연주 등
	<b>시각 장애인 점자도서 제작</b>	사회적기업 지원	<b>물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b>
사회적기업 지원			<b>장애인 사업장 지원</b> 중증장애인 생산업체, 장애미술작가 통한 물품 구매 및 용역
			<b>사회적기업 연계 직원 프로그램 운영</b>
			<b>코로나19 긴급 지원</b> 장애인 생필품 키트 등
금융 지원		금융 지원	<b>금융 지원</b>
			<b>사회적기업 펀드 투자 (1,2호 17개사)</b>
		사회적기업 대출 지원	<b>사회적기업 대출 지원</b> '사회적경제기업 두드림대출' 금리 우대
			<b>사회적기업 육성</b>
국토부 연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		<b>국토부 연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b>	
			순천 청수정 / 부산 새밭 / 세종 침산마을



## 다문화 지원 강화

신한금융그룹은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의 지역사회 융화와 공존을 위해 신한금융희망재단을 중심으로 해외 취약계층과 해외 취업/창업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금융 접근성 개선과 다문화 아동의 사회 융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한은행, 2021년 사회적 가치 특별채용 신설

신한은행은 2021년 하반기 사회적 가치 특별채용을 진행하여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기업금융/자산관리(WM) 및 ICT 분야 정규직 채용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임직원 다양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다문화 지원사업

구분	주요 사업
해외 취약계층 지원	<b>저개발국가 도시빈민아동 지원</b> 필리핀, 탄자니아 등 빈민아동 후원 및 온라인 교육 지원
해외 취업/창업 지원	<b>해외 장학사업 및 미래 인재 양성</b> 아시아권 8개국 <sup>1)</sup> 현지법인 연계 장학금 수여, 안정적인 학습 기회 제공
금융 접근성 개선	<b>해외 취업교육 및 일자리 연계</b> 'Global Young Challenger' 프로그램 운영 해외 취업을 원하는 청년 인재 대상 국내외 연수 및 해외 취업 매칭
사회 융화 지원	<b>해외 현지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b>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인도네시아' 출범, 현지 스타트업 선발 및 투자 진행 사무공간 제공 및 마케팅, 지분투자, 공동사업 등 지원
다문화아동 문화 경험 및 교류 기회 제공	<b>외국인 노동자 금융 접근성 개선 및 특화 서비스 제공</b> 외국인 노동자 특화점포 운영 및 '일요 외한센터' 통한 휴일 금융업무 지원 산업인력공단 연계 고용허가 산업연수생 통장개설 사업 운영 외국인 전용 모바일 플랫폼(SOL Global) 및 전용 상담 서비스 제공

<sup>1)</sup>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인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 향후 다양성 추진방향

최근 글로벌 교류 증가와 인구 구조의 다변화로 인해 다양성 이슈에 대한 글로벌 인식과 주요 투자 기준으로서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한금융그룹은 임직원의 국적 다양성과 해외 현지화율을 새로운 모니터링 지표로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신한은 해외 20개국에 진출하여, 총 24개의 임직원 국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외국 국적 직원은 전체의 90%, 관리자는 77%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한금융그룹은 기존 양성평등 중심의 다양성 지표 관리에서 나아가 인종, 다문화 등에 대한 다양성 이슈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그룹의 국적 다양성 현황

			(단위: 명)		
국적	직원 수	관리자 <sup>1)</sup> 수	국적	직원 수	관리자 <sup>1)</sup> 수
베트남	2,776	442	홍콩	21	7
인도네시아	934	261	싱가포르	9	4
중국	470	172	독일	7	7
캄보디아	387	84	영국	4	3
미얀마	316	25	호주	4	4
인도	312	68	러시아	3	3
일본	183	75	말레이시아	2	1
미국	140	92	케냐	1	1
카자흐스탄	130	34	대만	1	1
멕시코	43	24	폴란드	1	1
캐나다	41	17	뉴질랜드	1	1
필리핀	22	3	헝가리	1	-
<b>합계</b>			<b>5,809</b>	<b>1,330</b>	

<sup>1)</sup> 과장 이상 직급

\* 은행/카드/금융투자/라이프/자산운용/DS의 해외 현지 법인 및 사업장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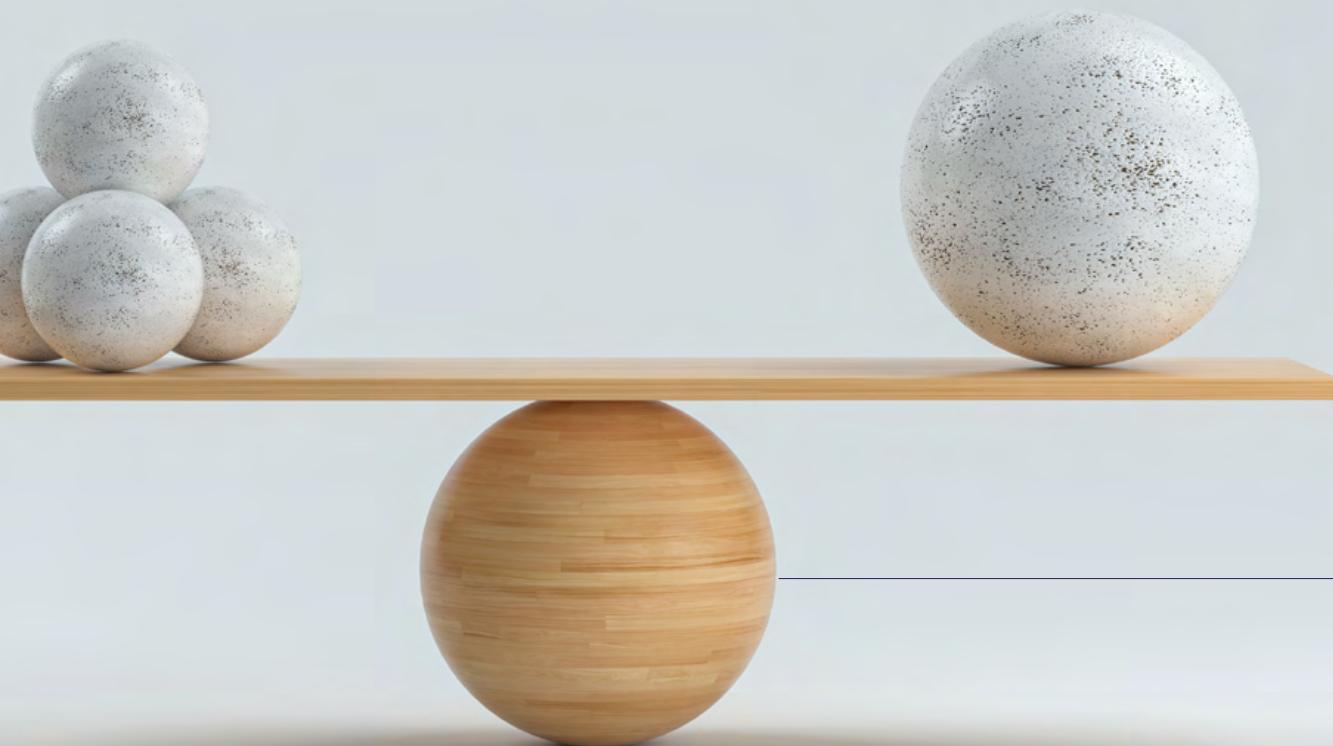
### 해외 현지화율 현황

국가	임직원 수	현지채용 직원 수	한국 국적	외국 국적 (비율)	관리자 <sup>1)</sup> 수 (비율)
일본	323	300	117	183 (56.7%)	75 (54.7%)
중국 <sup>2)</sup>	560	508	25	483 (86.3%)	178 (72.4%)
베트남	2,861	2,810	34	2,776 (97.0%)	442 (87.2%)
미국	287	262	114	148 (51.6%)	96 (51.6%)
인도	333	311	1	310 (93.1%)	67 (75.3%)
인도네시아	951	937	3	934 (98.2%)	261 (94.6%)
캐나다	98	94	49	45 (45.9%)	17 (48.6%)
독일	24	20	14	6 (25.0%)	6 (46.2%)
캄보디아	399	390	3	387 (97.0%)	84 (88.4%)
카자흐스탄	140	134	1	133 (95.0%)	37 (84.1%)
멕시코	47	43	-	43 (91.5%)	24 (85.7%)
런던	34	26	20	6 (17.6%)	5 (29.4%)
싱가포르	24	18	8	10 (41.7%)	4 (36.4%)
마닐라	27	24	4	20 (74.1%)	3 (37.5%)
두바이	11	8	4	4 (36.4%)	2 (40.0%)
시드니	13	9	5	4 (30.8%)	4 (50.0%)
양곤	321	317	1	316 (98.4%)	25 (86.2%)
헝가리	2	1	-	1 (50.0%)	-
우즈베키스탄	-	-	-	-	-
폴란드	-	-	-	-	-
<b>합계</b>			<b>6,455</b>	<b>6,212</b>	<b>403</b>
				<b>5,809 (90.0%)</b>	<b>1,330 (76.7%)</b>

<sup>1)</sup> 과장 이상 직급

<sup>2)</sup> 홍콩 포함

\* 은행/카드/금융투자/라이프/자산운용/DS의 해외 현지 법인 및 사업장 대상



# 인권 보고서

신한의 인권경영 95

신한의 인권정책 96

인권존중 거버넌스 97

주요 인권 이슈 98

인권 보호 및 증진 101

# 신한의 인권경영

## 인권경영의 중요성

현대 사회에서 기업은 전통적인 영리추구를 넘어 사회 전반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뉴노멀 시대에서 인권 이슈는 정보격차, 개인정보침해, 기후위기(식량, 난민, 일자리 등) 등의 주요 변화와 맞물려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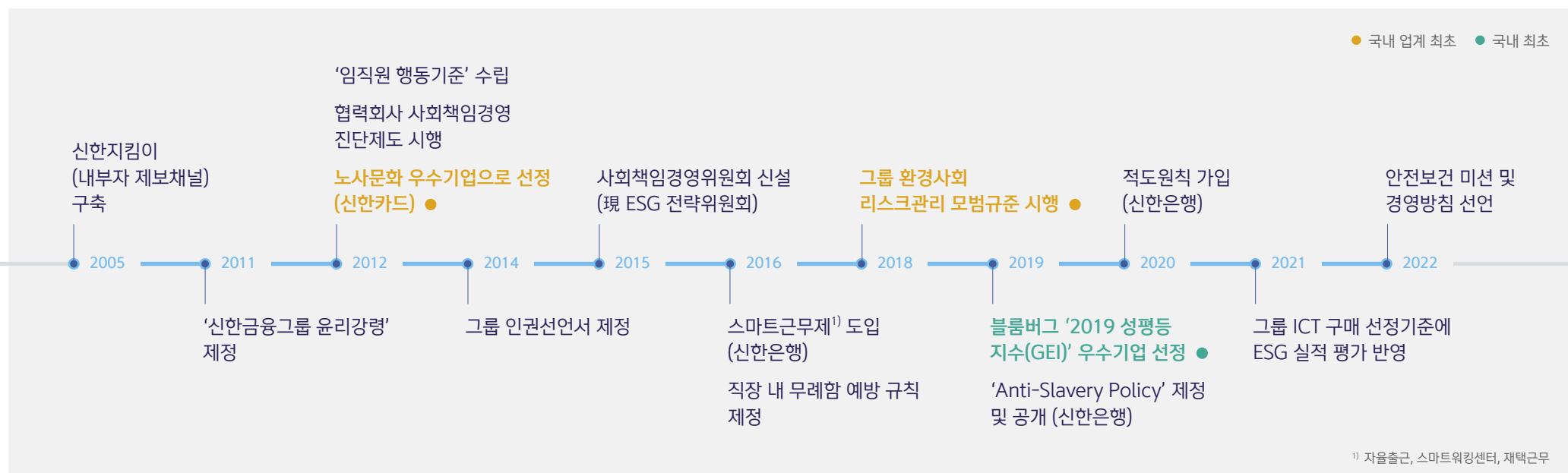
4차 산업혁명 하에서 강화된 정보의 투명성은 기업이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켜야 하며, 착한 기업만이 지속 성장할 수 있다는 사회의 공감대를 조성하였습니다. 그 중심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인권 존중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필수 요소이며, 시장에서의 생존과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 보고서 발간 목적과 의미

신한금융그룹은 '금융의 힘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의미의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을 그룹의 미션으로 정하고 고객 가치, 신한 가치, 사회 가치의 창출을 통해 모두가 상생의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발간하는 인권 보고서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보고 프레임워크(UN Guiding Principle Reporting Framework)'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신한의 인권정책, 이해관계자별 인권 이슈, 인권 관련 주요 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인권 보고서 발간과 더불어 인권친화적 경영에 더욱 앞장서며 모든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인권침해적 요소를 방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인권경영 Milestone



# 신한의 인권정책

신한금융그룹은 2014년 인권선언서를 제정하며 UN인권위원회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및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이 제시하고 있는 인권 보호와 인권 존중을 위한 기본 원칙을 지지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전사 차원의 인권 존중 실천을 위해 그룹 구성원, 고객, 협력회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기본적 권리와 인권 존중의 철학을 담은 '신한금융그룹 윤리강령(2011)' 및 '협력회사 행동규범(2012)'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정책은 신한금융그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분야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 존중 약속을 적극 이행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 인권선언서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인권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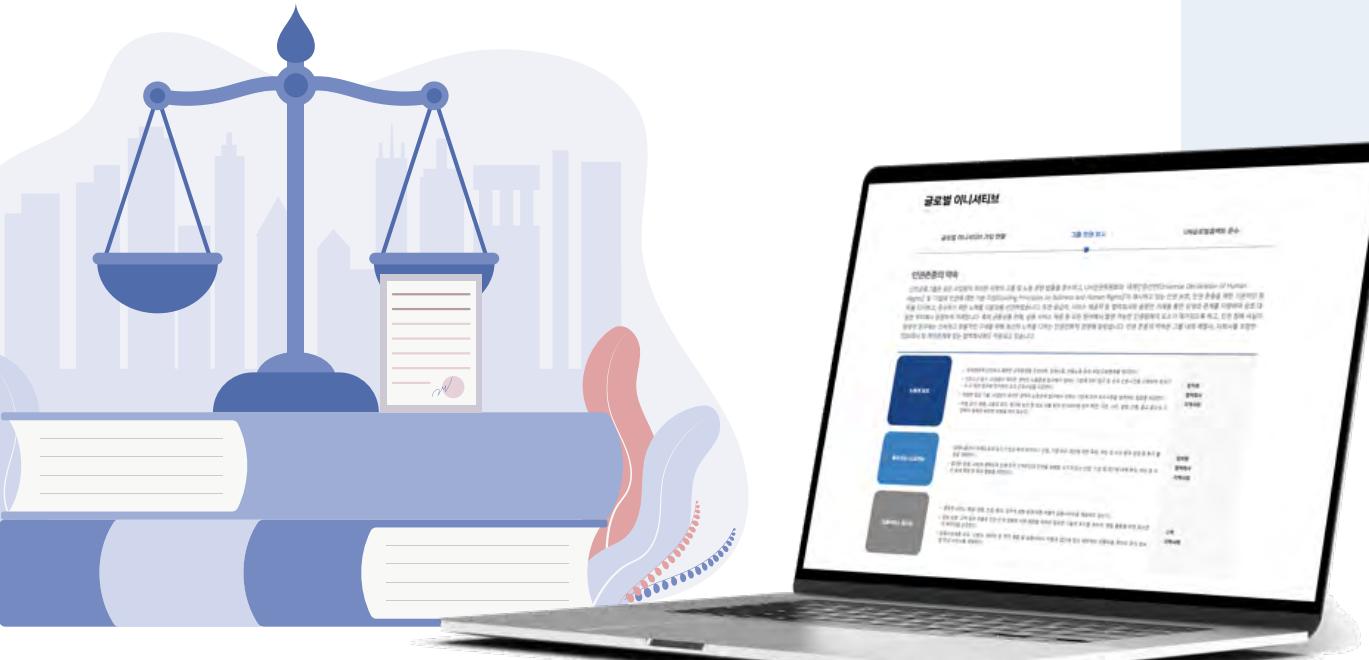


## 현대판 노예제도에 대한 정책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신한금융그룹의 인권정책을 기반으로 사업장과 공급망 등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8년 공표된 호주의 '현대판 노예제 방지법(Modern Slavery Act)'을 준수하기 위해 신한은행 시드니지점은 현대판 노예제도에 대한 정책을 제정하고 선언문(Statement)을 정부 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 준수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현대판 노예 관련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모니터링 프로그램, Shinhhan Guardians 프로그램, 교육 등을 통해 공급망 차원의 잠재적인 위험 영역 식별 및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Modern Slavery Act Statement | Shinhhan Bank



# 인권존중 거버넌스

## 인권 리스크 관리

신한금융그룹은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고 자체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룹사별 자체 윤리·준법 자기점검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권 영역을 점검 및 진단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39개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행동규범 자가진단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신한금융그룹은 지속적으로 국내외 관련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인권영향평가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좀 더 효과적인 인권 리스크의 모니터링 및 사전·사후조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주요 인권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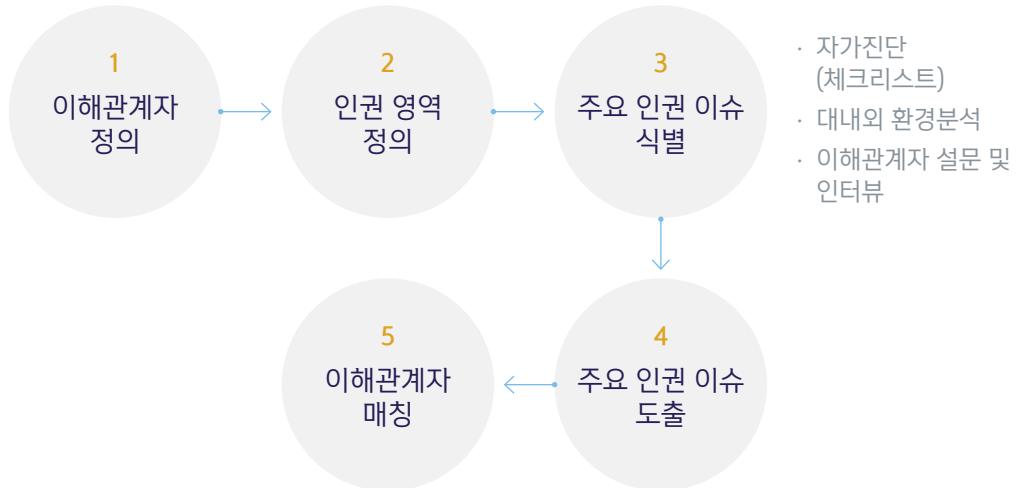
## 인권 이슈 정의

신한금융그룹은 '2021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에서 제시된 11개 영역을 준용하여 내부 자가진단과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3개의 주요 인권 영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고객, 임직원, 협력회사, 지역사회를 주요 이해관계자로 선정하여 주요 인권 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 인권 영역별 정의 및 추진활동

영역	내용	추진 활동	주요 이해관계자
인권 체계 구축	기업과 인권 체계의 신뢰성 및 효과성	인권선언서, 윤리강령, 행동규범 제정	고객, 임직원, 지역사회, 협력회사
고용상의 비차별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고용상 지위 등에 따른 차별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정(2018.06) 및 내재화 ·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시중은행 및 감독당국 등이 참여하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정에 따른 준용	임직원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에 대한 자유 보장		임직원
강제노동 금지	강압적인 형태의 노동 금지	감정노동자 보호제도	임직원, 협력회사
아동노동 금지	아동 고용 금지	현대판 노예제도방지 제도	임직원, 협력회사
산업안전 보장	업무상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 이행	중대재해법 대응	임직원, 협력회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강압적 업무지시, 기강잡기, 폭언 등 괴롭힘 방지 행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임직원, 협력회사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	사회책임경영 진단 협력회사 행동규범	협력회사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해외법인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 인권보호	그룹 환경사회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환경사회 리뷰, 유의영역 관리) 적도원칙 가입	지역사회
환경권 보장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노력	탄소중립 전략 Zero Carbon Drive 선언 및 추진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
고객 인권보호	상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고객의 다양한 권익 보호	신한은행, 사회적 배려고객 응대 매뉴얼 발간 ('함께 하는 편안한 금융') - 시니어, 외국인, 장애인 고객 응대 시 필요한 정보 금융상품 ESG 체크리스트 운영 - 상품출시 및 개발 시 상품에 대한 법률, 금융소비자보호, 관계사 및 환경 이슈를 점검	고객

### 인권 이슈 도출 프로세스



### 인권 리스크 분류 기준

신한금융그룹은 잠재적인 인권 리스크 관리를 위해 위험도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인권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발생 가능성(5개 등급)과 결과 심각성(5개 등급)을 고려하여 총 25단계의 리스크 위험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해당 인권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고 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Focus Issue

2021년에는 기업과 인권이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인 중대재해처벌법, 금융소비자보호법,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 또는 시행됨에 따라 안전, 고객보호, 환경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이에 대응하여 3개 영역에 대해 부정적 인권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한 관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 보장

#### 핵심 이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책임 강화

#### 이해관계자

임직원, 협력회사

####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2021년 1월 26일 / 시행: 2022년 1월 27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방지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사망자 발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안전 보건 및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

사망자 발생: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

부상 및 질병 발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 발생: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

#### 대응 활동

- 안전보건 미션 공표 및 경영방침 설정
- 위험성평가 실시지침 및 매뉴얼 제정 (2022년 6월 내 최초 평가 실시 예정)
- 중대재해대응 매뉴얼 제정
- 안전 보건에 관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반기 1회 설문조사를 통한 종사자 의견 청취
- 수급업체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매뉴얼 제정
- 작업허가 및 체크리스트 확인

## 고객 인권보호



**핵심 이슈**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 및 피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사후구제 책임 강화

**이해관계자** 고객

**주요 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2020년 3월 24일 / 시행: 2021년 3월 25일)

국내외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태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어, 보험, 은행 등 개별 금융업법상의 판매규제, 소비자 권리, 제재조치를 하나의 법으로 통합

-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6대 판매원칙<sup>1)</sup> 준수
-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 요구 가능
- 금융소비자는 상품 가입 후 일정기간 내 계약 철회 가능
- 금융거래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 가능

**대응 활동**

- 2022 전략 과제 중점 추진 사항 선정: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정/시행
  -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 11개사
- 금융소비자보호법 교육 실시
  - 지주회사에서 공통 교육과정으로 11개사 대상 실시
  - 은행, 금융투자, 카드, 라이프, 저축은행, 아시아신탁 등 자체 개별교육 실시
- 금융소비자보호법 전담 카운슬러 제도 운영 (신한카드)
- 영업현장의 소비자보호활동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오피서' 운영 (신한은행)
- 소비자보호 고객배심원단 운영 (신한라이프)
- 디지털, 비대면 창구 및 고객플라자 이용이 어려운 고객 대상의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신한라이프)

## 환경권 보장



**핵심 이슈** 탄소중립기본법으로 인한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으로 친환경 금융 환경 조성 필요성 확대

**이해관계자**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

**주요 내용**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21년 9월 24일 / 시행: 2022년 3월 25일)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 체계 법제화

-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 기후변화영향평가 등 온실가스 감축시책 실시
- 기후대응기금 설치

**대응 활동**

- Zero Carbon Drive 2050 목표 수립을 통한 탄소배출량 감축과 상쇄 추진
- 그룹 자산 포트폴리오<sup>2)</sup>의 탄소배출량 감축목표 수립 (2019년 기준)
  - SBTi SDA(부문별 탈탄소 접근법)을 적용한 2°C 시나리오 기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수립
- 그룹 내부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수립
  - SBTi의 절대량 감축 접근법을 적용한 1.5°C 시나리오 기반 매년 4.2% 감축 목표 수립
- 적도원칙<sup>3)</sup> 적용 및 검토 프로세스 보유 (신한은행)
  - 적도원칙 가입 후 1년 동안 총 36건(프로젝트금융 33건, 금융자문서비스 3건)의 금융 지원 검토 (2020년 9월~2021년 8월)
    - 적도원칙 이행보고서 발간

<sup>1)</sup>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적정성원칙,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sup>2)</sup> 금융회사가 툈자 또는 대출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툈입한 기업 구성

<sup>3)</sup> 대규모 계획 사업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심각한 환경 오염, 생태계 훼손, 인권 침해 등과 같은 환경, 사회적 리스크를 식별 및 관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 인권 보호 및 증진



## 임직원

### 임직원을 위한 인권원칙

- 학연, 지연, 나이, 성별, 인종, 종교 등에 따른 일체의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능력과 자질에 근거해 자기 개발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한다.
- 임직원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이해관계자 참여 및 인권영향평가

- 신한Way 서베이
  - 부장 이하 전 직원 대상으로 14,693명 참여 (2021년)
  - 2022년부터 신한 Culture 서베이<sup>1)</sup>로 개편하여 분기별 1회 실시 예정 (기준 연 1회)
- 신한지킴이를 통한 임직원 인권 관련 고충 접수
- 노사협의회, 인트라넷 등 사내 제안

###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조치<sup>2)</sup>

- 신한지킴이 상시 운영
- 임직원 마음 건강검진 시행
  - 신한은행: 마음챙김 열린상담센터
  - 신한카드: 찾아가는 E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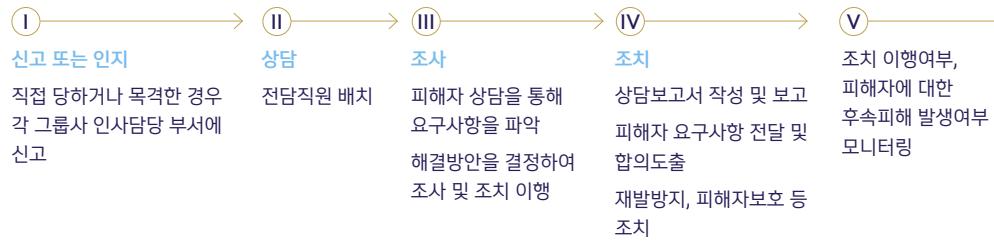
### 성과 및 개선 활동

- 신한지킴이를 통한 인권 관련 제보: 총 19건 (지주 기준)
- 임직원 마음 건강검진 시행
  - 신한은행: '마음챙김 열린상담센터' 13,160명 참여

### Focus Issue

- 2개 (산업안전 보장, 환경권 보장)

## 신한금융그룹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sup>1)</sup> WBL(Work & Life Balance), 조직문화를 포함한 임직원 ESG 인식조사 및 인권 관련 설문 강화

<sup>2)</sup> 8개 그룹사에서 시행중인 다양한 정책/프로그램

## 고객



### 고객을 위한 인권원칙

- 성별, 인종, 종교, 정치적 성향 등에 따른 차별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고객에게 정보제공을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 고객의 진정한 요구와 기대를 존중하여 그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한다.

### 이해관계자 참여 및 인권영향평가

- 홈페이지 VOC를 통한 고객 의견 접수
- 신한지킴이를 통한 고객 관련 제보 접수
- 고객 평가단, 고객만족도 조사

###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조치

- 정보보호 강화
  - 그룹사 및 협력회사 대상 정보보호 실태 점검
  - 보안교육 및 인식제고 활동
  - 분기 1회 '분기별 그룹사 간 고객정보 공유 현황 및 점검결과' 이사회 보고
  -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
  - 취약계층 전담직원 배치 (마음맞춤창구)
  - 사회적 배려고객 응대 매뉴얼 발간 (함께 하는 편안한 금융)

### 성과 및 개선 활동

- 위·수탁업체 점검대상 100% 점검 완료 (신한은행)
  - 은행 업무 외부 위탁 시 수탁업체 대상으로 정보보호 관리 실태 조사 실시
  - 200여 개 위탁/제휴업체 대상 정보보안점검, 총 797회 실시 (분기점검)
- 정보보안 교육 참여율 99.67% (신한은행)
  - ICT 직무 9시간, 일반 직무 6시간, 임원급 3시간 이상 교육 필수
- 은행 마음맞춤 창구 565개 (신한은행)
  - 노년층과 장애인 고객을 위한 상담창구 서비스

- 금융교육 플랫폼 '신한 이지' 론칭 (2022년)
  - 전 세대에 걸쳐 금융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그룹사 통합 금융교육 플랫폼
-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MOU 체결
  -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체계 구축 (신한카드)

- 2개 (고객 인권보호, 환경권 보장)

## 협력회사



### 협력회사를 위한 인권원칙

- 상생의 동반자로서 그룹의 협력회사가 가지는 가치를 중요시한다.
- 그룹의 협력회사 선정 시 그룹의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강요하지 않는다.
- 우월적 지위가 아닌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거래한다.

### 이해관계자 참여 및 인권영향평가

- 협력회사 사회책임경영 진단 설문 (신한은행)
  - 39개 업체 설문 실시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조정)
- ICT 구매 계약 시 ESG실적 평가 (신한은행)
- 상생 간담회, 거래 만족도 조사

###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조치

- 감정노동자 보호제도 운영
  - 고충처리 Hot Line: 고충처리위원회(고충접수/분기 1회 진행), 인트라넷 익명 고충함
  - 상담치료제도: 한국EAP(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협회 전문가 상담 및 코칭, 힐링센터 프로그램 운영
  -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 배포 및 건강관리 교육
- 협력회사 VOC 채널 운영
  - 사내 인트라넷 '신한서브에게 바란다' 익명 고충함 운영
- 구매계약 시 ESG 평가지표 적용 (5~10% 반영)

### 성과 및 개선 활동

- 감정노동자 보호제도 운영 그룹사 7개 100%
- 사회책임경영 진단 시행 협력업체 수: 은행 기준 39개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조정)
- ESG 실적 평가가 반영된 ICT 구매 신규계약 비율 100%

### Focus Issue

- 1개 (산업안전 보장)

## 협력회사 사회책임경영 진단 설문지 구성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	환경	기업윤리 및 이해관계자 소통 여부
협력업체가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이를 위한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여부 평가	협력업체가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개선하고 있는지, 해당 활동이 협력업체의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인지하는지 여부	협력업체가 환경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	협력업체가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업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지 여부

사회책임경영 설문지

## 지역사회



### 지역사회를 위한 인권원칙

- 금융그룹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책임에 대해 인지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제공, 고용 기회, 금융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에 있어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지역사회의 환경,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그 영향을 고려하여 대출 및 투자의사를 결정한다.

### 이해관계자 참여 및 인권영향평가

- ESG 설문조사
  - 2021년 이해관계자 460명 대상
- 지역사회 및 금융정책 간담회

###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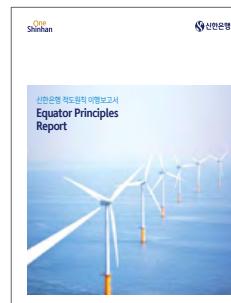
- 대규모 개발사업의 환경사회 리스크 리뷰 (그룹 환경사회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적도원칙 가입으로 관련된 PF에 대해 '적도원칙 스크리닝 프로세스' 심사 수행 (신한은행)
- 취약계층 금융경제 교육 실시

### 성과 및 개선 활동

- 적도원칙을 포함한 그룹 환경사회 리스크 리뷰 실행 건수 45건
- 각 그룹사별로 실시해 온 금융교육을 통합 제공하는 금융교육 플랫폼 '신한 이지' 론칭 (2022년)
- 희망학교 SW교실 1,489명 참여, 71개교 지원
  - 국내 최초의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 청년부채 토탈케어 3기 485명 수료
  - 학자금 대출 연체 고객 중 만 34세 이하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금 및 신용교육 프로그램 실시
  - 1기 285명, 2기 288명 참여

### Focus Issue

- 1개 (환경권 보장)



신한은행 적도원칙 이행보고서

희망학교 SW교실

그룹 환경사회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